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 第 5 卷

(創軍期：유재익 ~ 이철규)

國 防 部



## 序 文



우리 민족은 半萬年の 悠久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外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不屈의 護國精神을 발휘하여 나라의 自主獨立과 民族의 正統性을 면면히 이어온 자랑스런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祖國守護의 主役인 우리 국군은 光復이후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창설되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북한공산 집단의 6·25남침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祖國을 구하고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하였습니다. 또한 휴전이후에는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을 분쇄하였으며, 有史이래 처음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의 十字軍으로서 偉容을 떨쳤고 최근에는 平和維持軍(PKO)에 참여하여 世界平和와 國威宣揚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祖國의 自由와 平和를 위해 散華한 護國戰歿勇士의 수는 1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崇高하고 값진 犠牲이며 또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 호국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쳤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너무나 無關心하였고,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늦게나마 光復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폭동 및 반란의 鎮壓作戰과 軍事作戰을 수행하던 중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관의 숭고한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그 후손들에게 自矜心을 고취시키며, 전 국민에

게 護國思想을 昂揚시키고 후세에 敎訓으로 남기기 위하여 1996년부터 國防軍史研究所에서 연차적으로 『護國戰歿勇士功勳錄』을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護國戰歿勇士功勳錄』 편찬사업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戰歿軍警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후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하며 전 국민의 호국사상 양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료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7년도에도 『護國戰歿勇士功勳錄』을 편찬하는데 최선을 다한 國防軍史研究所 嚴燮駟 所長을 비롯하여 집필을 담당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1997년 12월

김동진

國 防 部 長 官 金 東 鎮

## 發 刊 辭



1990년대에 들어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蘇聯의 붕괴와 함께 美·蘇間 冷戰體制가 사라짐으로써 국제정세는 和解와 協力時代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냉전시대에는 적성 국가였던 러시아,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北韓에 대한 警覺心이 해이해졌으며 일부 左傾 容共勢力들은 感傷的 民族主義나 幻想的 統

一論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의 反共意識을 약화시키고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동해안으로 武裝共匪를 남파시킨 바 있으며, 또한 서해상에서 북한경비정이 우리의 海域을 침범한 후 해군경비정을 향해 艦砲射擊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이후 북한의 사주에 의해 南勞黨이 일으킨 제주 4·3폭동사건과, 여수·순천반란사건 및 대구폭동사건 등 일련의 폭동 및 반란의 진압작전과 그후 계속된 共匪討伐作戰, 38도선경비작전,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서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유지와 국위선양을 위해 싸우다가 戰死하였거나 負傷당하신 軍人과 警察官 및 反共鬪士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준 조국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몇몇한 韓國人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高度經濟成長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결과 世界 第12位의 交易國으로 급부상하였으며, 국민소득 1만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祖國守護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散華하신 護國戰歿勇士들에 대하여 정신적인 名譽宣揚과 물질적 생활보장을 충분히 해주었는지에 대해 깊이 反省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6년부터 國防軍史研究所에서는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발생한 폭동 및 반란의 진압작전과 각종 군사작전 등에 참가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散華하신 16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경찰관에 관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護國戰歿勇士功勳錄』으로 편찬하여 역사에 길이 보존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그 後孫들에게 自矜心을 鼓吹하며 전 국민의 호국사상을 앙양시킴과 동시에 後世에 教訓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人間의 生命은 東西古今이나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가장 所重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共產侵略으로부터 祖國을 守護하기 위해 싸우다가 自己의 生命을 草芥와 같이 버리신 護國戰歿勇士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愛國者들 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이 『護國戰歿勇士功勳錄』 편찬사업은 1996년에 제1권을 편찬한 것을 시초로 금년 전반기에 제2권과 제3권을, 후반기에 제4권과 제5권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계속적으로 편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軍·警 遺家族은 물론 일반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료지원과 指導鞭撻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편찬사업이 조국을 위해 獻身하신 호국전몰용사들의 靈魂을 달래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전 국민의 護國思想을 昂揚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원 및 자료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편찬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宣揚事業團長을 비롯한 執筆研究員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1997년 12월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駟



# 祖國光復과 創軍期

(1945. 8. 15 ~ 1950. 6. 24)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國立大田顯忠院 全景

顯忠詩

獻 詩

朴 鍾 和

여기는 우리들의 祖國  
지나간 한때 어둠속에 잠겼다가  
自由를 되찾은 光復된 나라

은갖 방해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려고  
高貴한 靑春의 피를 뿌린  
이 나라 靖國警察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또다시 닥쳐온 苦難과 試鍊  
民族을 叛逆한 北韓 共產軍  
殘惡한 南侵으로 일으킨 戰爭

銃彈속에서 祖國을 求하려고  
값비싼 靑春의 피를 뿌린  
이 나라 救國警察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도 밤낮을 이어 나라 위해  
오직 自由 平和 正義를 지켜  
저레의 安全을 보살피다

嚴肅하고 거룩한 使命 앞에  
純潔한 靑春의 피를 뿌린  
이 나라 護國警察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여기는 殉國한 님들 잠 드신 곳  
장미꽃보다 아릅답던 靑春  
그 靑春 그대로 누워 계신 곳

肉身은 풀썩의 이슬처럼  
잠깐 왔다 갔을지라도  
뜻과 이름 길이 여기 살아 계시리  
精神과 歷史와 함께 길이 사시리

- 이 헌시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警察忠魂塔碑文에서 발췌한 것임
- 著者紹介  
號는 月灘. 詩人, 小說家, 評論家  
1921 白潮同人  
서울신문사 사장  
作品 : 「임진왜란」, 「황진이」, 「여인천하」, 「양녕대군」  
「세종대왕」 외 다수

# 현충문



顯忠塔의 출입문으로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의 사당전과 극락전을 본떠 건립하였으며, 좌우의 호랑이상은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을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참봉배회



顯忠塔 참배



墓所를 참배하는 유가족



학생들의 墓域 참배

## 호국 분수탑



현충탑·홍살문과 축을 이루고 있으며, 엄숙하고 경건한 정적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護國意志를 드높이고 있다.

호국분수탑은 상·중·하 삼단으로 나뉘어, 상단에는 희생과 봉사로 영광된 조국 건설의 초석이 되는 役軍像인 11인의 청동 군상이 있고, 중앙에는 호국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십장생 투조가 있으며, 하단에는 시원한 생명수를 내뿜는 분수를 타고 英靈과 함께 승천하는 龍이 부조물로 조각되어 있다.

## 경찰 충혼탑



光復以來 公共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6·25 전쟁시 공산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800여위 경찰관이 잠들어 있는 묘역에 이들의 넋을 기리고자 忠魂塔이 건립되었다.

## 괴산 5용사 묘



- 위 치: 忠淸北道 槐山郡 槐山邑 水津里
- 괴산경찰서 감물지서 순경 김순실 등 5명은 1950년 5월 12일 감물면 매전리 증자동 마을에 무장공비 30여명이 출현하여 방화, 강간 및 양곡탈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적과 교전중 5명 전원이 전사하였다. 대한경우회 괴산지회에서 그 愛國衷情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1980년 7월 1일 5용사 묘역을 준공



# 순천 충혼비



- 위 치: 全羅南道 順天市 佳谷洞 425번지
- 6·25 전쟁 전후 智異山, 白雲山, 鷄足山, 曹溪山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공비들이 관공서 습격 및 방화, 양민학살 등을 자행하자,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장렬히 산화한 고 충경 양계원 외 315위의 英靈과 그 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1957년 4월 10일 당시 순천경찰서장이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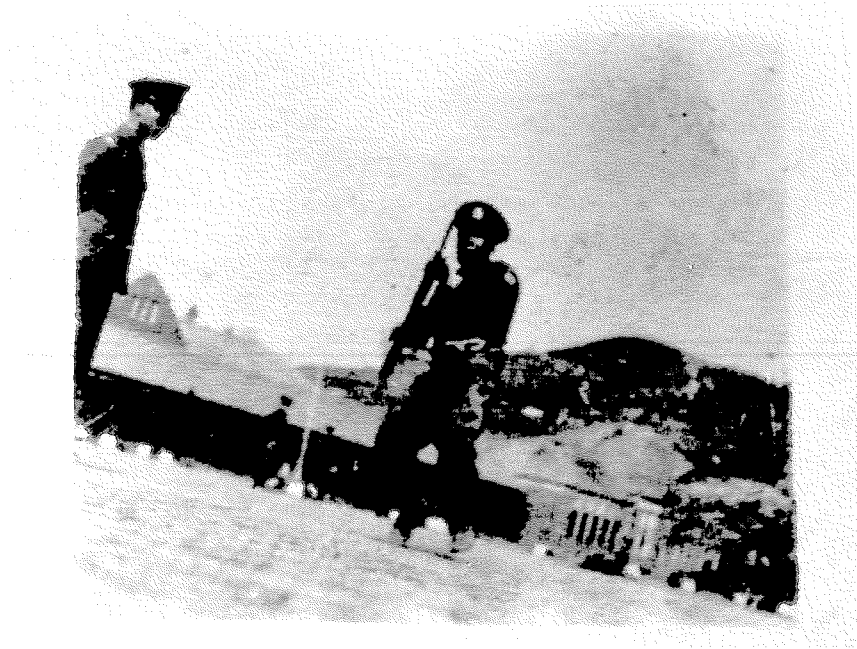
# 14호중 1중대

## 第 4聯隊 創設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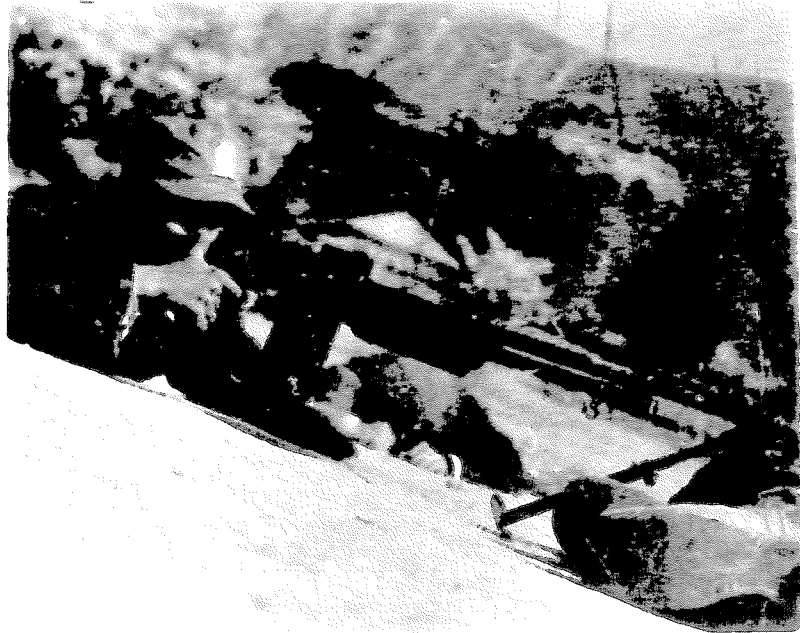


全羅南道 光州 1946. 초가을 / 朝鮮統衛部, 광주 제4연대 창설식

【자료 : 이경모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 1989, p. 34】



創軍期 陸軍의 훈련모습(총검술)



創軍期 陸軍의 훈련모습(射擊術 豫備訓練)

【자료 : 박송선 여사, 서울 노원구 중계동】



創軍期 陸軍의 執銃訓練

【자료 : 박승선 여사, 서울 노원구 중계동】

叛亂軍에 의해 희생된 警察官



全羅南道 順天 1948. 10 / 여·순반란군에게 참혹하게 학살당한 경찰관의 시신 옆에 경찰관의 모자(화살표)가 보인다.

【자료 : 이경모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 1989, p. 63】

麗·順叛亂軍 진압차 移動하는 鎮壓軍



全羅南道 和順 1948. 10 / 이동하고 있는 鎮壓軍

【자료 : 이경보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 1989, p. 59】

叛亂軍 鎮壓 教育場面



全羅南道 谷城郡 석곡면 1948. 10 / 討伐隊에 참가해 지휘하게 될 陸士 7期生 新任 少尉들이 배치되기 앞서 事前 教育을 받고 있다.

【자료 : 이경보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 1989, p. 60】

白雲山 共匪討伐作戰



全羅南道 光陽 白雲山 1948. 11 / 討伐作戰을 벌이고 있는 鎮壓軍, 반란군들의 유격 활동은 급격히 확대되어 거의 모든 산악지대들이 유격활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자료 : 이경모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 1989,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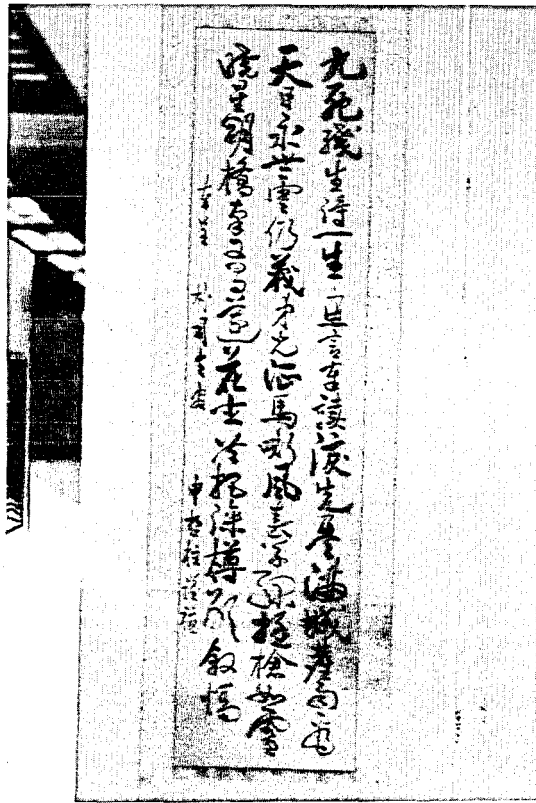
南原地區 戰鬥司令部를 순시하는 李範奭 國防部長官



金智會, 洪淳錫을 사살하고 표창을 받는 제3연대장, 咸俊鎬 중령과  
대대장 韓雄震 소령

【자료 :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부 전편위, 1968, pp. 434~435】





구사관성두인생 卽안두두두안영  
 만성간우간천일 임포유임의제성  
 정다시풍손츄루 무상의살살성  
 르담우과연화과 허구안은후서정  
 九死殘生得一生 一身苦盡復還生  
 身滿城春雨 天日永世當仍義  
 力心馬影風雲 志氣不搖檢物靈  
 曉星明檣春草白 色一在生  
 冷把深樽飲故鄉

朴昇日 申啓往 謹稿

구사인생으로 다시 살어나 은퇴로운 말씀 듣자오니 눈물이 먼저 가득  
 설안 가득한 읍민지 속에서 해를 따라보고 영원토록 현성한 자손 의형제 닮아  
 정다가 바람결에 우는듯 손초는 푸르고 무서운 무기는 눈처럼 날려 새벽이 밝네  
 르담에서 다시 인화회를 지나 함께 가득한 잔으로 마음을 펼쳐보려 하네

이 족자는 智異山 共匪討伐作戰時 求禮地區 전투사령관인 朴昇日 소령이 주민 대표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받은 것임

[자료 : 국방군사연구소 자료실]

虎林部隊 指揮官 및 參謀



虎林部隊의 永登浦學院時節의 參謀, 좌로부터 세번째가 강종철 부대장

호림부대(영등포학원)는 1949년 2월 25일 이북출신 367명을 기간으로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에서 창설, 총사령관인 정보국 특무과장 한왕용 소령이, 강종철을 부대장으로 임명

【자료 :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부 전편위, 1968, p. 335】

# 일 리 두 기

## 1. 收錄範圍

이 공훈록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군사작전에서 전사(戰死)하신 1천여명(유재익~이칠규)을 수록하였다.

## 2. 收錄內容 및 記述方法

가. 수록인물은 위국헌신한 군·경 전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물 배열은 소속부대, 계급 및 전사일자 등에 관계없이 성명별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나. 부록으로 한·미군사안전협정서, 국군조직법, 국방부 직제의 제정, 국방기구의 연혁 및 직위표, 공비토벌유공자 표창장 등을 수록함으로써, 국군(國軍)의 태동(胎動)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객관성이 인정되는 주요 인용문헌을 제시하여 자료의 출처를 밝혔으며,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성명의 한자 및 군번, 생년월일, 출신지, 소속부대, 전사일자 및 전사장소 등 공훈록에 포함될 모든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가 없는 사항은 생략하였다.

## 마. 개별 공훈록

### (1) 전치란(前置欄)

전치란은 표제인명, 군별, 계급, 군번(경찰 제외) 순으로 기술(記述)하였다.

### (2) 표제인명(表題人名)

인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併記)하였으며,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3) 본 문(本文)

(가) 기재(記載) 내용은 생년월일, 출신지, 소속부대 등과 참가전투 및 공적사항, 전사일자, 전사장소, 무공수훈사항, 안장처 및 안장번호, 위패번호, 기타내용 등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확인된 내용만을 기술(記述)하였다.

(나) 전사하신 분들의 개인별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자료가 대부분 없는 실정이므로 소속부대별(사단, 연대, 직할부대, 기타)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기술하였으나, 개인별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는 개인별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의 서술방법은 연대(年代)와 일자순(日字順)으로 개인 및 소속부대의 주요 활동내용을 전사일까지 서술(敘述)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의 활동배경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라) 연대(年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表記)하였으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마) 계급, 관직명 및 지명 등은 자료에 기록된 내용이나 또는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재명을 사용하였다.

(바) 한자표기(漢字表記)는 인명, 지명 및 혼동하기 쉬운 단어에만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3. 補完増刊

전사자 개인의 참전 및 공적(공훈)내용이 새로 발견되거나 본 공훈록에 잘못 수록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앞으로 『護國戰歿勇士功勳錄』을 보완, 증간시 반영할 예정이다.

#### \* 參考事項

본 공훈록의 연구 편찬에 필요한 사진 및 각종 자료를 소장(所藏)하고 계신 분은 아래 주소로 우송 또는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140-0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국방군사연구소 선양사업단

○ 전 화 : (02)709-3008 / 3151 / 3194

F A X : (02)709-3111

# 目 次

序 文

發 刊 辭

顯 忠 詩

畫 報

일러두기

人名 찾아보기

護國戰歿勇士功勳錄 ..... 1

附 錄 ..... 575

1. 韓·美 軍事安全協定(1948. 8. 24) ..... 577

2. 國軍組織法(1948. 11. 30) ..... 580

3. 國防部 職制의 制定(1948. 12. 7) ..... 584

4. 國防機構의 沿革 및 職位表(1946~1950) ..... 589

5. 共匪討伐有功者 表彰狀(寫本) ..... 598

主要 引用文獻資料 ..... 602

## 人名 찾아보기

유재익 .....	3	윤금석 .....	23	윤석원(尹石原) .....	43
유재조(俞載兆) .....	3	윤기홍(尹基弘) .....	23	윤석주(尹錫柱) .....	43
유재조(俞載兆) .....	4	윤길흠(尹吉欽) .....	24	윤성득(尹盛得) .....	44
유재칠(劉在七) .....	5	윤덕현(尹德鉉) .....	25	윤성연(尹聖淵) .....	44
유재환(劉在煥) .....	5	윤도영(尹道英) .....	25	윤성용(尹成龍) .....	45
유정남(劉正男) .....	6	윤도형(尹道滢) .....	26	윤성윤(尹成潤) .....	46
유정목(俞正穆) .....	6	윤돈귀(尹惇貴) .....	26	윤성중(尹成重) .....	46
유정석(俞正錫) .....	7	윤동명(尹東明) .....	27	윤성현(尹聖鉉) .....	47
유종만 .....	8	윤동수(尹東洙) .....	27	윤소용(尹小龍) .....	47
유종운(俞種雲) .....	8	윤동철(尹東哲) .....	28	윤순관(尹淳寬) .....	48
유창섭(劉昌燮) .....	9	윤두순(尹斗淳) .....	29	윤순백(尹順伯) .....	48
유창섭(劉昌燮) .....	10	윤만중(尹萬重) .....	29	윤순철 .....	49
유철수(俞哲洙) .....	10	윤명섭 .....	30	윤승용(尹承龍) .....	49
유치권(劉致權) .....	11	윤 백(尹 栢) .....	30	윤승원(尹承遠) .....	50
유태문(劉泰文) .....	11	윤병곤(尹炳坤) .....	31	윤 식(尹 植) .....	51
유태영(俞泰永) .....	12	윤병남(尹炳南) .....	32	윤영길(尹永吉) .....	52
유관암(劉判岩) .....	13	윤병준(尹炳俊) .....	32	윤영도(尹永道) .....	53
유팔원(劉八元) .....	14	윤병현(尹炳鉉) .....	33	윤영식(尹永植) .....	53
유팽식(俞彭植) .....	14	윤병화(尹炳和) .....	33	윤영조(尹英祚) .....	54
유평중(劉坪鍾) .....	15	윤병훈(尹炳勳) .....	34	윤영중(尹永重) .....	54
유평중(劉坪鍾) .....	15	윤복석(尹福石) .....	35	윤영학(尹英學) .....	55
유현기(俞鉉基) .....	16	윤봉근(尹鳳根) .....	35	윤영호(尹永鎬) .....	56
유협중(劉協鍾) .....	16	윤봉문(尹鳳文) .....	36	윤옥태(尹玉泰) .....	56
유형준(俞衡濬) .....	17	윤봉한(尹捧漢) .....	36	윤옥춘 .....	57
유홍식(俞洪植) .....	17	윤사백(尹四白) .....	37	윤완식(尹完植) .....	59
윤갑수 .....	18	윤삼돌(尹三丕) .....	37	윤용범(尹龍範) .....	59
윤갑현(尹甲憲) .....	19	윤상록(尹相錄) .....	38	윤용성(尹龍成) .....	60
윤경현(尹京峴) .....	19	윤상우(尹相禹) .....	39	윤용성(尹龍成) .....	61
윤계출(尹季出) .....	20	윤상조(尹相助) .....	39	윤용식 .....	62
윤광호(尹光浩) .....	20	윤상조(尹相祚) .....	40	윤우용(尹又龍) .....	62
윤교성(尹敎成) .....	21	윤상철(尹相喆) .....	40	윤운식(尹雲植) .....	63
윤규식(尹圭植) .....	21	윤서풍(尹西豐) .....	41	윤원성(尹元成) .....	63
윤금덕(尹今德) .....	22	윤석기(尹錫基) .....	42	윤이돌(尹二丕) .....	64

윤이돌(尹二鬲) .....	65	윤한용(尹漢龍) .....	87	이계석(李啓石) .....	109
윤인섭(尹寅燮) .....	65	윤한전(尹漢全) .....	87	이경복(李京北) .....	110
윤일병(尹日炳) .....	66	윤해정(尹海程) .....	88	이경수(李京秀) .....	110
윤자현(尹字鉉) .....	66	윤해학(尹海學) .....	88	이계춘(李啓春) .....	111
윤장환(尹張煥) .....	67	윤행실(尹行失) .....	89	이계호(李癸鎬) .....	111
윤재구(尹在九) .....	68	윤호이(尹號伊) .....	90	이계화(李啓和) .....	112
윤재룡(尹在龍) .....	68	윤홍건(尹弘乾) .....	90	이공신(李公信) .....	112
윤재영(尹在榮) .....	69	윤화영(尹華寧) .....	91	이공윤 .....	113
윤재중(尹在中) .....	70	윤효섭(尹孝燮) .....	91	이관노(李款魯) .....	114
윤재풍(尹在豐) .....	70	윤춘금(尹春琴) .....	92	이관수(李觀洙) .....	114
윤정병(尹貞炳) .....	71	윤휘동(尹揮東) .....	92	이관영(李寬榮) .....	115
윤정복(尹貞福) .....	71	은성희(殷成熙) .....	93	이관영(李觀永) .....	115
윤종권(尹鍾權) .....	72	은창영(殷昌永) .....	94	이관호(李觀浩) .....	116
윤종주(尹宗柱) .....	72	은희영(殷喜泳) .....	94	이광노(李琯魯) .....	116
윤종태(尹鍾泰) .....	73	이각노(李角魯) .....	95	이광락(李光樂) .....	117
윤종학(尹宗學) .....	73	이각주(李珏周) .....	95	이광묵(李光默) .....	118
윤주석(尹柱碩) .....	74	이갑근(李鉞根) .....	96	이광석(李光石) .....	118
윤주성(尹柱成) .....	75	이갑칠(李甲七) .....	96	이광세(李光世) .....	119
윤주영(尹胄榮) .....	75	이갑호(李甲鎬) .....	97	이광수(李光洙) .....	119
윤주일(尹柱日) .....	76	이강길(李康吉) .....	98	이광열 .....	120
윤주일(尹柱逸) .....	76	이강남(李康南) .....	98	이광하(李光夏) .....	120
윤준우(尹準佑) .....	77	이강묵(李鋼默) .....	99	이광훈 .....	121
윤중량(尹仲郎) .....	77	이강수(李康洙) .....	99	이광훈(李光勳) .....	122
윤지오 .....	78	이강영(李康英) .....	100	이광희(李光熙) .....	122
윤지용(尹志用) .....	79	이강우(李康祐) .....	100	이교덕(李教德) .....	123
윤진오(尹鎭五) .....	79	이강운(李康運) .....	101	이교준(李教俊) .....	123
윤진현(尹鎭鉉) .....	80	이강원(李康元) .....	102	이구영(李龜榮) .....	124
윤창수(尹昌洙) .....	80	이강준(李康準) .....	103	이군행(李君倅) .....	124
윤창희(尹昌熙) .....	81	이강훈(李康勳) .....	103	이군행(李君行) .....	125
윤철병(尹喆炳) .....	82	이건수(李建洙) .....	104	이권두(李權豆) .....	126
윤충원(尹忠元) .....	82	이건희(李健熙) .....	104	이귀탁(李貴卓) .....	126
윤칠봉(尹七鳳) .....	83	이경구(李京求) .....	105	이귀학(李貴學) .....	127
윤태근(尹泰根) .....	83	이경구(李敬九) .....	105	이규명(李圭明) .....	127
윤태현(尹台絃) .....	84	이경우(李炅雨) .....	106	이규묵(李圭睦) .....	128
윤필득(尹筆得) .....	84	이경태(李慶泰) .....	107	이규복(李圭複) .....	128
윤필환(尹弼煥) .....	85	이경화(李京華) .....	107	이규삼(李圭三) .....	129
윤하의(尹夏儀) .....	86	이경화(李景華) .....	108	이규섭(李圭燮) .....	130
윤학섭(尹學燮) .....	86	이경희(李敬熙) .....	108	이규섭(李圭燮) .....	130



이규성(李圭成) .....	131	이기영(李基榮) .....	153	이덕규(李德圭) .....	175
이규성(李圭成) .....	131	이기영(李基永) .....	153	이덕래(李德來) .....	176
이규순(李奎淳) .....	132	이기웅(李起翁) .....	154	이덕래(李德來) .....	177
이규식 .....	133	이기윤(李起允) .....	154	이덕룡(李德龍) .....	177
이규식(李圭植) .....	133	이기재(李箕在) .....	155	이덕명(李德明) .....	178
이규식(李圭植) .....	134	이기종(李基琮) .....	156	이덕배(李德培) .....	178
이규옥(李圭玉) .....	134	이기창(李基昌) .....	156	이덕수(李德守) .....	179
이규용(李圭龍) .....	135	이기철(李基喆) .....	157	이덕용 .....	179
이규원(李奎元) .....	136	이기철(李基喆) .....	157	이덕칠(李德七) .....	180
이규원(李奎元) .....	136	이기태(李棋泰) .....	158	이덕희(李德熙) .....	181
이규출(李奎出) .....	137	이기택(李起澤) .....	159	이도권(李道權) .....	181
이규태 .....	137	이기택(李起澤) .....	159	이도보(李都甫) .....	182
이규현(李圭鉉) .....	138	이기풍(李起豐) .....	160	이도상(李道相) .....	183
이규형(李奎亨) .....	138	이기현(李基憲) .....	161	이도중(李道鍾) .....	183
이규형(李奎馨) .....	139	이기환(李基煥) .....	161	이돈모(李敦模) .....	184
이규희(李圭熙) .....	139	이기훈(李基勳) .....	162	이돈식 .....	184
이근명(李根命) .....	140	이기휘(李基徽) .....	162	이동기(李東基) .....	185
이근수(李根壽) .....	141	이길수(李吉壽) .....	163	이동길(李東吉) .....	186
이근수(李根守) .....	141	이길용(李吉龍) .....	163	이동미(李東米) .....	187
이근수(李根洙) .....	142	이길이(李吉伊) .....	164	이동석(李東錫) .....	187
이근영(李根瑩) .....	142	이길행(李吉行) .....	165	이동수 .....	188
이근재(李根宰) .....	143	이낙렬(李洛烈) .....	165	이동수(李同守) .....	188
이근창(李根昌) .....	143	이낙범(李樂範) .....	166	이동수(李東洙) .....	189
이근채(李根彩) .....	144	이남섭(李南燮) .....	166	이동우(李東雨) .....	189
이근택(李根澤) .....	144	이남중(李南鍾) .....	167	이동은(李東殷) .....	190
이근호(李根浩) .....	145	이단석(李旦錫) .....	168	이동인(李東仁) .....	191
이금영 .....	146	이단희(李檀禧) .....	168	이동진(李東振) .....	191
이금응(李金應) .....	146	이달권(李達權) .....	169	이동진(李東珍) .....	192
이기국(李基國) .....	147	이달세(李達世) .....	169	이동진(李東鎭) .....	193
이기덕(李起德) .....	147	이달우(李達雨) .....	170	이동창(李東昌) .....	193
이기문(李基文) .....	148	이달우(李達雨) .....	170	이동철(李東喆) .....	194
이기서(李起西) .....	149	이대권(李大權) .....	171	이동춘(李同春) .....	194
이기성(李氣成) .....	149	이대근(李大根) .....	172	이동훈(李東焄) .....	195
이기순(李基純) .....	150	이대득(李大得) .....	172	이두교(李斗敎) .....	195
이기연(李基淵) .....	150	이대식(李大植) .....	173	이두용(李斗用) .....	196
이기연(李基連) .....	151	이대우(李大雨) .....	174	이두태(李斗泰) .....	196
이기연(李起燕) .....	151	이대형(李大炯) .....	174	이두훈(李斗勳) .....	197
이기영(李基榮) .....	152	이덕관(李德觀) .....	175	이등목(李澄穆) .....	198

이양세(李亮世) .....	198	이문기(李文基) .....	220	이병욱(李炳旭) .....	241
이리식(李利植) .....	199	이문석(李文錫) .....	220	이병욱(李炳郁) .....	241
이만대(李萬大) .....	199	이문식 .....	221	이병운 .....	242
이만복(李萬福) .....	200	이문호(李文鎬) .....	221	이병원(李秉元) .....	242
이만석 .....	200	이문희(李文熙) .....	222	이병일(李炳日) .....	243
이만수(李晩洙) .....	201	이민(李敏) .....	222	이병재(李炳宰) .....	243
이만수(李萬洙) .....	202	이민용(李民用) .....	223	이병조(李炳祚) .....	244
이만수(李萬洙) .....	202	이민호(李敏鎬) .....	223	이병준(李炳準) .....	245
이만수(李萬洙) .....	203	이발석(李撥錫) .....	224	이병준(李秉俊) .....	245
이만식(李萬植) .....	203	이발원(李撥元) .....	225	이병찬(李秉讚) .....	246
이만영(李万永) .....	204	이방억(李方億) .....	225	이병창(李秉昌) .....	246
이만우(李萬雨) .....	204	이방우(李邦雨) .....	226	이병춘(李炳春) .....	247
이만원(李萬源) .....	205	이배섭 .....	226	이병춘(李炳春) .....	248
이만철(李萬喆) .....	206	이백동(李白東) .....	227	이병하(李炳夏) .....	248
이만춘(李萬春) .....	206	이백언(李栢彦) .....	227	이병호(李丙浩) .....	249
이말용 .....	207	이백운(李伯允) .....	228	이병호(李炳浩) .....	250
이면호(李冕好) .....	207	이범고(李範考) .....	228	이병호(李炳虎) .....	250
이명곤(李明坤) .....	208	이범선(李範璿) .....	229	이병호(李炳浩) .....	251
이명달(李命達) .....	209	이범팔(李範八) .....	229	이병호(李炳鎬) .....	251
이명복(李明福) .....	209	이범호(李範浩) .....	230	이병희(李丙熙) .....	252
이명수(李明洙) .....	210	이병구(李秉九) .....	230	이병희(李炳熙) .....	252
이명식(李明植) .....	210	이병구(李秉九) .....	231	이보영(李保永) .....	253
이명언(李明彦) .....	211	이병권(李秉權) .....	232	이복규(李福圭) .....	254
이명원(李命源) .....	211	이병남(李炳南) .....	232	이복동(李福同) .....	254
이명재(李名在) .....	212	이병노(李炳魯) .....	233	이복만(李福萬) .....	255
이명재(李明載) .....	212	이병두(李秉斗) .....	233	이복만(李福萬) .....	256
이명제(李明濟) .....	213	이병례(李秉例) .....	234	이복성(李福成) .....	256
이명찬(李明燦) .....	213	이병무(李炳武) .....	234	이복수(李福秀) .....	257
이명호(李明浩) .....	214	이병문(李炳文) .....	235	이복술(李福述) .....	257
이목래(李穆來) .....	214	이병봉(李炳鳳) .....	236	이복우(李福雨) .....	258
이목희(李穆熙) .....	215	이병석 .....	236	이복우(李福雨) .....	258
이몽출(李夢出) .....	216	이병성(李秉性) .....	237	이봉규(李鳳圭) .....	259
이무석(李務石) .....	216	이병숙(李炳叔) .....	237	이봉길(李鳳吉) .....	260
이무연(李戊淵) .....	217	이병순(李炳淳) .....	238	이봉석(李鳳奭) .....	261
이무옥(李茂玉) .....	217	이병열(李丙烈) .....	239	이봉선(李鳳善) .....	261
이무용(李武用) .....	218	이병용(李丙用) .....	239	이봉수(李鳳洙) .....	262
이무웅(李武雄) .....	218	이병용(李炳用) .....	240	이봉열(李鳳烈) .....	262
이무희(李茂熙) .....	219	이병우(李秉宇) .....	240	이봉용(李鳳鎔) .....	263

이봉계(李鳳堤) .....	263	이상웅(李像雄) .....	286	이선우(李善雨) .....	309
이봉준(李鳳俊) .....	264	이상유(李相有) .....	286	이선형(李善炯) .....	310
이봉진(李鳳振) .....	264	이상윤(李相允) .....	287	이선환(李善煥) .....	310
이봉학(李奉鶴) .....	265	이상율(李相律) .....	287	이선희(李先熙) .....	311
이봉현(李逢顯) .....	266	이상준(李相俊) .....	288	이성군(李成君) .....	311
이봉협(李奉協) .....	266	이상준(李相俊) .....	289	이성규(李星圭) .....	312
이사영(李四永) .....	267	이상진(李相珍) .....	290	이성규(李星圭) .....	312
이사준(李仕濬) .....	268	이상진(李相珍) .....	290	이성근(李聖根) .....	313
이삼만(李三萬) .....	268	이상진(李相鎭) .....	291	이성길(李成吉) .....	313
이삼봉(李三峯) .....	269	이상찬(李相讚) .....	291	이성득(李成得) .....	314
이삼봉(李三峰) .....	269	이상찬(李相贊) .....	292	이성묵(李聖默) .....	314
이삼석(李三碩) .....	270	이상철 .....	293	이성문 .....	315
이삼철(李三喆) .....	270	이상춘(李相春) .....	293	이성석(李性錫) .....	316
이상결(李相傑) .....	271	이상태(李相太) .....	294	이성연(李聲淵) .....	316
이상국(李相國) .....	272	이상필(李尙弼) .....	295	이성오(李聖五) .....	317
이상규(李相奎) .....	272	이상헌(李相憲) .....	295	이성우(李成雨) .....	317
이상규(李相珪) .....	273	이상호(李相浩) .....	296	이성우(李聖雨) .....	318
이상근(李相根) .....	273	이상호(李相浩) .....	296	이성우(李聲雨) .....	318
이상근(李相根) .....	274	이상호(李相鎬) .....	297	이성윤(李成潤) .....	319
이상근(李相根) .....	274	이상화(李相華) .....	298	이성인(李聖仁) .....	320
이상기(李相基) .....	275	이상환(李相煥) .....	298	이성재(李聖宰) .....	320
이상대(李相大) .....	276	이상훈(李相焄) .....	299	이성조(李聖祚) .....	321
이상도(李相道) .....	276	이상희(李相喜) .....	300	이성준(李聖俊) .....	321
이상림(李相林) .....	277	이석균(李錫均) .....	300	이성중(李性仲) .....	322
이상만(李相萬) .....	278	이석동(李石東) .....	301	이성찬(李聖贊) .....	323
이상만(李相萬) .....	278	이석복(李錫福) .....	301	이성표(李星杓) .....	323
이상묵(李相默) .....	279	이석봉(李石奉) .....	302	이성필(李星畢) .....	324
이상문(李相文) .....	279	이석순(李錫順) .....	302	이성현(李成鉉) .....	324
이상복(李相福) .....	280	이석우(李石雨) .....	303	이성현(李聖鉉) .....	325
이상복(李相福) .....	280	이석원(李錫原) .....	304	이성호(李聖湖) .....	325
이상석(李相石) .....	281	이석원(李錫源) .....	304	이세묵(李世默) .....	326
이상선(李相善) .....	282	이석익(李奭益) .....	305	이세봉(李世奉) .....	327
이상수(李商秀) .....	282	이석주(李錫柱) .....	305	이세순(李世淳) .....	327
이상열(李相烈) .....	283	이석호(李錫鎬) .....	306	이세형(李世炯) .....	328
이상옥 .....	283	이석훈(李碩勛) .....	307	어수규(李洙珪) .....	328
이상우(李相雨) .....	284	이선각(李善珪) .....	307	이수근(李壽根) .....	329
이상우(李相雨) .....	285	이선규(李善奎) .....	308	이수근(李壽根) .....	329
이상운(李相雲) .....	285	이선영(李善永) .....	308	이수만(李壽萬) .....	330

이수만(李壽萬) .....	330	이신구(李愼九) .....	351	이영호(李永浩) .....	370
이수만(李數萬) .....	331	이신호(李愼鎬) .....	351	이영호(李永浩) .....	371
이수범(李守範) .....	331	이심기(李心基) .....	352	이영화(李榮華) .....	371
이수복(李守福) .....	332	이쌍몽(李雙夢) .....	352	이영화(李永華) .....	372
이수봉(李守奉) .....	332	이양기(李養基) .....	353	이옥용(李玉龍) .....	372
이수봉(李秀鳳) .....	333	이양봉(李陽奉) .....	353	이완상(李完相) .....	373
이수봉(李秀鳳) .....	333	이양선(李良善) .....	354	이완섭(李完燮) .....	373
이수철(李秀喆) .....	334	이양순(李良順) .....	354	이완식(李完植) .....	374
이수한(李樹漢) .....	334	이양하(李陽夏) .....	355	이완웅(李完雄) .....	374
이수행(李受行) .....	335	이업동(李業同) .....	355	이왈수(李曰洙) .....	375
이수형(李守炯) .....	335	이업용(李業龍) .....	356	이왕진(李旺珍) .....	375
이수호(李守鎬) .....	336	이연구(李淵九) .....	356	이외조(李外祚) .....	376
이수환(李壽煥) .....	336	이연성(李淵成) .....	357	이외학(李外鶴) .....	376
이수환(李守煥) .....	337	이연준(李連俊) .....	357	이용갑(李龍甲) .....	377
이수희(李秀熙) .....	338	이연호(李演鎬) .....	358	이용걸(李龍杰) .....	377
이순희(李舜熙) .....	338	이염복(李廉福) .....	358	이용광(李龍光) .....	377
이순남(李順男) .....	339	이영곤(李永坤) .....	359	이용구(李龍九) .....	378
이순범(李順範) .....	339	이영두(李永斗) .....	359	이용국(李龍國) .....	379
이순식(李順植) .....	340	이영삼(李英三) .....	360	이용권(李容權) .....	379
이순용(李順龍) .....	341	이영섭(李永燮) .....	361	이용남(李龍南) .....	380
이순재(李順在) .....	341	이영수(李永洙) .....	361	이용문(李鏞文) .....	380
이순조(李順祚) .....	342	이영수(李永壽) .....	362	이용문(李龍文) .....	381
이순천(李順川) .....	342	이영수(李永洙) .....	362	이용문(李龍文) .....	381
이순해(李順海) .....	343	이영수(李穎洙) .....	363	이용배(李用培) .....	382
이승규(李承奎) .....	343	이영식(李營植) .....	363	이용수(李容洙) .....	382
이승근(李昇根) .....	344	이영식(李英植) .....	364	이용순(李用順) .....	383
이승기(李承琪) .....	345	이영우(李永佑) .....	364	이용식(李用植) .....	383
이승목(李承睦) .....	345	이영익(李榮益) .....	365	이용안(李容安) .....	384
이승선(李承善) .....	346	이영인(李永仁) .....	365	이용연(李容連) .....	384
이승열(李承烈) .....	346	이영주(李永周) .....	366	이용옥(李龍玉) .....	385
이승옥(李承玉) .....	347	이영주(李永周) .....	366	이용옥(李龍玉) .....	385
이승윤(李承崙) .....	347	이영주(李永柱) .....	367	이용우(李容祐) .....	386
이승주(李承周) .....	348	이영준(李永俊) .....	367	이용우(李用友) .....	386
이시구(李詩求) .....	348	이영진(李英鎭) .....	368	이용운(李龍雲) .....	387
이시봉(李時鳳) .....	349	이영찬(李英燦) .....	368	이용재(李容宰) .....	387
이시우(李時雨) .....	349	이영철(李永喆) .....	369	이용재(李龍載) .....	388
이시우(李時雨) .....	350	이영택(李英澤) .....	369	이용조(李龍祚) .....	388
이시형(李時亨) .....	350	이영표(李永杓) .....	370	이용주(李龍住) .....	389

이용준(李容俊) .....	389	이윤암(李允岩) .....	409	이인호(李仁鎬) .....	430
이용철(李容澈) .....	390	이윤재(李潤在) .....	410	이인희(李仁熙) .....	430
이용춘(李容春) .....	391	이윤호(李允浩) .....	410	이인희(李仁熙) .....	431
이용출(李用出) .....	391	이윤호(李尹浩) .....	411	이일근(李一根) .....	431
이용하(李龍夏) .....	392	이윤희(李允喜) .....	411	이일만(李一萬) .....	432
이용하(李龍河) .....	392	이은규(李殷奎) .....	412	이일성(李日性) .....	432
이용학(李龍學) .....	393	이은상(李殷相) .....	412	이일순(李一淳) .....	433
이용호(李容浩) .....	393	이은수(李殷壽) .....	413	이일재 .....	433
이용호(李瑑鎬) .....	394	이은영(李殷英) .....	413	이일호(李日鎬) .....	434
이용환(李容煥) .....	394	이은용(李殷龍) .....	413	이임성(李任成) .....	434
이용환(李龍煥) .....	395	이은우(李殷雨) .....	414	이임환(李任煥) .....	435
이용희(李龍熙) .....	395	이은택(李恩澤) .....	415	이자윤(李子允) .....	435
이우병(李雨炳) .....	396	이은학(李銀學) .....	415	이장범(李長範) .....	436
이우섭(李愚燮) .....	396	이응문(李應文) .....	416	이장복(李長福) .....	436
이우순(李右淳) .....	397	이의경(李儀慶) .....	417	이장수(李長水) .....	437
이우용(李雨龍) .....	397	이의봉(李義奉) .....	417	이장우(李長雨) .....	438
이우은(李愚銀) .....	398	이의순(李儀淳) .....	418	이재경(李載慶) .....	438
이우익(李愚益) .....	398	이의식(李義式) .....	418	이재구(李在球) .....	439
이우중술(李又鍾述) ...	399	이의연(李義淵) .....	419	이재국(李在國) .....	439
이우현(李禹鉉) .....	399	이의조(李義祚) .....	419	이재권(李宰權) .....	440
이운근(李雲根) .....	400	이익규(李益奎) .....	420	이재규(李在奎) .....	440
이운덕(李雲德) .....	400	이인갑(李仁甲) .....	420	이재규(李在奎) .....	441
이원갑(李元甲) .....	401	이인걸(李寅杰) .....	421	이재규(李在奎) .....	441
이원노(李元魯) .....	401	이인복(李仁馥) .....	421	이재균(李在均) .....	442
이원봉(李源鳳) .....	401	이인섭(李仁燮) .....	422	이재근(李在根) .....	443
이원상(李元相) .....	402	이인섭(李仁燮) .....	422	이재근(李在根) .....	443
이원석(李源錫) .....	403	이인섭(李仁燮) .....	423	이재덕 .....	444
이원식(李元植) .....	403	이인수(李仁洙) .....	424	이재명(李在明) .....	445
이원식(李元植) .....	404	이인숙(李仁淑) .....	424	이재문(李在文) .....	445
이원우(李元雨) .....	404	이인숙(李仁淑) .....	425	이재문(李在文) .....	446
이원재(李元宰) .....	405	이인승(李仁承) .....	425	이재석(李在石) .....	446
이원주(李元柱) .....	405	이인실(李寅實) .....	426	이재석(李在碩) .....	447
이원창(李元昌) .....	406	이인옥(李仁玉) .....	426	이재섭(李在燮) .....	448
이원하(李元夏) .....	406	이인우(李仁雨) .....	427	이재성(李在成) .....	448
이원효(李源孝) .....	407	이인재(李仁載) .....	427	이재성(李在星) .....	449
이유복(李有福) .....	407	이인종(李仁宗) .....	428	이재정(李在貞) .....	449
이유석(李裕石) .....	408	이인형(李仁炯) .....	428	이재수(李在秀) .....	450
이유춘(李裕春) .....	409	이인호(李仁鎬) .....	429	이재순(李載淳) .....	450

이재술(李在述) .....	451	이정석(李正石) .....	471	이종만(李鍾萬) .....	492
이재식(李在植) .....	451	이정세(李正世) .....	472	이종문(李鍾文) .....	493
이재식(李在植) .....	452	이정수(李正洙) .....	472	이종상(李鍾祥) .....	493
이재신(李載信) .....	452	이정수(李貞守) .....	473	이종성(李鍾聲) .....	494
이재억(李在億) .....	453	이정순(李貞順) .....	473	이종소(李鍾燒) .....	494
이재연(李在淵) .....	453	이정식(李井植) .....	474	이종수(李鍾守) .....	495
이재옥(李在玉) .....	454	이정식(李廷植) .....	474	이종수(李鍾洙) .....	495
이재용(李在龍) .....	454	이정안(李呈安) .....	475	이종수(李鍾洙) .....	496
이재용(李載龍) .....	455	이정우(李正雨) .....	475	이종수(李鍾洙) .....	496
이재원(李載源) .....	455	이정의(李正議) .....	476	이종식(李鍾植) .....	497
이재원(李載源) .....	455	이정주(李正柱) .....	476	이종암(李鍾岩) .....	498
이재은(李在殷) .....	456	이정준(李廷俊) .....	477	이종연(李鍾然) .....	498
이재익(李在益) .....	457	이정진(李正鎭) .....	477	이종열(李鍾烈) .....	499
이재준(李在俊) .....	457	이정혁(李正赫) .....	478	이종열(李鍾烈) .....	499
이재준(李在俊) .....	458	이정호(李廷鎬) .....	478	이종열(李鍾烈) .....	500
이재철(李在哲) .....	458	이정홍(李正洪) .....	479	이종열(李鍾烈) .....	500
이재철(李載喆) .....	459	이정희(李廷熙) .....	479	이종열(李鍾烈) .....	501
이재춘(李在春) .....	459	이정희(李正熙) .....	480	이종열(李鍾烈) .....	501
이재필(李在必) .....	460	이제민(李濟民) .....	481	이종열(李鍾烈) .....	502
이재하(李在河) .....	461	이제하(李濟夏) .....	481	이종열(李鍾烈) .....	502
이재혁(李在赫) .....	461	이조진(李組珍) .....	482	이종오(李鍾五) .....	503
이재호(李再浩) .....	462	이종각(李鍾珏) .....	483	이종옥(李鍾玉) .....	503
이재홍(李在洪) .....	462	이종갑(李鍾甲) .....	483	이종완(李鍾完) .....	504
이재홍(李在洪) .....	463	이종경(李鍾敬) .....	484	이종용(李鍾龍) .....	504
이재화(李載化) .....	464	이종관(李鍾寬) .....	484	이종용(李鍾龍) .....	505
이재환(李在煥) .....	464	이종국(李鍾國) .....	485	이종우(李鍾宇) .....	505
이재희(李在喜) .....	465	이종근(李鍾根) .....	486	이종원(李宗元) .....	506
이전상(李典相) .....	465	이종기(李鍾基) .....	486	이종원(李鍾元) .....	506
이점수(李点洙) .....	466	이종길(李鍾吉) .....	487	이종원(李鍾元) .....	507
이점호(李點鎬) .....	466	이종달(李鍾達) .....	487	이종원(李鍾元) .....	508
이정갑(李正甲) .....	467	이종대(李鍾大) .....	488	이종윤(李鍾潤) .....	508
이정곤(李正坤) .....	467	이종덕(李鍾德) .....	488	이종윤(李宗潤) .....	509
이정규(李廷圭) .....	468	이종록(李鍾錄) .....	489	이종윤(李鍾潤) .....	510
이정근(李廷根) .....	468	이종률(李鍾律) .....	489	이종이(李鍾伊) .....	510
이정근(李正根) .....	469	이종린(李鍾麟) .....	490	이종인(李鍾仁) .....	511
이정동(李貞同) .....	469	이종만(李鍾萬) .....	491	이종인(李鍾仁) .....	511
이정량(李正亮) .....	470	이종만(李鍾根) .....	491	이종진(李宗珍) .....	512
이정부(李正夫) .....	471	이종만(李鍾萬) .....	492	이종철(李宗喆) .....	512

이중철(李鍾徹) …… 513	이진근(李振根) …… 533	이채호(李採昊) …… 554
이중탁(李鍾卓) …… 513	이진근(李鎭根) …… 533	이천수(李千守) …… 555
이중태(李鍾泰) …… 514	이진만(李鎭萬) …… 534	이천수(李千洙) …… 555
이중태(李鍾泰) …… 515	이진우(李珍雨) …… 534	이천식(李千植) …… 556
이중태(李鍾泰) …… 515	이진의(李珍義) …… 535	이천우(李千雨) …… 556
이중택(李鍾澤) …… 516	이진철(李振喆) …… 535	이천우(李千雨) …… 557
이중학(李鍾學) …… 516	이진호(李振浩) …… 536	이천우(李天雨) …… 557
이중학(李鍾學) …… 517	이차갑(李次甲) …… 536	이천일(李千一) …… 558
이중학(李鍾鶴) …… 517	이차용(李次龍) …… 537	이철근(李鐵根) …… 558
이중환(李鍾漢) …… 518	이차포(李且浦) …… 537	이철금(李喆金) …… 559
이중형(李宗炯) …… 519	이찬영(李燦永) …… 538	이철수(李哲洙) …… 559
이중화(李鍾化) …… 519	이찬옥(李燦玉) …… 539	이철수(李喆洙) …… 560
이중환(李鍾煥) …… 519	이찬우(李燦雨) …… 539	이철수(李鐵洙) …… 560
이중환(李鍾煥) …… 520	이찬현(李贊鉉) …… 540	이철영(李哲榮) …… 561
이중희(李鍾熙) …… 521	이창귀(李昌貴) …… 540	이철우(李鐵雨) …… 561
이주현(李柱鉉) …… 521	이창림(李昌林) …… 541	이철천(李鐵千) …… 562
이주문(李珠文) …… 522	이창명(李昌明) …… 542	이철포(李哲浦) …… 562
이주봉(李周琇) …… 522	이창배(李昌培) …… 542	이철행(李哲行) …… 563
이주영(李周永) …… 522	이창복(李昌福) …… 543	이철호(李哲浩) …… 563
이주학(李柱鶴) …… 523	이창섭(李昌燮) …… 543	이철환(李哲煥) …… 563
이주현(李周鉉) …… 523	이창수(李昌壽) …… 544	이청용(李靑龍) …… 564
이주현(李周鉉) …… 524	이창수(李昌洙) …… 545	이춘기(李春基) …… 565
이주호(李周浩) …… 524	이창수(李昌洙) …… 545	이춘기(李春基) …… 565
이주화(李柱華) …… 525	이창수(李昌洙) …… 546	이춘모(李春模) …… 566
이준노(李俊魯) …… 525	이창식(李昌植) …… 546	이춘실(李春實) …… 566
이준문(李俊文) …… 526	이창식(李昌植) …… 547	이춘오(李春吾) …… 567
이중경(李重京) …… 527	이창열(李昌烈) …… 547	이춘우(李春雨) …… 567
이중래(李仲來) …… 527	이창용(李昌龍) …… 548	이춘홍(李春弘) …… 568
이중선(李仲善) …… 528	이창우(李昌雨) …… 549	이충석(李忠錫) …… 569
이중식(李中植) …… 528	이창우(李昌雨) …… 549	이충섭(李忠燮) …… 570
이중현(李仲鉉) …… 529	이창욱(李昌郁) …… 550	이충석(李忠錫) …… 570
이중호(李重浩) …… 529	이창운(李昌雲) …… 550	이충섭(李忠燮) …… 571
이지하(李至夏) …… 530	이창현(李昌鉉) …… 551	이충섭(李忠燮) …… 571
이지홍(李池洪) …… 530	이창호(李昌浩) …… 551	이충암(李層岩) …… 572
이지환(李智煥) …… 531	이창호(李昌浩) …… 552	이치중(李致鍾) …… 572
이지훈(李址勳) …… 531	이창호(李昌鎬) …… 552	이칠규(李七奎) …… 573
이진규(李鎭珪) …… 532	이창화(李昌華) …… 553	
이진규(李鎭珪) …… 532	이채용(李采鎔) …… 553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 創軍期 —

유재익 ~ 이철규



## 유 재 익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0339436

유재익 하사는 서울시 종로구(鐘路區) 청운동(淸雲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에 위치했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조선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의 기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었으며, 1948년 6월 27일 주한 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및 야포가 한국군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병기조작술과 조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련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강원도지역으로 인민유격대를 계속 남파시키고, 38도선 일대의 웅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지구에서는 불법총격과 침공을 빈번히 자행하였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는 좌익분자 및 공비들의 갖은 만행과 폭동 및 반란사건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별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軍警)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유재익 하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재 조 (俞 載 兆) 육군 일등중사 군번 6600296

유재조 일등중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6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가 해체되어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재창설되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830여명과 8월 14일 350여명 등 2차에 걸쳐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1개 대대 규모가 출동하여 반란진압

작전을 실시한 후 함양,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2연대로 개편된 이후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의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유재조 이등중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재 조 (俞 載 兆) 육군 이등중사 군번 6800350

유재조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6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친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가 해체되어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재창설되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830여명과 8월 14일 350여명 등 2차에 걸쳐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1개 대대 규모가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함양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2연대로 개편된 이후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의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유재조 이등중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敘)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재 칠 (劉 在 七)      경찰 경사

유재칠 경사는 1925년 2월 12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월등면(月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곡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작전으로 9일만에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유재칠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2월 12일 화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敘)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재 환 (劉 在 煥)      경찰 경사

유재환 경사는 1909년 6월 16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월등면(月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20:00시에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

켰다. 반란군은 장교들과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하고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한 후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유재환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여수시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정 남 (劉 正 男)    경찰 경사

유정남 경사는 1920년 9월 1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읍(康津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강진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작전으로 9일만에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유정남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7월 19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정 목 (兪 正 穆)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4227

유정목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대소면(大所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6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친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가 해체되어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재창설되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830여명과 8월 14일 350여명 등 2차에 걸쳐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1개 대대 규모가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함양,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2연대로 개편된 이후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유정석 이등중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정 석 (兪 正 錫) 육군 일등병 군번 3230609

유정석 일등병은 충청남도 천원군(天原郡) 목천면(木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1일 연대주둔지를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동한 후 4월 24일까지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북한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한 후 온양으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지역향토방

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정석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종 만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5435

유종만 이등중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계속해서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종만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사령부가 웅진지구전투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종 운 (兪 種 雲)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유종운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수료한 남한 출신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치열한 전투끝에 대부분의 적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 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북한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유종운 일등병은 북한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창 섭 (劉 昌 燮) 육군 이등병 군번 1806345

유창섭 이등병은 1926년 2월 6일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수료한 남한 출신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 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북한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창섭 이등병은 북한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0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창 섭 (劉 昌 燮) 육군 일등병 군번 1806354

유창섭 일등병은 1931년 7월 7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흑석동(黑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수료한 남한 출신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 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북한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유창섭 일등병은 북한 인민유격대 잔여병력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戰死)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철 수 (兪 哲 洙) 육군 이등병 군번 1805148

유철수 이등병은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

전에 참가시켰다.

유철수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치 권 (劉 致 權) 육군 일등병 군번 0333386**

유치권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관촌면(館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호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유치권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태 문 (劉 泰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108711**

유태문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진보면(眞寶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태백산맥 및 오대산지역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경비대가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자, 때맞춰 북한에서는 인민유격대를 남파시키기 시작하고, 지방공비와 좌익분자들의 세력을 확대시켜 각종만행을 자행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므로, 우리국군은 공비토벌작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8사단은 1950년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현북면과 하장면지역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여 모두 섬멸하는 동시에 그들이 소지한 장비일체를 노획하는 전과(戰果)를 올렸다.

유태문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태 영 (兪 泰 永)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1231

유태영 이등상사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낭산면(朗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제3연대 제2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제2여단에 예속되었고 동년 10월 1일 편성이 완료되었다.

1949년 1월 29일 주둔지를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제12연대는 제2대대를 용진지구로 이동시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용진지구에서 제2대대와 경찰기동대 3개 중대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국사봉 일대를 공격 점령하였다.

그후 제12연대는 육군본부에서 설치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옹진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탈취당했던 아군 진지를 완전 확보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유태영 이등상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관 암 (劉 判 岩) 육군 일등병 군번 0330401

유관암 일등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고산면(高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 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유관암 일등병은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헌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7-1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팔 원 (劉 八 元) 육군 일등중사 군번 1900512

유팔원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유림면(柳林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이래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들을 완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49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유팔원 일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1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팽 식 (兪 彭 植) 경찰 경위

유팽식 경위는 1911년 7월 25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임고면(臨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유팽식 경위는 영천군 임고면(臨臯面)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6년 10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평 종 (劉 坪 鍾)    경찰 경사

유평종 경사는 1929년 2월 22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강진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지원 병력을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지역내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계속 실시하였다.

유평종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평 종 (劉 坪 鍾)    경찰 경사

유평종 경사는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유평종 경사는 순천경찰서를 습격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4월 22일 순천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현 기 (兪 鉉 基)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0920

유현기 일등중사는 1929년 5월 7일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개칭되었다.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제20연대 1개 대대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공비들의 보급 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공비소탕에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유현기 일등중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서(西) 6-346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협 종 (劉 協 鍾) 육군 일등중사 군번 2604874

유협종 일등중사는 1924년 1월 13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사리면(沙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과 보현산 일대의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예천,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시켰다.



유협중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형 준 (俞 衡 濬)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1370

유형준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배방면(排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복귀한 후 경기도 용진반도로 이동, 동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유형준 이등상사는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유 홍 식 (俞 洪 植) 육군 일등병 군번 1505153

유홍식 일등병은 1930년 3월 30일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이 지역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후 향토방위작전 및 잔여공비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

유홍식 일등병은 영남지구항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갑 수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322825

윤갑수 일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조리면(條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1개 중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이래, 6월 15일 온양으로 이동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고, 38도선서부지역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후 제1대대를 임진강 일대에 배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38도선상에서 북한군의 불법적인 도발이 계속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949년 5월 5일 제1대대를 고랑포지역에 배치 38도선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2대대가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연대는 1949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주둔지를 이동함과 동시에 38도선 경비작전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윤갑수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5-1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갑 헌 (尹 甲 憲) 경찰 경위

윤갑헌 경위는 1921년 12월 2일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군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자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갑헌 경위는 군위경찰서 관내 군위군(軍威郡) 고로면(古老面)지역에 출현한 공비 약 30명과 교전 중 1949년 7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安葬)하였으며, 안장번호는 4-112번이다.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경 현 (尹 京 峴) 경찰 경위

윤경현 경위는 1926년 2월 6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영광면(靈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곡성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경현 경위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8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

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계 출 (尹 季 出)    육군 일등병    군번 0401020**

윤계출 일등병은 1925년 5월 23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봉산면(鳳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윤계출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1-0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광 호 (尹 光 浩)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50**

윤광호 이등병은 1924년 9월 26일 서울시 마포구(麻浦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虎林部隊)는 1949년 2월 25일 북한에서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5월 3일부터 수색학교에서 유

격전교육을 받고 시흥으로 이동하여 호국군(護國軍)에 편입되었다.

그후 8월 13일 호림부대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고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 및 영덕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윤광호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교 성 (尹 教 成) 육군 일등병 군번 1101757**

윤교성 일등병은 1929년 6월 21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강상면(江上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교성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규 식 (尹 圭 植)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0186**

윤규식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광천읍(廣川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제4연대의 1개 대대가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제4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개칭되었다.

윤규식 일등중사는 공비화된 반란군잔당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금 덕 (尹 錫 德)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2915

윤금덕 이등상사는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윤금덕 이등상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7일 남원(南原)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敘)하

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금 석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0339332

윤금석 하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상남면(上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여단으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군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어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윤금석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기 홍 (尹 基 弘) 육군 특무상사 군번 1300417

윤기홍 특무상사는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마서면(馬西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

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윤기홍 특무상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동(東) 28-37251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길흠 (尹吉欽) 육군 하사 군번 0745038

윤길흠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윤길흠 하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덕 현 (尹 德 鉉) 육군 하사 군번 0745038

윤덕현 하사는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대구면(大口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윤덕현 하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도 영 (尹 道 英)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97617

윤도영 이등중사는 1929년 12월 15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외서면(外西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부대확장 및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도영 이등중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남로당 좌익세력들의 기습공격을 받아 1948년 7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도 형 (尹 道 滢)    경찰 경위

윤도형 경위는 1926년 9월 11일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부동면(府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양경찰서는 치안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윤도형 경위는 영양군(英陽郡) 청기면(靑己面)에서 공비 2개 분대와 교전 중 공비 3명을 사살하고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敘)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돈 귀 (尹 惇 貴)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8140

윤돈귀 일등중사는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내촌면(內村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돈귀 일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동 명 (尹 東 明) 육군 대위 군번 11369

윤동명 대위는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원효로(元曉路)에서 태어나 1948년 7월 28일 육군사관학교 제6기로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되어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동명 대위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남로당 좌익세력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1948년 10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叙)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1-15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동 수 (尹 東 洙) 경찰 경사

윤동수 경사는 1928년 8월 5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담양면(潭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담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작전으로 9일만에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동수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동 철 (尹 東 哲)    해군 대위 군번 80218

윤동철 대위는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사천읍(泗川邑)에서 태어나 1947년 6월 1일 해군사관학교 제1기로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되어 해안 경비대 508정에서 복무하였다.

8·15광복과 더불어 해양에 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1945년 8월 21일 해사대(海事隊)를 조직하여 9월 30일 해사보국단(海事報國團)과 통합하여 해사협회(海事協會)로 개칭 후 11월 11일 해방병단(海防兵團)의 결단식을 거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母體)가 되었다.

1946년 6월 15일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개칭되고 해안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1947년 8월 30일 38도선 이남의 해안경비임무를 인수하여 본격적인 해상방위와 아울러 주요지역에 해상방위부대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폭동사건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병력, 장비, 식량 등을 수송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해상경비와 폭도들의 해상탈출방지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정식 발족하였으며 1948년 11월 30일 국방부 산하에 해군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해군은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에도 참가하여 함포사격등으로 다대(多大)한 전과(戰果)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해안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동철 대위는 포항해상에서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두 순 (尹 斗 淳) 육군 일등병 군번 6201096

윤두순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6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가 해체되어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재창설되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830여명과 8월 14일 350여명 등 2차에 걸쳐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1개 대대 규모가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함양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2연대로 개편된 이후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의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두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만 중 (尹 万 重) 육군 일등병 군번 0325491

윤만중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전시 대흥동(大興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1월 20일부터는 1개 대대가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그후 제10연대는 강릉에 계속 주둔하면서 태백산맥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 1949년 2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남로당계 공비들의 북상경로를 차단하며 토벌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완전 섬멸하는 대전과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만중 일등병은 태백산맥 일대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6-2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명 섭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5302222

윤명섭 일등병은 1928년 3월 15일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서빙고동(西氷庫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4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명섭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6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8-1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백 (尹 栢) 육군 하사 군번 1805925

윤백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수료한 남한 출신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 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북한인민유격대 잔당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윤백 하사는 북한인민유격대잔당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곤 (尹 炳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400370

윤병곤 일등병은 1931년 3월 29일 경상남도 창원시(昌原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윤병곤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남 (尹 炳 南) 육군 일등병 군번 5306097

윤병남 일등병은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을 중심으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5사단 제15연대(순천 주둔)와 제19연대(남원 주둔)는 1950년 4월 28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윤병남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6-0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준 (尹 炳 俊) 육군 이등상사 군번 5302751

윤병준 이등상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개칭되었다.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는 제20연대 1개 대대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공비들의 보



급 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비소탕에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윤병준 이등상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敘)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현 (尹 炳 鉉)      경찰    경감**

윤병현 경감은 1907년 1월 17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 하였다.

윤병현 경감은 해남군(海南郡)에서 공비 약 수십명과 교전 중 1947년 1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감으로 추서(追敘)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화 (尹 炳 和)      육군    일등병    군번 0328075**

윤병화 일등병은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공산면(公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을 중심으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5사단 제15연대(순천 주둔)와 제19연대(남원 주둔)는 1950년 4월 28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사단은 전라남도 광주주둔지로 복귀하여 부대훈련 및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병화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7-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병 훈 (尹 炳 勳)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39**

윤병훈 일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원주를 걸쳐 5월에 춘천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에 침입하자 제7연대 제1대대와 경찰 1개 중대를 투입, 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제8연대 병력을 증원받아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윤병훈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1-0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복석 (尹福石) 육군 일등병 군번 0336196

윤복석 일등병은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설악면(雪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에 위치했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6월 27일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및 야포가 한국군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병기조작술과 조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련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인민유격대를 계속 남파시키고, 38도선 일대의 용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지구에서는 불법총격과 침공을 빈번히 자행하였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는 좌익분자 및 공비들의 갖은 만행과 반란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별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軍警)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윤복석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봉근 (尹鳳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45841

윤봉근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대송면(大松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봉근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봉 문 (尹 鳳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401091

윤봉문 일등병은 1926년 4월 17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윤봉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봉 한 (尹 捧 漢)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5220

윤봉한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

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복귀한 후 경기도 용진반도로 이동, 동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봉한 일등중사는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사 백 (尹 四 白)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40**

윤사백 일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원주를 걸쳐 5월에 춘천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에 침입하자 제7연대 제1대대와 경찰 1개 중대를 투입, 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제8연대 병력을 증원받아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윤사백 일등병은 춘천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같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1-07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삼 돌 (尹 三 堧)    육군 일등병    군번 0325786**

윤삼돌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천동(新川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

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윤삼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상 록 (尹 相 錄)      경찰    경감

윤상록 경감은 1921년 3월 20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겸백면(兼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 하였다.

윤상록 경감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서(西) 27-218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상 우 (尹 相 禹) 육군 이등중사 군번 2701973

윤상우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대송면(大松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8월 11일 1개 대대가 경상남도 창원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3월 2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한편, 연대예하의 2개 대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북한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상우 이등중사는 이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5-0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상 조 (尹 相 助) 육군 이등중사 군번 3100431

윤상조 이등중사는 1930년 9월 19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남산동(南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계속해서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상조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

세에 고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상 조 (尹 相 祚)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1992**

윤상조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시 감천동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를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3일 1개 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제3대대를 1949년 3월 1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덕유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상조 이등중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 후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추서(追敍)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12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상 철 (尹 相 喆)    육군 일등병    군번 2903504**

윤상철 일등병은 경기도 용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



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용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용진지구 전투에서 치열한 격전(激戰)을 벌인 끝에 적을 저지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일대의 아군진지를 완전히 탈환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제2차 용진지구 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후 제18연대는 계속적인 북한군의 불법침입을 격퇴하면서 1950년 1월 20일까지 용진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상철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0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서 풍 (尹 西 豊)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6393

윤서풍 이등중사는 1928년 12월 30일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성당면(聖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북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임무를 수행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 반란진압작전,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서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윤서풍 이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석 기 (尹 錫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46038

윤석기 일등병은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하장면(下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태백산 및 오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8사단은 1950년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현북면과 하장면 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모두 섬멸하는 동시에 그들이 소지한 장비일체를 노획하는 전과(戰果)를 올렸다.

1950년 3월 1일경 경상북도지구에서 활동하던 북한인민유격대 제1군단은 백암산 785고지에서 부대를 개편, 주력을 제58부대라 호칭하고 이호제로 하여금 지휘케하여 영덕군 창수면 방향으로 남하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제43부대라 부르게 된 인민유격대 제1군단의 일부병력 60여명은 김달삼의 지휘하에 월북을 위하여 북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제8사단은 북상 공비들을 격멸하기 위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이후 계속해서 38도선동부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석기 일등병은 태백산맥 및 오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9-3-0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석 원 (尹 石 原) 육군 일등병 군번 2903833

윤석원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용현동(龍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복귀한 후 경기도 옹진반도로 이동, 동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14일 05:00를 기해 북한군이 은파산으로 집중 공격해오자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는 적을 격퇴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그후 제2연대는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여 수도권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석원 일등병은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석 주 (尹 錫 柱) 경찰 경사

윤석주 경사는 1923년 10월 29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도양읍(道陽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고흥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지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계속 실시하였다.

윤석주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득 (尹 盛 得)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2498

윤성득 이등상사는 1930년 4월 6일 충청북도 충주읍(忠州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군 사천면에서 창설되어 교육 훈련과 향토방위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1개 대대가 1948년 11월 2일 발생한 대구반란사건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윤성득 이등상사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7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연 (尹 聖 淵) 육군 하사 군번 0109127

윤성연 하사는 1932년 8월 30일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부동면(府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1월 20일부터는 1개 대대가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그후 제10연대는 강릉에 계속 주둔하면서 태백산맥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 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 1949년 2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남로당계 공비들의 북상경로를 차단하며 토벌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완전 섬멸하는 대전과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공비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성연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용 (尹 成 龍) 육군 일등병 군번 7901239

윤성용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태백산 및 오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경비대가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자, 때맞춰 북한에서는 인민유격대를 남파시키기 시작하고 지방공비와 좌익분자들의 세력을 확대시켜 각종만행을 자행하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므로, 우리 국군은 공비토벌작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8사단은 1950년 1월 11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현북면과 하장면 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모두 섬멸하는 동시에 그들이 소지한 장비일체를 노획하는 전과(戰果)를 올렸다.

1950년 3월 1일경 경상북도지구에서 활동하던 북한 인민유격대 제1군단은 백암산 785고지에서 부대를 개편, 주력을 제58부대라 호칭하고 이호제로 하여금 지휘케 하여 영덕군 창수면 방향으로 남하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제43부대라 부르게 된 인민유격대 제1군단의 일부병력 60여명은 김달삼의 지휘하에 월북을 위하여 북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제8사단은 북상 공비들을 격멸하기 위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이후 계속해서 38도선동부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성용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태백산맥 및 오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윤 (尹 聖 潤) 육군 이등병 군번 0109127

윤성윤 이등병은 1932년 8월 30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석적면(石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1월 20일부터는 1개 대대가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그후 제10연대는 강릉에 계속 주둔하면서 태백산맥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 1949년 2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남로당계 공비들의 북상경로를 차단하며 토벌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완전 섬멸하는 대전과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윤성윤 이등병은 태백산맥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중 (尹 成 重)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1919

윤성중 일등중사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복귀한 후 경기도 용진반도로 이동, 동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성중 일등중사는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8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성 현 (尹 聖 鉉) 육군 일등상사 군번 1601637

윤성현 일등상사는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영순면(永順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성현 일등상사는 경상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7년 8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7-1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소 용 (尹 小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63241

윤소용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寧郡) 창녕읍(昌寧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1949년 5월초부터 38도선상 전면에 걸쳐 수시로 불법침공하여 아군의 경비상황과 부대배치를 탐지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악산 전투에서 육탄 10용사의 용전에 힘입어 치열한 교전끝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동년 7월 25일부터 전개된 개성지구전투에서도 북한군을 격퇴시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소용 일등병은 이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순 관 (尹 淳 寬) 육군 일등병 군번 1108140

윤순관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내촌면(內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순관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6-1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순 백 (尹 順 伯) 경찰 경사

윤순백 경사는 1924년 10월 22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상사면(上沙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순천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지역내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실시하였다.

윤순백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3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순 철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169482

윤순철 일등병은 1927년 1월 5일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광천읍(廣川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8월 11일 1개 대대가 경상남도 창원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3월 2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한편, 연대의 2개 대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북한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순철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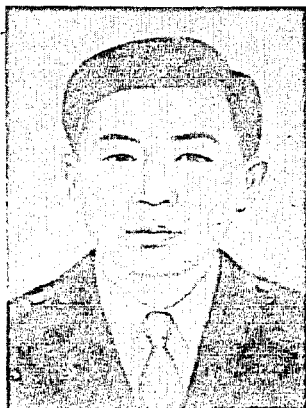
## 윤 승 용 (尹 承 龍) 육군 하사 군번 9302674

윤승용 하사는 1930년 1월 7일 부산시 동래(東萊)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친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계속해서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승용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윤 승 원 (尹 承 遠) 육군 일등상사 군번 0343953



윤승원 일등상사는 경기도 수원시(水原市) 매교동(梅校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8년 11월 수원(水原)에서 문산(汶山)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靑丹)으로부터 고랑포(高浪浦)

에 이르는 38도선경비구역을 인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제2대대를 38도선 전면(前面)인 청단, 연안, 배천, 송악산일대에 분산배치하여 진지구축과 경비에 임하게 하고, 제1대대는 연대후방에서 신병교육을 전담토록하였으며, 제3대대는 인접 제15연대로 파견하였고, 하사관교육대 1개 중대가 연대직할로 교육 훈련중에 있었다.

제2대대가 38도선전면의 불리한 지형과 적의 강력한 방해를 무릅쓰고 점차 경비임무를 강화하자, 1949년 4월 25일 남천점(南川店)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제1사단은 이를 저지하고 계속적인 우위를 목적으로 제3연대 병력 약 1천명을 송악산 후방 냉정리(冷井里)에 집결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5월 3일 미명을 기해 송악산능선을 따라 일제히 기습남침을 감행, 38선남방 100m지점의 292고지를 순식간에 유린하고 연이어 아군의 UN고지, 155고지, 비둘기고지를 점령하였다.

급보에 접한 연대장(崔慶祿 대령)은 사단장(金錫源 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훈련중인 제1대대 예하 이승준(李承俊)대위의 제3중대, 채명신(蔡命新)대위의 4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시켜 5월 4일 미명을 기해 UN고지를 정면 공격하도록 하고, 마침 행군훈련중이던 김영직(金泳稷)대위의 하사관교육대는 즉각 후방에서 비둘기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지역은 노출된 급경사지역으로 10개소의 유개(有蓋) 토치카에서 중화기가 불을 뿜고 있어, 공격부대는 7부 능선에서 더이상 진출하

지 못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서부덕 소위(당시계급 일등상사)를 특공대장으로 하는 윤승원 일등상사(당시계급 하사) 외 8명의 육탄10용사를 선발 81mm 박격포탄에 폭약을 장치하여 만든 폭탄을 휴대시킨 뒤 12:00를 기해 목표지점을 향해 출발시켰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57mm 대전차포를 노재현(盧載鉉) 대위가 지휘하여 특공대의 전진을 엄호하였다. 특공대는 적의 집중되는 기관총 사격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포복으로 전진하여 각자 맡은 적의 기관총진지에 신속히 돌입하여 육탄공격을 감행 자폭함으로써 적의 토치카를 폭파하였다.

윤승원 일등상사는 육탄10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1949년 5월 4일 송악산 비둘기고지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였으며, 그의 장렬한 희생으로 비둘기고지 및 UN고지를 탈환하여 개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2년 10월 15일 을지 무공훈장을 추서(追叙)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서(西) 5-33942번으로 안장하였으며,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군 통일공원내에 육탄10용사 충용탑과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식 (尹 植) 경찰 경사

윤식 경사는 1926년 8월 20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읍(和順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화순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식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길 (尹 永 吉) 육군 일등병 군번 0346670

윤영길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산호동(山湖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되어 동년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1948년 9월 12일 주둔지를 충주에서 청주로 이동한후 1개 연대는 청주에서 향토방위 임무수행과 2개 연대는 강원도 춘천 및 강릉지구에 각각 배치하여 38도선동부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동년 11월에는 1개 연대가 대구 제6연대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강원도 오대산 및 태백산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주력을 완전 섬멸하는 전공(戰功)을 세웠다.

제6사단은 1949년 2월 22일 충청북도 청주(淸州)에서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자운리 북방 신남지역에 소양강을 도하하여 남침해온 북한군 1개 대대 규모를 포착 격전(激戰)을 벌인 끝에 적을 격퇴하고 아군 지역을 탈환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으며,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흥천지구 흥정산 일대로 남침해온 북한군 5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완전소탕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윤영길 일등병은 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9-5-1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도 (尹 永 道) 육군 일등병 군번 1605880

윤영도 일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鐘路區) 이화동(梨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북한군은 1949년 5월 초부터 38도선상 전면에 걸쳐 수시로 불법침공하여 아군의 경비상황과 부대배치를 탐지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 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악산전투에서 육탄 10용사의 용전에 힘입어 치열한 교전끝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동년 7월 25일부터 전개된 개성지구전투에서도 북한군을 격퇴시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영도 일등병은 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식 (尹 永 植) 육군 이등병 군번 6800591

윤영식 이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제6연대로 창설되었으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자 연대가 해체되고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재창설되었다.

제6연대는 1948년 7월 10일 830여명과 8월 14일 350여명 등 2차에 걸쳐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1개 대대 규모가 출동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함양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2연대로 개편된 이후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북도 태백산지구의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의 경상북도 일대에서 잔여 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영식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일 전사(戰死)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조 (尹 英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161730**

윤영조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시 감천동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를 제주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3일 1개 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제3대대를 1949년 3월 1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덕유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영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중 (尹 永 重) 육군 일등병 군번 5102079**

윤영중 일등병은 충청남도 공주읍(公州邑) 계룡면(鷄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1월 23일 충청남도 대전으로 이동한 후 동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 대대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동년 6월 20일 연대주둔지를 대전에서 서울시 서빙고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1월 3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연대주둔지를 이동,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농촌재건사업 및 민심수습, 원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윤영중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학 (尹 英 學) 육군 일등병 군번 9918343**

윤영학 일등병은 1933년 2월 27일 서울시 성북(城北)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1월 30일까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사이에는 덕유산, 쾌관산, 산내면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희,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윤영학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를 추격하다가 적탄을 맞아 제27육군병원에 후송되어 가료를 받다가 1950년 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영 호 (尹 永 鎬) 육군 일등병 군번 2903626

윤영호 일등병은 경기도 용진군(襄津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赫赫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복귀한 후 경기도 용진반도로 이동, 동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0월 14일 05:00를 기해 북한군이 은파산으로 집중 공격해오자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는 적을 격퇴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그후 제2연대는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여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영호 일등병은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같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0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옥 태 (尹 玉 泰) 육군 일등상사 군번 2902119

윤옥태 일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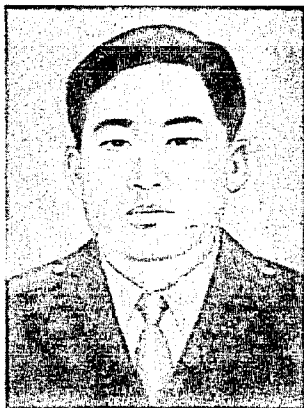


북한군은 1949년 5월초부터 38도선상 전면에 걸쳐 수시로 불법침공하여 아군의 경비상황과 부대배치를 탐지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 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악산전투에서 육탄 10용사의 용전에 힘입어 치열한 교전끝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동년 7월 25일부터 전개된 개성지구전투에서도 북한군을 격퇴시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옥태 일등상사는 이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옥 춘 (한자미상)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2119



윤옥춘 일등상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문화동(文化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8년 11월 수원(水原)에서 문산(汶山)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靑丹)으로부터 고랑포(高浪浦)에 이르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구역을 인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제2대대를 38도선 전면(前面)인 청단, 연안, 배천, 송악산 일대에 분산배치하여 진지구축과 경비에 임하게 하고, 제1대대는 연대후방에서 신병교육을 전담토록하였으며, 제3대대는 인접 제15연대로 파견하였고, 하사관교육대 1개 중대가 연대직할로 교육 훈련중에 있었다.

제11연대 제2대대가 38도선전면의 불리한 지형과 적의 강력한 방해를

무릅쓰고 점차 경비임무를 강화하자, 1949년 4월 25일 남천점(南川店)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제1사단은 이를 저지하고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3연대 병력 약 1천명을 송악산 후방 냉정리(冷井里)에 집결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5월 3일 미명을 기해 송악산능선을 따라 일제히 기습남침을 감행, 38선남방 100m지점의 292고지를 순식간에 유린하고 연이어 아군의 UN고지, 155고지, 비둘기고지를 점령하였다.

급보에 접한 연대장(崔慶祿 대령)은 사단장(金錫源 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훈련중인 제1대대 예하 이승준(李承俊) 대위의 제3중대, 채명신(蔡命新) 대위의 4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시켜 5월 4일 미명을 기해 UN고지를 정면 공격하도록 하고, 마침 행군훈련중이던 김영직(金泳稷) 대위의 하사관교육대는 즉각 후방에서 비둘기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공격지역은 노출된 급경사지역으로 10개소의 유개(有蓋) 토치카에서 중화기가 불을 뿜고 있어, 공격부대는 7부 능선에서 더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서부덕 소위(당시계급 일등상사)를 특공대장으로 하는 윤옥춘 일등상사(당시계급 하사)와 8명의 육탄10용사를 선발 81mm 박격포탄에 폭약을 장치하여 만든 폭탄을 휴대시킨 뒤 12:00를 기해 목표지점으로 향해 출발시켰다.

동시에 후방에서는 57mm 대전차포를 노재현(盧載鉉) 대위가 지휘하여 특공대의 전진을 엄호하였다. 특공대는 적의 집중되는 기관총 사격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포복으로 전진하여 각자 맡은 적의 기관총진지에 신속히 돌입하여 육탄공격을 감행 자폭함으로써 적의 토치카를 폭파하였다.

윤옥춘 일등상사는 육탄10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1949년 5월 4일 송악산 비둘기고지에서 적의 견고한 진지를 육탄으로 폭파시켜 비둘기고지 및 UN고지를 탈환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개성지역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2년 10월 15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追叙)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

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서(西) 5-33944번으로 안장하였으며, 또한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군 통일공원내에 육탄10용사 충용탑과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완 식 (尹 完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29239**

윤완식 이등중사는 1927년 2월 25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내서면(內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1월 20일부터는 1개 대대가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그후 제10연대는 강릉에 계속 주둔하면서 태백산맥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 1949년 2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남로당계 공비들의 북상경로를 차단하며 토벌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완전 섬멸하는 대전과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공비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완식 이등중사는 제10연대가 태백산맥 일대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용 범 (尹 龍 範) 육군 이등병 군번 1201139**

윤용범 이등병은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영월읍(寧越邑) 거운리(巨雲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이래 제주도지구공비토벌작전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49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윤용범 이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용 성 (尹 龍 成) 육군 일등병 군번 0132215

윤용성 일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신길동(新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시 신월동에서 1개 대대병력을 기간으로 창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으로 좌익세력과 충돌이 많았으며, 연대는 모병(募兵)을 통한 병력보충 및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작전에 주력하였다.

이후 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군 소탕을 위하여 11월 25일 전라남도 여수로 이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입산(入山) 도주하여 공비화된 반란군잔당소탕작전에 참가해 그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반란군잔당을 대부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9년 3월 1일부터는 제15연대 1개 대대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여 공비들의 은거지를 습격하여 소총, 쌀 등 다량의 식량, 무기 및 장구류를 노획하였고 매복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공비들을 사살하고 구례군의 공비조직망이 수록된 문서를 획득 공비들과 내통하던 공산분자 다수를 검거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8월 8일부로 연대주둔지를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 당시 정부에서 북한인민유격대의 계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정황을 감안 이 기회에 이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하여 군경(軍警)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자, 이에 육군본부는 제15연대를 포함한 3개 연대 규모와 전투경찰대를 배속받아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이때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펼쳐, 지역내 잔여공비들의 보급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윤용성 일등병은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용 성 (尹 龍 成) 육군 일등병 군번 3301127

윤용성 일등병은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강외면(江外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에는 제1연대를 동두천지역에, 제9연대를 포천지역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용성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용 식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322936

윤용식 일등병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지역내 잔여공비들의 보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연대예하의 제3대대는 전라북도 남원에 주둔하면서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1950년 1월 2일까지 실시하고 복귀하였다. 연대의 주력은 1949년 11월 21일 경기도 용진으로 이동, 용진지구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윤용식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5-2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우 용 (尹 又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125782

윤우용 일등병은 1922년 1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북삼면(北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에는 제1연대를 동두천지역에, 제9연대를 포천지역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우용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윤 식 (尹 雲 植)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0699**

윤운식 이등상사는 전라북도 군산시(群山市)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운식 이등상사는 전라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7년 10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6-09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원 성 (尹 元 成) 육군 일등병 군번 0342058**

윤원성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가산면(加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태릉)에서 1개 중대 규모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동년 9월 18일까지 3개 대대의 편성을 완료한 후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원성 일등병은 책임지역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7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

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이 돌 (尹 二 珽) 육군 일등병 군번 0323633

윤이돌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천동(新川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제3연대 제2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제2여단에 예속되었고 동년 10월 1일 편성이 완료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반란군토벌사령부를 전라남도 광주에 설치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통합 지휘하게 하여 반란진압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제12연대는 반란진압을 위해 10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으로 출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사건이 발생한지 7일만인 10월 25일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을 탈환하고 치안을 회복하는 등赫赫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후부터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입산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해 육군본부에서는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진압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제12연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남지구전투사령부에 다시 배속되어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49년 1월 29일 주둔지를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제12연대는 제2대대를 응진지구로 이동시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윤이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8-0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이 돌 (尹 二 珩) 육군 일등병 군번 0323633

윤이돌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천동(新川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그해 10월 20일에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순천, 광양, 보성, 벌교, 여수지역을 탈환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전라남북도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군·경은 1948년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동 연대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군산주둔지로 복귀하여 전라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이돌 일등병은 군산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인 섭 (尹 寅 燮) 육군 이등병 군번 0338626

윤인섭 이등병은 1931년 4월 12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남일면(南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여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 태백산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윤인섭 이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

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8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4-2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일 병 (尹 日 炳)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2613**

윤일병 이등상사는 1923년 2월 18일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상동면(上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江陵)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담당하면서 지역내 공비토벌작전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예비대대를 투입하여 오대산 및 태백산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일병 이등상사는 오대산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2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자 현 (尹 字 鉉) 해군 일등수병 군번 8104953**

윤자현 일등수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조촌면(助村面)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진해통제부에서 복무하였다.

해안경비대는 1948년 2월 14일 인천기지에 제1정대, 부산기지에 제2정대, 목포기지에 제3정대 및 진해특설기지에 훈련정대를 편성하고 해상경

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진해특설기지를 진해통제부(統制府)로, 각 기지를 경비부(警備府)로 개편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은 인민유격대 2,300여명을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시켜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자현 일등수병은 진해 통제부 탄약고에 근무하던 중 진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1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장 환 (尹 張 煥) 육군 이등상사 군번 8660001

윤장환 이등상사는 1931년 6월 1일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김천읍(金泉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제3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2연대는 제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청도, 영일,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23연대는 1949년 8월 11일부터 1950년 3월 27일 사이에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및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육군참모총장(소장 채병덕)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그후 사단은 영전사 작명 제38호(1950. 3. 27)에 의거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교육훈련과 경상남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 윤장환 이등상사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

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6-5-05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재 구 (尹 在 九)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2795

윤재구 이등중사는 1926년 12월 11일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를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재구 이등중사는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2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재 룡 (尹 在 龍) 경찰 경위

윤재룡 경위는 1923년 6월 23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화산면(花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단체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군·경은 10월 21일부

터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군·경토벌대에 쫓긴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납치, 방화, 약탈 등을 계속 자행하였다.

윤재룡 경위는 함평군 현경면에 출현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재 영 (尹 在 榮) 경찰 경위

윤재영 경위는 1926년 6월 23일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충신동(忠信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 보안과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이 주동이 되어 제주 4·3폭동을 일으키자 제주도경찰국은 초기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은채 제주도내는 치안부재와 행정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총 1,700명의 병력을 차출하여 제주도에 급파시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공비들을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하였다.

윤재영 경위는 제주읍 도두리(道頭里) 방면에 출현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공비와 조우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 2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재 중 (尹 在 中) 육군 하사 군번 5301305

윤재중 하사는 1928년 10월 24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1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윤재중 하사는 이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재 풍 (尹 在 豊) 육군 이등병 군번 6600085

윤재풍 이등병은 1930년 11월 7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삼산면(三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동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윤재풍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8일 삼척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정 병 (尹 貞 炳)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16

윤정병 이등병은 1924년 9월 14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강현면(降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되어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정병 이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0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정 복 (尹 貞 福)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03

윤정복 이등병은 1923년 2월 7일 강원도 횡성(橫城)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되어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정복 이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종 권 (尹 鍾 權)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2720

윤종권 이등상사는 1923년 1월 10일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금성면(錦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 반란주모자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종권 이등상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종 주 (尹 宗 柱) 육군 하사 군번 1301134

윤종주 하사는 1939년 7월 1일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순창면(淳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예속받아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문산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옮긴 후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종주 하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3일



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6-1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종 태 (尹 鍾 泰) 육군 이등중사 군번 6800599

윤종태 이등중사는 1931년 4월 25일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호계면(虎溪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동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종태 이등중사는 이 청도·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26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종 학 (尹 宗 學) 경찰 경사

윤종학 경사는 1928년 2월 18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문내면(門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사건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며 그 후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

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지역 및 영남서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종학 경사는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부근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주 석 (尹 柱 碩) 육군 이등병 군번 0344689

윤주석 이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경주면(慶州面) 신평리(薪坪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 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주석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4-1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주 성 (尹 柱 成) 육군 일등병 군번 0335572

윤주성 일등병은 1928년 6월 22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와 서림리, 잔교리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윤주성 일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주 영 (尹 胄 榮) 육군 이등병 군번 0109690

윤주영 이등병은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부동면(府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1일까지 오대산, 태백산지역과 동해안의 서림리와 잔교리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주영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주 일 (尹 柱 日)      경찰 경사

윤주일 경사는 1926년 12월 21일 강원도 영월군(寧越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에 완전진압되었으며 그 후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방화,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주일 경사는 곡성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12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주 일 (尹 柱 逸)      육군 하사      군번 1704488

윤주일 하사는 1925년 1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연풍면(延豊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 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흥정산일대에 침투한 북한 인민유격대 500여 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주일 하사는 이 흥정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4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3-1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준 우 (尹 準 佑) 육군 이등병 군번 0344714

윤준우 이등병은 1925년 1월 6일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삼천포면(三干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4월 5일 제2사단에서 제8사단으로 예속 변경된 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청주로 복귀하였다.

윤준우 이등병은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4-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중 량 (尹 仲 郎) 경찰 경사

윤중량 경사는 1925년 6월 7일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구례면(求禮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池昌洙) 상사가 주동이 되

어 대전차포 중대장 김지회(金智會), 홍순석(洪淳錫) 중위 등 연대내 침투해 있던 남로당 골수분자 40여명이 공모하여 1948년 10월 19일 20:00시에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및 위협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10월 20일 오전 중 여수시를 완전장악하고 경찰관과 우익단체인사들을 체포하여 인민재판에 회부, 무차별 학살하였다.

여수경찰서에 근무하던 윤중량 경사는 여수시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지 오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1302646

윤지오 하사는 1929년 11월 9일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동부면(東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패관산,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 반란군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원대복귀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지오 하사는 전라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지 용 (尹 志 用) 육군 이등병 군번 0334913

윤지용 이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고아면(高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지용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7-1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진 오 (尹 鎭 五) 육군 이등병 군번 2701580

윤진오 이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창주면(滄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후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2개 대대를 배속시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1950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윤진오 이등병은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2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진현 (尹鎭鉉) 경찰 경위

윤진현 경위는 1923년 1월 10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고경면(古鏡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포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사건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포항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진현 경위는 영일군 죽장면 가사리에 위치한 구암산(九岩山)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 12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창수 (尹昌洙) 육군 일등병 군번 0166770

윤창수 일등병은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제2사단에 편입되어 충청남도지역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윤창수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창 희 (尹 昌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0186**

윤창희 이등중사는 1924년 8월 5일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조치원면(鳥致院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동년 11월에 제2사단에 예속되어 1950년 4월 2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창희 이등중사는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3일 경상북도 영덕지역에서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6-3-2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철 병 (尹 喆 炳)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1772

윤철병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정산면(定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제2사단에 편입되었다.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제2여단에 편입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연대는 10월 20일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동년 11월 30일까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철병 이등중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18일 구례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08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충 원 (尹 忠 元) 경찰 경사

윤충원 경사는 1928년 6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가음면(佳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윤충원 경사는 1949년 5월 22일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서면(西面)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서(西) 27-454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칠 봉 (尹 七 鳳) 육군 하사 군번 1705357

윤칠봉 하사는 1931년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병력이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홍정산 일대에 침투한 약 500명의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제2대대를 투입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윤칠봉 하사는 이 홍정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4-05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태 근 (尹 泰 根) 경찰 경위

윤태근 경위는 1925년 1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둔덕면(屯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그후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주로 호남동부지역 및 영남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태근 경위는 양산군 원동면(院洞面) 선리(善里)지서를 습격해온 약 80명의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7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태 현 (尹 台 絃)      육군 일등병    군번 5201120**

윤태현 일등병은 1927년 11월 9일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과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 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인수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태현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필 득 (尹 筆 得)      육군 하사      군번 1805850**

윤필득 하사는 1923년 6월 15일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서빙고동(西氷

庫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 등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필득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필 환 (尹 弼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6599

윤필환 이등중사는 1931년 10월 15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송라면(松羅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제12연대로부터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윤필환 이등중사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하 의 (尹 夏 儀) 경찰 총경

윤하의 총경은 1922년 6월 28일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고노면(古老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하의 총경은 1949년 8월 23일 공비 약 100여명이 불의에 거창경찰서를 습격하자 이에 응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총경으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학 섭 (尹 學 燮) 육군 일등병 군번 0320932

윤학섭 일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양평동(楊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예속시켰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윤학섭 일등병은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

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한 용 (尹 漢 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1091**

윤한용 이등중사는 1932년 7월 14일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직산면(稷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량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동년 5월 31일부터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6월 22일 사이에 두락산(斗落山), 은파산(銀波山) 및 작산(散山) 등을 탈환한 후 문산(汶山)으로 복귀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윤한용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한 전 (尹 漢 全) 경찰 경위**

윤한전 경위는 1924년 8월 5일 전라북도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임실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토벌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반란군 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

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윤한전 경위는 전라북도 순창군 덕치고개(德峙)에 출현한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9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해 정 (尹 海 程) 육군 하사 군번 3100880**

윤해정 하사는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아현동(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여수, 보성, 화순지역을 탈환하고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 제3차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5일 제17연대에 38도선경비임무를 인계하고 철수하여 수경사에 예속되었다.

윤해정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4-0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해 학 (尹 海 學) 육군 일등중사 군번 5703975**

윤해학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연대는 순천지역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윤해학 일등중사는 순천지역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행 실 (尹 行 失)    육군 일등병    군번 0187118**

윤행실 일등병은 1931년 8월 1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원삼면(遠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전사에 배속시켜 제1차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공방전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윤행실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호 이 (尹 號 伊) 육군 이등중사 군번 5700461

윤호이 이등중사는 1927년 7월 10일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만석동(萬石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경사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용진읍내 용진중학교에 용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여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윤호이 이등중사는 제1차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8-0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흥 건 (尹 弘 乾) 경찰 경위

윤흥건 경위는 1923년 9월 13일 평안북도 의주군(義州郡) 비현면(枇峴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이덕구(李德九) 등이 주동이 되어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를 학살하여 제주도를 치안부재상태로 만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제주도경찰이 제9연대와 합동으로 초기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총 1,700명을 차출하여 제주도에 급파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윤흥건 경위는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

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8년 12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화 영 (尹 華 寧) 육군 하사 군번 2901100**

윤화영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 후에도 연대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윤화영 하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2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호 섭 (尹 孝 燮) 육군 일등병 군번 0320132**

윤호섭 일등병은 1927년 12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양평동(楊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윤효섭 일등병은 이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춘 금 (尹 春 琴)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4495**

윤춘금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삽교면(挿橋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9월 5일 웅진지역으로 이동하여 웅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경사에 예속되었다.

윤춘금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윤 휘 동 (尹 揮 東) 경찰 경위**

윤휘동 경위는 1923년 3월 17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밤에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10월 20일에는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고 선동과 위협으로 일부 시민과 학생들을 반란에 가담시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전라남도경찰국에서는 예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초기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에 근무하던 윤희동 경위는 초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은 성 희 (殷 成 熙) 육군 일등병 군번 5203451

은성희 일등병은 1931년 1월 25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에 웅진지구를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차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두락산을 탈환하는 전공을 세운 후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은성희 일등병은 제1차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3-0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은 창 영 (殷 昌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20464

은창영 일등병은 1930년 5월 15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팔탄면(八灘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량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斗落山) 탈환전을 수행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을 탈환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汶山) 주둔지로 복귀하였다.

은창영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은 희 영 (殷 禧 泳) 육군 중위 군번 13906

은희영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육군본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1950년 6월까지 북한은 인민유격대 2,300여명을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시켜 주로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도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부터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은희영 중위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

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19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각 노 (李 角 魯) 육군 중위 군번 14448

이각노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1950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경사에 예속되었다.

이각노 중위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1949년 10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각 주 (李 珏 周) 육군 하사 군번 2604962

이각주 하사는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황간면(黃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金達三) 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에도 4월 5일부

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각주 하사는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1일 태백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갑 근 (李 鉀 根)    육군 이등병    군번 0324420**

이갑근 이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감물면(甘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제2대대는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의 주력을 소탕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 제2사단에 예속된 후 1950년 2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안동(安東)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갑근 이등병은 이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3-02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갑 칠 (李 甲 七)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0665**

이갑칠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부적면(夫赤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안동지역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중근(鄭鍾根)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갑칠 이등중사는 이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8일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0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갑 호 (李 甲 鎬)      경찰 순경

이갑호 순경은 1927년 7월 10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장덕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였으나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다. 그후 반란군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갑호 순경은 전라남도 나주군 공산면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길 (李 康 吉) 육군 일등병 군번 0363140

이강길 일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51통신대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1통신대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제1여단 예하 각 연대에서 차출된 장병 63명을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49년 1월 6일 제1통신단으로 승격되었다가 동년 3월 1일 통신단 해체와 동시에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예속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은 인민유격대 2,300여명을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시켜 주로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 습격, 양민 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강길 일등병은 경기도 부평(富平)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남 (李 康 南) 경찰 경사

이강남 경사는 1927년 12월 15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하남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10월 20일 여수·순천을 점령하였으나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강남 경사는 1948년 12월 17일 순천근교 쌍암고개(雙岩峙)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묵 (李 鋼 默)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5226

이강묵 이등상사는 1922년 2월 19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강묵 이등상사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0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수 (李 康 洙) 경찰 경사

이강수 경사는 1927년 9월 28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하면(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10월 20일 아침에 여수시내를 점령한 후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까지 점령하고 수백명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산하 경찰병력을 여수·순천지역에 출동시켜 초기진압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이강수 경사는 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영 (李 康 英)      경찰 순경

이강영 순경은 1929년 9월 20일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양도면(良道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배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배천(白川)경찰서는 배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1949년 3월 25일 북한군 38경비여단 소속의 일부 병력이 경비초소를 기습해 오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강영 순경은 이 반격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5-2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우 (李 康 祐)      육군 대위      군번 10433

이강우 대위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태평로(太平路)에서 태어나 육

군사관학교 제3기로 입교하여 1947년 4월 19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1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읍 신월리에서 창설된 후 10월 19일 제1대대가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하기 직전에 연대내 좌익분자인 지창수 상사(연대인사계선임하사), 김지회 중위(대전차중대장), 홍순석 중위 등이 주동이 되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이 반란사건으로 제14연대는 10월 28일 해체되었다.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의 반란군은 10월 20일 아침 여수시내를 장악한 후 순천으로 이동하여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고 일부 병력은 벌교, 보성, 고흥, 광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투입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및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강우 대위는 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부대를 지휘하다가 1948년 10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2-724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운 (李 康 運) 육군 일등병 군번 1206268

이강운 일등병은 1930년 5월 15일 경기도 인천(仁川)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9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철수하여 수경사에 예속된 후 수도권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강운 일등병은 수도권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2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원 (李 康 元) 경찰 경위

이강원 경위는 1927년 1월 13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장안면(長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서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자 일부 잔당들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강원 경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1948년 12월 15일 지리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수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준 (李 康 準) 육군 중령 군번 10544

이강준 중령은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한산면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3기로 입교하여 1947년 4월 19일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동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 경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강준 중령은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지휘하다가 1949년 9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강 훈 (李 康 勛) 육군 일등병 군번 0320192

이강훈 일등병은 1927년 2월 28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용인면(龍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3경비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은 인민유격대 2,300여명을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 일대로 남파시켜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 잔당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오대산지구, 태백산지구 및 지리산지구에서 군·경 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강훈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건 수 (李 建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1739

이건수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계룡면(溪龍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50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건수 이등중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1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건 희 (李 健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343238

이건희 일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교하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로 개성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건희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구 (李 京 求) 육군 일등병 군번 0329590

이경구 일등병은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제96독립포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경구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구 (李 敬 九) 육군 일등병 군번 0322770

이경구 일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보은면(報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

당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자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이경구 일등병은 순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우 (李 炅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0234316

이경우 이등중사는 1919년 8월 1일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림동(松林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경우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태 (李 慶 泰) 육군 일등병 군번 0216480

이경태 일등병은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지정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17일에는 은파산(銀波山)을 점령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을 점령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汶山)으로 복귀하였다.

이경태 일등병은 이 기간 중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화 (李 京 華) 육군 이등중사 군번 5700364

이경화 이등중사는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안암동(安岩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부로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12연대 제3대대, 제13연대 제2대대, 제18연대 제1대대, 제38부대 및 57mm 대전차포중대(6문)를 배속받아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친 용진지구전투를 전개하여 은파산을 제외한 모든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경화 이등중사는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8-0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화 (李 景 華)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5126

이경화 일등중사는 1928년 3월 1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신길동(新吉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 병력이 홍천군 신남면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연대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경화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9일 275고지에서 적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희 (李 敬 熙) 육군 일등병 군번 5703262

이경희 일등병은 1927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중부면(中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되었다. 제1사단 제

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 지역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사봉 일대를 탈환하였다.

이경희 일등병은 이 기간 중 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계 석 (李 啓 石) 육군 이등병 군번 0165718

이계석 이등병은 1933년 4월 5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군자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도로 이동, 동년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한 후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수색 및 인천으로 이동하여 사단 예비연대로서 경기지역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계석 이등병은 경기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북 (李 京 北)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3563

이경북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괴산면(槐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동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 경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경북 이등중사는 강원도 삼척지역 일대에서 주요시설 경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경 수 (李 京 秀) 경찰 경사

이경수 경사는 1928년 7월 8일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광의면(光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및 납치,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이경수 경사는 1949년 12월 2일 강진경찰서를 기습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계 춘 (李 啓 春)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2355

이계춘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광천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고 11월 16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권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계춘 일등중사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 후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3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계 호 (李 癸 鎬) 육군 일등병 군번 0327615

이계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내당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

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계호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6-08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계 화 (李 啓 和)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18

이계화 이등병은 1929년 6월 7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양양면(襄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 일대에서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동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계화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공 신 (李 公 信) 경찰 경사

이공신 경사는 1925년 7월 28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안좌면(安佐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단체인사들을 학살하였다. 이에 장흥경찰서에서는 가용한 병력을 여수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지원하였다.

이공신 경사는 여수지역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도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공 윤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0402860

이공윤 이등병은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정주면(井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별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다. 그후 반군토벌전투사령부는 진압작전을 계속하여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며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그해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공윤 이등병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관 노 (李 款 魯) 육군 중위 군번 14448

이관노 중위는 1927년 2월 29일에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어 수도권지역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용진중학교내에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친 용진지구전투를 전개하여 적에게 점령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이관노 중위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부대를 지휘하던 중 1949년 10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관 수 (李 觀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3458

이관수 이등중사는 서울시 중구(中區)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관수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역내로 침투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3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078번으로 봉

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관 영 (李 寬 榮)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356

이관영 이등중사는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소양면(昭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소탕하기 위해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관영 이등중사는 홍천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4일 지역내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20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관 영 (李 觀 永) 육군 이등중사 군번 6500494

이관영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신흥동(新興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용진지구전투사령부는 1949년 8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용진지구전투에서 적에게 점령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관영 이등중사는 이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관 호 (李 觀 浩)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9801**

이관호 일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월동(松月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연대는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이관호 일등중사는 이 사직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많은 전공을 올린 후 1949년 6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1-0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노 (李 珖 魯) 육군 일등병 군번 0325543**

이광노 일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鍾路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광노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7-0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락 (李 光 樂)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3684**

이광락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 용진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및 구례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으나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되었다.

이광락 이등중사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작전지역을 정찰하던 중 1949년 10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목 (李 光 默)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광목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학익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동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지역과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 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광목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석 (李 光 石) 경찰 경위

이광석 경위는 1924년 4월 18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금성면(錦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자칭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李德九) 등이 주동이 되어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제주도경찰국은 군·경합동으로 초기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군·경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진압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제주도가 치안부재와 행정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자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총 1,700명의 경찰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으나 공비들은 한라산 일대를 근거지로 하여 계속 준동하였다.

이광석 경위는 북제주군 조천면(朝天面) 신촌리(新村里)에 내습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1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세 (李 光 世) 육군 일등병 군번 8800302**

이광세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자인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하여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광세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5일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수 (李 光 洙) 육군 일등중사 군번 5101187**

이광수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제5여단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 1월 23일 충청남도 대전으로 이동하여 제2여단에 편입되었다. 연대는 동년 6월 20일 서울시 서빙고로 이동하여 제7사단에 편입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광수 일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열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0320047

이광열 이등병은 1933년 12월 24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군자동(君子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 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광열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하 (李 光 夏) 경찰 경사

이광하 경사는 1922년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신도림동(新道林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의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계 분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광하 경사는 신당동(新堂洞) 고사포 진지에서 밀회(密會)를 제지하던 중 남로당원이 쏜 흉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1-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훈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232100

이광훈 일등병은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행당동(杏堂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화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이들 화기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지원하였다.

이광훈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6-6-03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훈 (李 光 勳) 육군 일등병 군번 2901781

이광훈 일등병은 황해도 벽성군(碧城郡) 장곡면(壯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동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킨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광훈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적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광 희 (李 光 熙)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2770

이광희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소이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2개 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제1차 및 제2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역으로 이동,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광희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

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교 덕 (李 教 德) 육군 일등중사 군번 1604507

이교덕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포항면(浦項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이교덕 일등중사는 경기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12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교 준 (李 教 俊) 경찰 경사

이교준 경사는 1928년 2월 4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된 후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

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수시로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교준 경사는 담양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도중 공비들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이에 응전하다가 1949년 2월 28일 동료 20여명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구 영 (李 龜 榮) 경찰 경위

이구영 경위는 1925년 2월 26일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서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10월 19일 오전 중 여수시내를 점령하고 10월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까지 점령한 후 일부 반란군은 광양, 벌교, 보성, 고흥 방향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구영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서(西) 27-166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군 행 (李 君 倬) 경찰 순경

이군행 순경은 1923년 5월 3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평동면(平洞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군행 순경은 광산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50년 6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군 행 (李 君 行)      경찰 순경

이군행 순경은 1928년 9월 20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월야면(月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 암살, 경찰관서 습격, 테러 등을 자행하여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이 사전탐지하고 전국적으로 좌익인사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군행 순경은 함평군 월야면 소재 월야지서를 습격해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권 두 (李 權 豆)      경찰 경위

이권두 경위는 1927년 1월 22일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수시로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 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권두 경위는 양산경찰서를 습격해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교전하다가 1949년 7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귀 탁 (李 貴 卓)      육군 일등병      군번 1400680

이귀탁 일등병은 1926년 7월 4일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소천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여단 제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2·제3·제4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10월 21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4월 20일까지 지리산, 보성, 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귀탁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귀 학 (李 貴 學) 경찰 경위

이귀학 경위는 1914년 11월 1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상왕십리동(上往十里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및 테러, 경찰관서 습격 등을 통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분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귀학 경위는 김포지역에서 밀수선 압송도중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4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명 (李 圭 明) 육군 일등병 군번 2300184

이규명 일등병은 1928년 5월 20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남양면(南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육군통신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육군통신학교는 1948년 8월 26일 서울시 영등포에서 창설되어 통신기술요원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후 1949년 1월 6일 육군본부 직할로 제1통신단이 창설되어 제51통신대대와 육군통신학교를 통합지휘하다가 3월 1일부로 제1통신단이 해체되자, 육군본부 통신처(1949. 5. 1 통신감실로 승격)에서 관할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

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때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규명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1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목 (李 圭 睦) 경찰 경위

이규목 경위는 1924년 11월 7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상북면(上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의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 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규목 경위는 양산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복 (李 圭 復) 육군 일등병 군번 1701787

이규복 일등병은 1923년 9월 5일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강원도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규복 일등병은 이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삼 (李 圭 三) 육군 일등병 군번 0323561

이규삼 일등병은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 진천면(鎭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12월 2일부터는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연대규모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고 반격작전을 직접 지휘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이규삼 일등병은 그후 계속된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섭 (李圭燮) 육군 일등병 군번 7902140

이규섭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구촌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에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도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규섭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섭 (李奎燮) 경찰 경사

이규섭 경사는 1924년 1월 10일 경상남도 창원군(昌寧郡) 남지면(南旨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고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경찰관서 습격, 요인암살 및 테러 등을 자행하여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분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 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규섭 경사는 고성군 하이면 소재 하이지서(下二支署)에 근무하던 중 하이지서를 습격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3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성 (李 圭 成) 육군 일등병 군번 2202290

이규성 일등병은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성덕면(城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 서림리와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 35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규성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성 (李 圭 成) 경찰 경사

이규성 경사는 1917년 6월 13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홍농면(弘農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다. 그후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규성 경사는 영광군 묘량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던 중 묘량면지역에서 공비들에게 기습을 당하여 응전하다가 1949년 10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순 (李奎淳) 육군 하사 군번 1804164

이규순 하사는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북방면(北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11월 30일까지 태기산, 사자산,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규순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식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2992

이규식 이등중사는 1930년 7월 25일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임피면(臨陂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인 군·경 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규식 이등중사는 그후 계속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식 (李圭植) 육군 이등병 군번 0338977

이규식 이등병은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돈암동(敦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규식 이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6-0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식 (李 圭 植) 육군 이등병 군번 0326748

이규식 이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남고동(南固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한 후 1950년 4월 12일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규식 이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3-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옥 (李 圭 玉)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4395

이규옥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화산면(花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적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규옥 이등중사는 이 홍천지구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용 (李 圭 龍) 육군 하사 군번 5203596

이규용 하사는 1928년 1월 2일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추부면(秋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동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에 설치된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규용 하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3-0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원 (李 圭 元) 육군 하사 군번 8101740

이규원 하사는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이안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화악산, 운문산, 보현산, 수석봉과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규원 하사는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원 (李 奎 元) 육군 일등병 군번 0400901

이규원 일등병은 1931년 9월 3일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양산면(陽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규원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출 (李 奎 出) 육군 일등병 군번 0360533

이규출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동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 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및 대관령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규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태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2502615

이규태 일등병은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은진면(恩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 제2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斗落山)과 작산(鵲山)전투를 수행하였으나 공격에 실패하였다. 그 후 제2대대는 6월 17일 은파산(銀波山)을 공격,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을 탈환하였다.

이규태 일등병은 두락산 및 작산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6-2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현 (李圭鉉) 경찰 경사

이규현 경사는 1923년 11월 2일에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해방이후 남한내 남로당지하조직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분자검거에 착수하자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월북하거나 입산도주 후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납치 및 테러,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이규현 경사는 서울시내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중 1949년 5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1-0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형 (李奎亨) 육군 일등병 군번 0324691

이규형 일등병은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안흥면(安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부로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영남지구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4-01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형 (李 奎 馨)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172

이규형 이등중사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면(水原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 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도벌작전을 실시하고 수원으로 복귀하였으며 그후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 제2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에 배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292고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규형 이등중사는 송악산지역에 배치되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침입으로 총격전을 벌이다가 1949년 5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1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규 희 (李 圭 熙)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3197

이규희 일등상사는 1926년 10월 1일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팔봉면(八峯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보성, 화순, 남원, 구례 지역에서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규희 일등상사는 제3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07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명 (李 根 命)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9791

이근명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襄津郡) 송림면(松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동년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근명 이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수 (李 根 壽)      경찰 순경

이근수 순경은 1923년 11월 27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래구(東來區) 연산동(連山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마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토벌부대에 의하여 사건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근수 순경은 마산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12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수 (李 根 守)      육군 하사 군번 2904474

이근수 하사는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용산동(龍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근수 하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수 (李 根 洙) 육군 하사 군번 1205462

이근수 하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 및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한라산 일대에서 많은 공비를 토벌하였다.

이근수 하사는 이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영 (李 根 瑩)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7000

이근영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연대본부를 연촌(峴村)에서 서빙고로 이동하였다가 1949년 1월 22일에는 양주군 의정부 금오리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23일 의정부 가능리로 이동하여 미군으로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이근영 일등중사는 의정부지구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재 (李 根 宰) 육군 중위 군번 12158

이근재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제7기로 입교하여 1948년 11월 10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제5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1월 25일 여수·순천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연대 전병력을 여수로 출동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12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여수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4일 여수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동(東) 27-2651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창 (李 根 昌) 육군 일등병 군번 1107689

이근창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7년 11월 15일 연춘역전으로 이동하여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근창 일등병은 경기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6-08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채 (李 根 彩) 경찰 경사

이근채 경사는 1928년 12월 15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 일대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근채 경사는 영광군 염산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3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택 (李 根 澤) 경찰 경감

이근택 경감은 1922년 7월 18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흥면(長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해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 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밤에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으나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반란이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



축하고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 일대에 수시로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및 학살,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근택 경감은 해남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2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근 호 (李 根 浩)    경찰    경사

이근호 경사는 1923년 5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고흥면(高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20:00시경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장교들과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하고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으며 공공시설을 점거하였다.

여수시내를 장악한 반란군은 10월 20일 09:30시경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던 2개 중대를 합류시킨 후 당일 17:00시경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였다. 그후 일부 병력은 광양, 벌교, 보성, 고흥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근호 경사는 고흥경찰서를 습격해 온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금 영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2300836

이금영 일등병은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면(水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고 수원으로 복귀하였다. 또한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 제2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에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292고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후 5월 30일에는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 12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금영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15일 적과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금 응 (李 金 應) 육군 특무상사 군번 1801987

이금응 특무상사는 강원도 울진군(蔚珍郡) 울진면(蔚珍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금응 특무상사는 오대산, 서림리 및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9

년 9월 22일 강릉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국 (李 基 國) 육군 일등병 군번 0242138

이기국 일등병은 1916년 6월 9일 평안남도 진남포읍(鎭南浦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들이 1949년 초부터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기국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덕 (李 起 德) 육군 일등병 군번 0322819

이기덕 일등병은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가평면(加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 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연대는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에 투입,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292고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연대는 동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고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덕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문 (李 基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332523

이기문 일등병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장성면(長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광주로 복귀하여 부대정비 및 광주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문 일등병은 광주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서 (李 起 西) 육군 일등병 군번 0337701

이기서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둔남면(屯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 및 지리산 일대에서 반란군 잔당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지역, 덕유산, 쾌관산, 반선리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김지희,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제3연대 예하 제2, 제3대대는 동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의정부지역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서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성 (李 氣 成) 육군 하사 군번 2702803

이기성 하사는 전라남도 완도군(完島郡) 노화면(蘆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는 11월 25일 전 병력이 출동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49년 3월 1일부터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씩을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기성 하사는 순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순 (李基純) 경찰 총경

이기순 총경은 1922년 10월 17일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삼승면(三升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사건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지역과 영남서북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기순 총경은 양산군 원동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토벌작전을 지휘하다가 1949년 4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총경으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연 (李基淵)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1676

이기연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은진면(恩津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는 제주지구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연 일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연 (李 基 連)      경찰    경감

이기연 경감은 1922년 4월 18일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진교면(辰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기연 경감은 하동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교전하다가 1949년 3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연 (李 起 燕)      육군    이등상사    군번 1102819

이기연 이등상사는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행당동(杏堂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 제32연대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기연 이등상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일 적의 기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4-26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영 (李 基 榮) 육군 일등병 군번 2901501

이기영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도화동(道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그후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기영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영 (李 基 榮) 육군 일등병 군번 0361988

이기영 일등병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지관면(枝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교육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기영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영 (李 基 永) 육군 하사 군번 6601622

이기영 하사는 1927년 9월 1일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대강면(大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기영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1950년 6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응 (李 起 翁)      경찰 경위

이기응 경위는 1925년 2월 2일에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10월 20일에는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그중 일부는 광양, 벌교, 고흥, 보성지역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반란군토벌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 예하의 10개 대대를 투입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반란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광양, 벌교, 고흥, 보성지역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이기응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지원차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윤 (李 起 允)      육군 일등병      군번 0213207

이기윤 일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삼랑진면(三郎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 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기운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재 (李 箕 在) 경찰 경위

이기재 경위는 1919년 6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거제면(巨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창녕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10월 20일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광양, 벌교, 고흥 및 보성까지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2개 여단, 10개 대대를 투입하여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 약 350여명은 지방좌익분자들과 함께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영남 및 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 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기재 경위는 1949년 7월 16일 창령군 선산면 월곡리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종 (李 基 琮)      해군 중령    군번 80124

이기종 중령은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사천면(泗川面)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 간부특채요원으로 지원하여 1946년 12월 15일 소위로 임관된 후 해안경비대 제1정대(第一艇隊)소속 JMS 508정의 정장으로 근무하였다.

제2정대는 1949년 2월 14일 부산기지에서 창설되어 동해의 38도선으로부터 진해에 이르는 해상을 경비하였다. 이기종 중령은 제508정의 정장으로서 포항근해를 경비하던 중 1945년 5월 11일 해안경비대에 침투되어 있던 남로당계 사병들에 의해 월북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려다가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창 (李 基 昌)      육군 일등병    군번 2504582

이기창 일등병은 1926년 3월 28일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1월 25일부터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이기창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을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철 (李 基 喆)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52423

이기철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고수면(古水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는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 탈환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2대대는 6월 17일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 일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기철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철 (李 基 喆)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5761

이기철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고부면(古阜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괘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을 포함한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기철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5일 덕유산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1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태 (李 棋 泰) 육군 하사 군번 1704967

이기태 하사는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후곡리(後谷里)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투입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계속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태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20

일 춘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택 (李 起 澤) 육군 하사 군번 1703871

이기택 하사는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 덕산면(德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투입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계속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택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택 (李 起 澤) 육군 일등병 군번 0360105

이기택 일등병은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부용면(芙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택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0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풍 (李 起 豊) 육군 이등중사 군번 8810670

이기풍 이등중사는 1927년 8월 23일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전사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한 후 동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청주로 이동하여 충청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기풍 이등중사는 충청북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헌 (李 基 憲) 육군 이등중사 군번 1900717

이기헌 이등중사는 1925년 1월 17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기헌 이등중사는 경상남도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환 (李 基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334355

이기환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진양면(珍良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 및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제1차 및 제2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웅진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대에 복귀하였다.

이기환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훈 (李 基 勳) 육군 일등병 군번 0240676

이기훈 일등병은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청파동(靑坡洞)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기훈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기 휘 (李 基 徽) 경찰 경위

이기휘 경위는 1923년 12월 3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임계면(臨溪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부터 공비들은 오대산, 태백산, 일월산, 지리산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기휘 경위는 1949년 6월 20일 정선군 임계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

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서(西) 27-186번으로 안장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길 수 (李 吉 壽) 육군 일등병 군번 0331378

이길수 일등병은 1920년 11월 4일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금암동(金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제주 4·3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에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길수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길 용 (李 吉 龍)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3166

이길용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초포면(草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패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

여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길용 이등중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3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09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길 이 (李 吉 伊) 육군 일등병 군번 0325676

이길이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산내면(山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를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대는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및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길이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7-1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길 행 (李 吉 行)    경찰 순경

이길행 순경은 1924년 6월 10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월야면(月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요인암살 및 테러, 경찰관서 습격 등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좌익분자들은 산악지역으로 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길행 순경은 1946년 6월 11일 함평군 나산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낙 렬 (李 洛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327669

이낙렬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산양면(山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동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권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낙렬 일등병은 수도권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6일 전사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낙 범 (李 樂 範)      경찰    경사

이낙범 경사는 1923년 10월 1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 및 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낙범 경사는 1949년 11월 7일 영암군 금정면(金井面)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남 섭 (李 南 燮)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남섭 일등병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육군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을 위해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하순 용진지구로 이

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이남섭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남 종 (李 南 鍾) 육군 일등병 군번 2300783

이남종 일등병은 1924년 9월 29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남양면(南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 제2대대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연대는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한 후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남종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5-0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단 석 (李 杻 錫) 육군 일등중사 군번 0206506

이단석 일등중사는 1925년 8월 27일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나 국방 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및 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1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단석 일등중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경상남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단 희 (李 檀 禧)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3708

이단희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襄津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국방 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단희 이등중사는 이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



院)에 위패번호 33-3-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달 권 (李 達 權) 육군 일등병 군번 1703643

이달권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명동(大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북한군 1개 대대가 8월 6일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규모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투입하여 8월 26일에야 적을 격퇴시켰다.

이달권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달 세 (李 達 世) 육군 일등병 군번 0111577

이달세 일등병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계속해서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달세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1-6-09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달 우 (李 達 雨) 육군 이등병 군번 1130031

이달우 이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산내면(山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오대산, 태백산, 일월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달우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달 우 (李 達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17621

이달우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견곡면(見谷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 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 지역을 담당하여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달삼을 포함하여 54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달우 이등중사는 김달삼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권 (李 大 權) 육군 이등병 군번 0326423

이대권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숭의동(崇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이들 화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 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

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대권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2-05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근 (李 大 根)      경찰 경사

이대근 경사는 1923년 2월 27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소라면(召羅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 진압되었으나 그 후 반란군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대근 경사는 1950년 5월 7일 구례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득 (李 大 得)      경찰 경사

이대득 경사는 1926년 4월 29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왕곡면(旺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대득 경사는 1948년 2월 15일 화순경찰서를 습격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叙)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서(西) 27-507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식 (李 大 植)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559

이대식 일등중사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11월 30일까지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지역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대식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우 (李大雨) 경찰 경위

이대우 경위는 1925년 8월 28일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내남면(內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경주경찰서에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 및 호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대우 경위는 1949년 9월 28일 경주읍 서악리에 출현한 6명의 공비들과 교전 중 공비 2명을 사살하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대 형 (李大炯) 육군 일등병 군번 0362055

이대형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남산면(南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독립제1대대에서 복무하였다.

독립제1대대는 1948년 12월 6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있던 수색학교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공비토벌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서울유격대로 개칭하고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 후 1949년 5월 9일 수원으로 복귀하였다가 6월 4일 38부대로 개칭한 후 용진지구에 투입되어 태탄기습공격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22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 후 38부대는 6월 20일 수원으로 철수한 후 7월 15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12월 28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후 독립제1대대는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태백산지구공

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대형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관 (李 德 觀) 육군 일등상사 군번 1104139

이덕관 일등상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만리동(萬里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이덕관 일등상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규 (李 德 圭) 육군 일등병 군번 2903304

이덕규 일등병은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용산동(龍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

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한 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덕규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26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래 (李 德 來)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덕래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덕래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래 (李 德 來)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3167

이덕래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한 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웅진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덕래 이등상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5일 웅진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룡 (李 德 龍) 육군 이등병 군번 0154945

이덕룡 이등병은 1926년 6월 20일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덕룡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

년 1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명 (李 德 明) 육군 이등상사 군번 8500039

이덕명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赫赫한 전과를 올렸다.

이덕명 이등상사는 경상남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배 (李 德 培) 육군 이등병 군번 0327071

이덕배 이등병은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소양면(昭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고

반격작전을 직접지휘하여 8월 26일에 적을 격퇴시켰다.

이덕배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4-11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수 (李 德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0043

이덕수 일등중사는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용방면(龍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반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덕수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3-2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용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5303770

이덕용 일등병은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수북면(水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

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연대는 1950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광주로 복귀하여 전라남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덕용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칠 (李 德 七) 육군 이등병 군번 2901259

이덕칠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덕칠 이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2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덕 희 (李 德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3519

이덕희 이등중사는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오산면(烏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동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덕희 이등중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도 권 (李 道 權) 경찰 경사

이도권 경사는 1927년 6월 16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흥면(長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연대 내에 침투되어 있던 40여명의 공산분자들과 함께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장교들은 무조건 사살하고 반란에 반대하는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한 후 2개 대대를 장악하여 여수시내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한 후 은행 등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반란군은 10월 20일 오전 중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이날 17:00 시경에는 순천시내를 완전점거하고 수백명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2개 여단 10개 대대 병력을 투입하여 군·경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여수시내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350여명으로 추산되는 반란군잔당과 반란에 가담했던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지리산 일대의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북부지역에 수시로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 납치 및 학살, 식량약탈 및 공공시설파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도권 경사는 순천읍 쌍암리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8년 12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도 보 (李 都 甫) 육군 일등병 군번 0334107

이도보 일등병은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홍농면(弘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동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웅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도보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도 상 (李道相)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0438

이도상 이등중사는 1928년 10월 20일 경상남도 합천군(陝川郡) 초계면(草溪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탈환전을 수행한 후 6월 17일에는 은파산, 6월 22일에는 작산(까치봉)일대를 완전히 탈환하고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지역으로 복귀하였다.

이도상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도 종 (李道鍾)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3455

이도종 일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월동(松月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도종 일등중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

호 08-7-17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돈 모 (李敦模) 경찰 경사

이돈모 경사는 1921년 3월 12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옥곡면(玉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및 위협하여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여수시내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고 좌익 분자들과 합세하여 여수시내를 점거한 후 인민재판을 벌여 학살극을 자행하였다. 그후 반란군은 10월 20일 오전에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 400여명과 수많은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광양경찰서에서는 순천지역으로 지원병력을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진압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이돈모 경사는 이 반란진압작전 지원차 순천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돈 식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2104029

이돈식 하사는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다시면(多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59수사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돈식 하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기 (李 東 基)      경찰    경위

이동기 경위는 1922년 1월 27일 경상남도 합천군(陝川郡) 합천면(陝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은 여수시내를 점거한 후 10월 20일 오전에는 순천으로 이동하여 당일로 순천을 점거하고 공산천하로 만들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여수시내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은 토벌군에 쫓겨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지역 및 영남북서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동기 경위는 1949년 8월 23일 약 100명의 공비들이 거창경찰서를 습격하자 이에 응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길 (李 東 吉)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1644

이동길 일등중사는 1929년 12월 7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화산면(花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 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킨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동길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미 (李 東 米) 육군 일등병 군번 0344597

이동미 일등병은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7교육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 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 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동미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석 (李 東 錫) 육군 이등중사 군번 6800296

이동석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금천면(錦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역 등 경상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영남지구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동석 이등중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8일 영천지역에 있는 운주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

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수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704351

이동수 일등병은 1928년 4월 30일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홍은동(弘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동수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고 제59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49년 7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수 (李 同 守) 육군 일등병 군번 0337567

이동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大邱) 효목동(孝睦洞)에서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미군의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초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공비토

별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별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동수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수 (李 東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0995**

이동수 일등병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임피면(臨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동수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우 (李 東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0125**

이동우 이등중사는 1930년 12월 15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보개면(寶蓋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동우 이등중사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10일 용진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은 (李 東 殷)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3431

이동은 이등중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하여 제5사단에 예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동년 4월 26일 원주로 이동하여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예속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동은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1950년 2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인 (李 東 仁) 육군 이등병 군번 0550431

이동인 이등병은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천곡면(泉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흥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흥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이동인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0일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진 (李 東 振) 육군 일등병 군번 0132180

이동진 일등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용진면(龍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로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씩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동진 일등병은 순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진 (李 東 珍)      경찰 경사

이동진 경사는 1919년 3월 30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송지면(松旨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은 여수시내를 점거한 후 10월 20일 오전 중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이날 오후에는 순천시내를 점거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광양, 벌교, 보성, 고흥까지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군경 진압군에 쫓긴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서부지역과 영남북서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동진 경사는 1948년 12월 18일 강진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방두산에서 공비들과 교전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진 (李 東 鎭) 육군 이등병 군번 0324192

이동진 이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외속리면(外俗離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 포천지역으로 이동,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동진 이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2-08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창 (李 東 昌) 경찰 경사

이동창 경사는 1920년 8월 20일 전라남도 목포시(木浦市) 죽교동(竹橋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 및 영남서북부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동창 경사는 1949년 3월 20일 장성군 삼계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

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철 (李 東 喆) 육군 일등병 군번 2902805

이동철 일등병은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장기면(長岐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49년 1월 대전으로 이동하였다가 6월 20일 다시 서울 서빙고로 이동하여 제7사단에 예속되었다. 연대는 1개 대대를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 제5사단에 예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동철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춘 (李 同 春) 경찰 경사

이동춘 경사는 1924년 10월 5일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황금동(黃金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

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 및 영남서북부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동춘 경사는 1949년 6월 20일 광산경찰서를 기습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동 훈 (李 東 焄)    경찰    경사

이동훈 경사는 1923년 12월 30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신광면(神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포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동훈 경사는 1949년 6월 9일 영일군 송라지서예를 습격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두 교 (李 斗 敎)    육군    대위    군번 10431

이두교 대위는 전라북도 군산시(群山市) 월명동(月明洞)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3기로 입교하여 1947년 4월 19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10월 30일에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보성, 화순, 남원 및 구례지역에서 동년 12월 5일까지 반란군잔당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두교 대위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부대를 지휘하다가 1948년 11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두 용 (李 斗 用)      경찰 순경

이두용 순경은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북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식량약탈 및 교량파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두용 순경은 1950년 1월 1일 보성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은 소탕하기 위해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두 태 (李 斗 泰)      육군 이등병      군번 0326610

이두태 이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하양면(河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고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두태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2-2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두 훈 (李斗勳) 육군 이등중사 군번 8103015

이두훈 이등중사는 1933년 9월 28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문의면(文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두훈 이등중사는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등 목 (李 澄 穆)    경찰    경사

이등목 경사는 1924년 7월 13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장성면(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북부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및 학살, 식량약탈, 교량파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등목 경사는 1949년 12월 17일 곡성군 입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세 (李 亮 世)    육군    일등병    군번 0321836

이양세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남산면(南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양세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리 식 (李 利 植) 육군 일등병 군번 2901875

이리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리식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대 (李 萬 大) 육군 이등병 군번 2702545

이만대 이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제5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경상남도 마산시 신월동에서 창설되어 제3여단에 편입되었다. 그후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을 위해 연대 전병력이 여수 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에는 여수·순천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연대는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만대 이등병은 여수지역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

패번호 32-5-09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복 (李 萬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34572**

이만복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한 적 200여명을 맞아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을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제1연대를 동두천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만복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석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2886**

이만석 일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성면(海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



투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만석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20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수 (李 晚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63341

이만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구(東區) 범일동(凡一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이들 화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도부터는 여수·순천 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에서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규모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만수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수 (李 萬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142305

이만수 일등병은 1931년 5월 26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7월 5일에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을 담당하여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특별작전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만수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특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수 (李 萬 洙) 육군 일등병 군번 2902469

이만수 일등병은 서울시 중구(中區) 필동(筆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만수 일등병은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수 (李 萬 洙) 육군 이등병 군번 0328143

이만수 이등병은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계내면(溪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만수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7-2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식 (李 萬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1032

이만식 이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와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만식 이등중사는 오대산, 황병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

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4일 양양군 현북면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3-0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영 (李 万 永) 육군 일등중사 군번 3100714**

이만영 일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에 참가시켰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12일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만영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우 (李 萬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102887**

이만우 일등병은 1929년 1월 5일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문산면(文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

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씩을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9월 28일부로 다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자 2개 대대를 배속시켜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만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원 (李 萬 源) 육군 이등상사 군번 0320247

이만원 이등상사는 1929년 2월 17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오천면(烏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6월 19일 경기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만원 이등상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4-1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철 (李 萬 喆) 육군 하사 군번 0337241

이만철 하사는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곡성면(谷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연대 전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씩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다시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만철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만 춘 (李 萬 春) 육군 일등병 군번 0202170

이만춘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부산진구(釜山鎭區) 부전동(釜田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이들 화기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영남 및 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각 지구

에 공비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지원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만춘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말 용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1016558**

이말용 이등중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기갑연대 및 독립제1대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웅진지구전투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2차에 걸친 웅진지구전투에서 적에게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말용 이등중사는 제2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면 호 (李冕好) 육군 일등병 군번 0346375**

이면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북후면(北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와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의 오대산, 황병산지역에서 김상호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였다.

이면호 일등병은 김상호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곤 (李 明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63239

이명곤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동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이명곤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달 (李 命 達)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87

이명달 이등병은 1925년 3월 6일 경기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虎林部隊)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과 영덕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명달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복 (李 明 福)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2568

이명복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대동면(大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명복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수 (李 明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1075

이명수 이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성덕면(城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오대산, 황명산 일대에서 김상호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대부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명수 이등중사는 오대산지역 및 동해안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3-06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식 (李 明 植) 경찰 경위

이명식 경위는 1928년 11월 1일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탄현면(炭縣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배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후 국군과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여 부족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아군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38도선을 넘어와 아군초소나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는 등 도발행위를 빈번히 자행하였다.

이명식 경위는 1949년 5월 18일 배천경찰서 관하 양청지서를 습격해온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1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언 (李 明 彦) 육군 이등상사 군번 2201852

이명언 이등상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및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명언 이등상사는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원 (李 命 源) 경찰 경감

이명원 경감은 1923년 9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봉동(大鳳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8월 중순 이호제가 지휘하던 제7차침투인민유격대 약 360명이 태백산맥을 타고 경상북도지역까지 침투하여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경찰관 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명원 경감은 일월산, 보현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토벌작전을 지휘하다가 1950년 2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재 (李 名 在) 육군 일등중사 군번 2604784

이명재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 문백면(文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명재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재 (李 明 載) 육군 일등중사 군번 1902386

이명재 일등중사는 1932년 2월 4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광장동(廣壯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동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및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영남지구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명재 일등중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그후 계속된 영남지구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제 (李 明 濟) 육군 일등병 군번 0361550

이명제 일등병은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반으로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명제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분조침투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50년 5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1-2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찬 (李 明 燦) 육군 하사 군번 1805768

이명찬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지역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명찬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

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20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명 호 (李 明 浩) 육군 일등병 군번 7790722

이명호 일등병은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상동면(上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10월 21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 세력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수차에 걸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준동이 계속되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사단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군·경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인 포위 및 수색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사단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제15연대를 순천지역에, 제19연대를 남원지역에 투입하여 1950년 4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광주로 복귀하여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명호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목 래 (李 穆 來) 경찰 경사

이목래 경사는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

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 및 호남지역 일대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목래 경사는 보성경찰서 관내 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도에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목 희 (李 穆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164520

이목희 일등병은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김포면(金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반란군잔당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패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목희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몽 출 (李 夢 出)      경찰 경사

이몽출 경사는 1924년 4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득량면(得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반란을 일으켜 여수시내를 점거하고 10월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까지 점거하여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한 후 시민들을 선동 및 강요하여 반란에 가담시켰다.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몽출 경사는 순천지역반란진압을 위해 출동하여 순천역전에서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석 (李 務 石)      육군 이등병      군번 1500589

이무석 이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성남면(城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경상북도 안동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무석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



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0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연 (李 戊 淵) 육군 하사 군번 1804957

이무연 하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공근면(公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무연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5일 홍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0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옥 (李 茂 玉) 경찰 경감

이무옥 경감은 1919년 6월 7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안계면(安溪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점촌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8월 중순 이호제가 이끌던 제7차 침투 인민유격대 약 360명이

태백산맥을 타고 경상북도지역까지 침투하여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경찰관 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무옥 경감은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지역에 출현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9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용 (李 武 用) 육군 일등상사 군번 1801546

이무용 일등상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대화면(大和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대구에서 제3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된 후 1950년 3월말까지 제22연대는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무용 일등상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1950년 2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용 (李 武 雄) 경찰 순경

이무용 순경은 1924년 5월 25일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남양면(南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남로당제주도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자칭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李德九)등이 주동이 되어 1948년 4월 3일 02:00시를 기해 무장폭동을 일

으며 제주도내 14개 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제주경찰은 모슬포 주둔 제9연대(1개 대대 규모)와 합동으로 초기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군·경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제주도가 치안부재 및 행정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자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총 1,700명의 경찰 병력을 차출하여 제주도에 급파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무웅 순경은 남제주군 대정면 대정지서에서 폭도들로부터 기습을 받아 교전하다가 1948년 4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무 희 (李 茂 熙)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1628

이무희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에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무희 이등상사는 단양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0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문 기 (李文基)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5990

이문기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문기 일등중사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문 석 (李文錫) 경찰 경사

이문석 경사는 1923년 2월 26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화양면(華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20:00시경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반란주모자들은 반란을 반대하는 장교들과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하고 병사들을 선동과 협박으로 반란에 가담시켜 그 규모는 약 2개 대대에 이르렀다. 반란군은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한 후 관공서와 은행 등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문석 경사는 여수경찰서를 습격해 온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문 식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1305690

이문식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동년 11월 30일까지 반란군 잔당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괴관산,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문식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문 호 (李文鎬)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3029

이문호 이등중사는 1930년 6월 16일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량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대를 동년 5월 31일부터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과 은파산을 탈환하고 작산을 탈환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한 후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이문호 이등중사는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문 희 (李文熙) 육군 일등병 군번 1209429

이문희 일등병은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공검면(恭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남원, 구례지역에서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그해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 전투를 수행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문희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민 (李 敏) 육군 일등병 군번 0322802

이민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광적면(廣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는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민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민 용 (李 民 用) 육군 일등병 군번 0363221

이민용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제1연대, 제9연대, 제19연대 및 포병 제18대대를 기간으로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동년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적리를 침공한 북한군 200여명을 맞이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세웠다. 그후 연대는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민용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민 호 (李 敏 鎬) 육군 하사 군번 5204360

이민호 하사는 경기도 용진군(甕津郡) 송림면(松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하고 용진지구38

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9년 7월 5일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여 부대정비 및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4월 12일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이민호 하사는 경기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3-19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발 석 (李 撥 錫)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6219

이발석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 홍천군 동면 공작산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8월 11일까지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발석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홍천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발 원 (李 撥 元)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16764

이발원 이등중사는 1926년 2월 27일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대월면(大月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4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이발원 이등중사는 영월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방 역 (李 方 億) 육군 일등병 군번 1100632

이방역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강서면(江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5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이방역 일등병은 이 사직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방 우 (李 邦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67

이방우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노곡동(魯谷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연대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반란군잔당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를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9월 28일부터 2개 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방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배 섭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5303112

이배섭 하사는 1927년 4월 26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마산면(馬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동년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배섭 하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6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4-2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백 동 (李 白 東) 육군 일등상사 군번 5301611

이백동 일등상사는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백동 일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27일 보성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18-7329번으로 안장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백 언 (李 栢 彦) 육군 일등병 군번 5301413

이백언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백언 일등병은 청도,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백 윤 (李伯允) 육군 일등병 군번 2701330

이백윤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연대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진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0월 27일 반란이 완전진압되자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이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공비특별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연대는 여수에 주둔하여 여수·순천지역에서 준동하던 잔여공비특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백윤 일등병은 여수·순천지역에서 잔여공비특별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18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범 고 (李範考) 육군 일등중사 군번 5204282

이범고 일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甕津郡) 동면(東面)에서 태어나 조선 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1949년 5월 하순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하고 용진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범고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범 선 (李 範 璿) 육군 일등중사 군번 5100434

이범선 일등중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내사면(內四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50년 1월부터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대위 외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범선 일등중사는 중부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0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범 팔 (李 範 八)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1799

이범팔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한라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

과를 올렸다.

이범팔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범 호 (李 範 浩) 육군 일등병 군번 0327444

이범호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주안동(朱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3교육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및 학살,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범호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구 (李 秉 九) 육군 하사 군번 2902997

이병구 하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내사면(內司面)에서 태어나 육군

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하였다.

이병구 하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2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구 (李 秉 九) 경찰 경위

이병구 경위는 1925년 7월 11일 부산시 서구(西區) 토성동(土城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기마대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그후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과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병구 경위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권 (李 秉 權) 육군 이등상사 군번 1106259

이병권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당진면(唐津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제2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에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동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292고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동년 5월 30일 연대 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한 후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권 이등상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제2차 송악산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후 1949년 8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2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남 (李 炳 南) 경찰 경위

이병남 경위는 1921년 11월 19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평창면(平昌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다.

이병남 경위는 오대산지역에 준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7일 평창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노 (李 炳 魯) 육군 이등중사 군번 3801647

이병노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춘포면(春浦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제주도로 이동하여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고 11월 16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노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두 (李 秉 斗)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5002

이병두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달산면(達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여 수도

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6월 19일 경기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정부 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두 이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17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례 (李秉例) 육군 중위 군번 14522

이병례 중위는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경원동(慶園洞)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제1대대를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병례 중위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무 (李炳武) 경찰 경사

이병무 경사는 1925년 12월 30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문평면(文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였으며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계에 대한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병무 경사는 나주군 문평지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문 (李 炳 文)    경찰    경위

이병문 경위는 1924년 11월 24일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산청면(山淸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함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된 후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병문 경위는 함양군 서하면 수전리에 출현한 수십명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봉 (李炳鳳)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1349

이병봉 일등상사는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복수면(福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기갑연대 및 독립제1대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제2연대, 제18연대 및 기갑연대를 웅진지구전투에 투입하여 은파산과 작산 일대를 탈환하였다. 제2연대는 1949년 11월 15일에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였으며 제18연대는 1950년 1월 20일 철수하였다.

이병봉 일등상사는 웅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석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402331

이병석 일등병은 1930년 1월 9일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송해면(松海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근거지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병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성 (李 秉 性) 육군 일등병 군번 0332456

이병성 일등병은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웅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성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7-01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속 (李 炳 叔)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44563

이병속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밀양면(密陽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제1여단 예하 수색대로 창설되어 동년 12월 10일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연대는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裝甲中隊)를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시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전 장병이 일제급 특진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출동하여 작산(까치봉)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속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5일 장렬

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순 (李 炳 淳) 육군 중위 군번 11240

이병순 중위는 1927년 4월 5일 부산시(釜山市) 동래구(東萊區) 장전동(長箭洞)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6기로 입교한 후 1948년 7월 28일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제1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야간 제주도로 출동하기 직전에 연대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홍순석 중위 등과 함께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지창수 상사는 그가 미리 포섭해 놓은 연대내 좌익분자 40여명을 동원하여 장교들을 닥치는대로 사살하고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한 후 병사들을 선동과 위협으로 반란에 가담시켰다.

반란군 약 1,000여명은 10월 20일 아침에는 여수시내를 완전점거한 후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이날 오후에는 순천시내를 점거하고 일부 병력은 광양, 고흥, 벌교, 보성지역까지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 점거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고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병순 중위는 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1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열 (李 秉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362899

이병열 일등병은 1930년 12월 25일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지수면(智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130km에 이르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로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병열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용 (李 丙 用) 육군 일등병 군번 0360257

이병용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내당동(內唐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병용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용 (李 炳 用) 육군 일등상사 군번 1601334

이병용 일등상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내당동(內唐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용 일등상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7-09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우 (李 秉 宇) 육군 일등병 군번 0402333

이병우 일등병은 1935년 3월 23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자인면(慈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병우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옥 (李 炳 旭) 육군 일등병 군번 5100809

이병옥 일등병은 황해도 황주군(黃州郡) 천주면(天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南原)으로 이동하여 1월 25일 제7사단에서 제5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었으며 동년 4월 26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예속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옥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0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옥 (李 炳 郁) 육군 일등병 군번 0401385

이병옥 일등병은 1931년 2월 9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병옥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

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운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0339316

이병운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이담면(伊淡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가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으며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사단은 제1연대를 동두천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정면에 배치하여 1950년 1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운 하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원 (李 秉 元) 육군 하사 군번 2902997

이병원 하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내사면(內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동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병원 하사는 응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일 (李 炳 日)      육군 일등병    군번 1203518**

이병일 일등병은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은산면(恩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참가시켰다.

이병일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재 (李 炳 宰)      경찰 경사**

이병재 경사는 1927년 8월 4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동복면(同福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좌익분자들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출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병재 경사는 담양군 월산면 월산지서를 습격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조 (李 炳 祚) 육군 이등병 군번 0124688

이병조 이등병은 1924년 6월 13일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5경비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지원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병조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준 (李 炳 準) 육군 중위 군번 14114

이병준 중위는 함경남도 서천군(瑞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육군소위로 임관된 후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제2대대를 배속시켜 동년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병준 중위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2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준 (李 秉 俊)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8787

이병준 일등중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기흥면(器興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기갑연대 및 독립제1대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웅진지구전투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2차에 걸친 웅진지구전투에서 적에게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병준 일등중사는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6-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찬 (李 秉 讚)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381

이병찬 일등중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횡성면(橫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병찬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3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06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창 (李 秉 昌) 육군 이등병 군번 0336852

이병창 이등병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일왕면(日旺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 예하 제11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개된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사봉 일대를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병창 이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6-14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춘 (李 炳 春)      경찰 경위

이병춘 경위는 1923년 7월 18일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산서면(山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임실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제주도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소위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李德九) 등이 주동이 되어 제주4·3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공공기관을 점거한 후 경찰관과 우익인사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제주도는 치안부재 및 행정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제주경찰은 제9연대와 합동으로 초기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군·경간 알력과 병력부족으로 반란군토벌작전에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을 차출하여 총 1,700명의 경찰병력을 제주도로 급파시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병춘 경위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19일 한라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춘 (李 炳 春)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1902

이병춘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탕정면(湯井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고 8월 5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병춘 일등중사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8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하 (李 炳 夏) 경찰 경위

이병하 경위는 1923년 9월 12일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후평면(後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을 따라 준동하였으



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 잔당과 북한에서 남파된 소위 북한인 민유격대가 지리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및 강원도 일대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병하 경위는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11일 정선군 북면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호 (李 丙 浩) 육군 일등병 군번 9712230

이병호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백산면(白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병호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호 (李 炳 浩) 육군 일등중사 군번 6500601

이병호 일등중사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여 경상북도 안동(安東)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병호 일등중사는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호 (李 炳 虎)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1349

이병호 일등상사는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 복수면(福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옹진읍내 옹진중학교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여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병호 일등상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호 (李 炳 浩) 육군 특무상사 군번 1800298**

이병호 특무상사는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봉산면(鳳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병호 특무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호 (李 炳 鎬) 육군 소위 군번 233284**

이병호 소위는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신동면(新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

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두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병호 소위는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8-1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희 (李 丙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334395**

이병희 일등병은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청암면(淸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영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이병희 일등병은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병 희 (李 炳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3700468**

이병희 이등중사는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춘천면(春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

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충청남도지역항토방위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의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병희 이등중사는 충청남도지역항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5-06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보 영 (李 保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40229

이보영 일등병은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대전면(大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용진(甕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보영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2-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규 (李 福 圭)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복규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복규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동 (李 福 同) 육군 일등병 군번 1101036

이복동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복동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만 (李 福 萬) 육군 일등중사 군번 6800610

이복만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제3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청도, 영일,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23연대는 1949년 8월 11일부터 1950년 3월 27일 사이에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및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육군총참모장(소장, 채병덕)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그후 사단은 영남지구전투사령부 작명 제38호(1950. 3. 27)에 의거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복만 일등중사는 경상북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경상북도 영일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만 (李 福 萬)      경찰 경위

이복만 경위는 1928년 8월 1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웅촌면(熊村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이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복만 경위는 양산경찰서는 관내지역에 출현한 약 80명의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7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성 (李 福 成)      육군 일등병      군번 1803580

이복성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선산면(善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복성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수 (李 福 秀) 육군 이등중사 군번 2604798

이복수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 초평면(草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에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복수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술 (李 福 述) 육군 일등병 군번 0363765

이복술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웅천면(熊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

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복술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1-1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우 (李 福 雨)    경찰 경위

이복우 경위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칠곡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당국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복우 경위는 칠곡군 약목지서를 습격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6년 10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복 우 (李 福 雨)    경찰 경사

이복우 경사는 1929년 8월 26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강서면(江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괴산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복우 경사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지역에 출현한 20여명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규 (李 鳳 圭) 육군 소령 군번 10336

이봉규 소령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익산면(益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여 1946년 6월 15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1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읍 신월리에서 창설된 후 10월 19일 제1대대가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하기 직전에 연대내 좌익분자인 지창수 상사(연대 인사계선임하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중위(대전차 중대장), 홍순석 중위 등과 함께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이 반란사건으로 제14연대는 10월 28일 해체되었다.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의 반란군은 10월 20일 아침 여수시내를 장악한 후 순천으로 이동하여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고 일부 병력은 벌교, 보성, 고흥, 광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투입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및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봉규 소령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길 (李 鳳 吉) 육군 일등상사 군번 1801778

이봉길 일등상사는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여주면(驪州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 제21연대를 예속시켰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봉길 일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석 (李 鳳 奭) 육군 이등병 군번 0322754

이봉석 이등병은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촌면(陽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예속시켰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봉석 이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6년 5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5-0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선 (李 鳳 善)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551

이봉선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진군(襄津郡) 북도면(北島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봉선 이등중사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2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수 (李 鳳 洙)    육군 일등중사    군번 0112791**

이봉수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운문면(雲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봉수 일등중사는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열 (李 鳳 烈)    육군 일등병    군번 2902995**

이봉열 일등병은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금마면(金馬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봉열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22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용 (李 鳳 鎔) 육군 이등중사 군번 6601333**

이봉용 이등중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소달면(所達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봉용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제 (李 鳳 堤) 육군 일등중사 군번 8100100**

이봉제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구산면(龜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영덕 등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봉제 일등중사는 경상남·북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1일 영덕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준 (李 鳳 俊) 육군 일등병 군번 5500507**

이봉준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구미면(龜尾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용진읍내 용진중학교에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여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봉준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진 (李 鳳 振)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982**

이봉진 이등상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봉진 이등상사는 김상호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3일 울전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3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학 (李 奉 鶴)    경찰 경사

이봉학 경사는 1919년 7월 16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곡성면(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20:00시에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및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장교들과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일부 하사관들은 사살하고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수시내를 장악한 반란군은 10월 20일 09:30시경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던 2개 중대를 합류시킨 후 17:00시경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였다. 그후 일부 병력은 광양, 벌교, 보성, 고흥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봉학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여수경찰서를 습격해온 반란군

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6-1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현 (李 逢 顯) 육군 일등병 군번 6122478**

이봉현 일등병은 경기도 남양주군(南楊州郡) 화도면(和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하였다. 사단은 제7연대를 청주에, 제8연대를 춘천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13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이봉현 일등병은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봉 협 (李 奉 協) 경찰 경사**

이봉협 경사는 1922년 5월 13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정읍면(井邑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남한내 남로당지하조직은 요인암살, 경찰관서 습격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면서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좌익계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입산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봉협 경사는 장성경찰서를 습격해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사 영 (李 四 永) 육군 일등중사 군번 5703027

이사영 일등중사는 1927년 7월 13일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이천면(利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 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사영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사 준 (李 仕 濬) 경찰 경사

이사준 경사는 1927년 5월 17일 함경남도 이원군(利原郡) 남송면(南松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별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사준 경사는 보성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삼 만 (李 三 萬) 육군 하사 군번 1100971

이삼만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장흥면(長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연대본부를 연촌으로 이동한 후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삼만 하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1-23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삼 봉 (李 三 峯)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24263

이삼봉 이등중사는 1931년 3월 15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하여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삼봉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삼 봉 (李 三 峯) 육군 일등병 군번 0343099

이삼봉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언양면(彦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삼봉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삼 석 (李 三 碩)      경찰    경사

이삼석 경사는 1932년 2월 20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시종면(始終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빈번히 출몰하여 경찰관 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삼석 경사는 영암군 금정면 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11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삼 철 (李 三 喆)      육군    일등중사    군번 2801248

이삼철 일등중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2개 대대가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

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웅진지역으로 이동,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삼철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2일 경상남도 하동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7-19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결 (李 相 傑)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4266

이상결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대소면(大所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흥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 인민유격대 5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결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국 (李 相 國) 육군 이등병 군번 0331910

이상국 이등병은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명석면(鳴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1월 25일 여수·순천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연대 전 병력을 여수로 출동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12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전라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국 이등병은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5-0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규 (李 相 奎) 육군 하사 군번 1206080

이상규 하사는 경기도 용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甕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규 하사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 후 1949년 1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



院)에 위패번호 28-5-15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규 (李 相 珪) 육군 일등병 군번 3700750

이상규 일등병은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옥계면(玉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상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근 (李 相 根) 육군 하사 군번 8108842

이상근 하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남사면(南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제3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청도, 영일,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

으며 제23연대는 1949년 8월 11일부터 1950년 3월 27일 사이에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및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육군총참모장(소장, 채병덕)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이상근 하사는 경상남도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근 (李 相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207771

이상근 일등병은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가락면(駕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화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이들 화기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지원하였다.

이상근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근 (李 相 根)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3599

이상근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영인면(靈仁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량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는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탈환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2대대는 6월 17일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 일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그후 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근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7-1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기 (李 相 基) 육군 중위 군번 11384

이상기 중위는 1927년 3월 10일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해평면(海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6기로 입교하여 1948년 7월 28일 소위로 임관되어 제5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여단은 1948년 4월 29일 제3, 제4, 제9연대를 기간으로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에서 창설된 후 6월 18일 여단편성을 완료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육군본부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를 설치하고 제2여단(여단장 원용덕 대령)과 제5여단(여단장 김백일 대령)을 투입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이상기 중위는 반란발생 당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득작업을 시도하다가 반란군들에 의해 현장에서 피살되었다. 이때 반란군에게 피살된 장교는 제14연대 예하 3개 대대장을 비롯하여 연대정보주임, 작전주임, 이상

기 소위 등 20여명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1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대 (李 相 大)    경찰 경사

이상대 경사는 1925년 10월 23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금정면(金井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상대 경사는 담양군 월산지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도 (李 相 道)    육군 일등병    군번 0145938

이상도 일등병은 1931년 10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읍(慶州邑) 내동리(內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

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13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에 적을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상도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화천지역에서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림 (李 相 林) 육군 일등중사 군번 1602935

이상림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매전면(梅田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읍으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연대는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에 투입,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UN고지 및 292고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연대는 동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고,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사단예비가 되었다.

이상림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만 (李 相 萬)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27

이상만 이등병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되어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여러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만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만 (李 相 萬)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3283

이상만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화평동(花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2개 대대가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웅진지역으로 이동, 연대에 합류하였다.

이상만 이등중사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8-17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묵 (李 相 默) 육군 일등중사 군번 2301752

이상묵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망상면(望祥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상묵 일등중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문 (李 相 文) 육군 이등병 군번 0340690

이상문 이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하상면(下廂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상문 이등병은 경상북도지역항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4-08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복 (李 相 福) 육군 일등병 군번 2902019

이상복 일등병은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북방면(北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이상복 일등병은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복 (李 相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36354

이상복 일등병은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장낙면(長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홍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5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복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4-21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석 (李 相 石)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83

이상석 일등병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동탄면(東灘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에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석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선 (李 相 善)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0872

이상선 이등상사는 1929년 1월 13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유구면(維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甕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선 이등상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수 (李 商 秀)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1355

이상수 일등중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공근면(公根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수 일등중사는 공작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

다가 1949년 8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08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열 (李相烈) 육군 일등병 군번 0338227

이상열 일등병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영종면(永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되었다. 사단 예하 제11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지역전투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사봉 일대를 탈환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상열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옥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23

이상옥 이등병은 1929년 9월 1일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현내면(縣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되어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

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여러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옥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우 (李 相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57047

이상우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태평동(太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13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에 적을 격퇴시켰다.

이상우 일등병은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우 (李 相 雨) 육군 일등병 군번 2600665

이상우 일등병은 충청북도 진천군(鎭川郡) 진천면(鎭川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에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우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운 (李 相 雲)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5150

이상운 이등중사는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신동면(新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홍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5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운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응 (李 像 雄) 육군 일등병 군번 8800672

이상응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자인면(慈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하여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 5월 1일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응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유 (李 相 有) 육군 이등중사 군번 8100353

이상유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신등면(新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영덕 등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이상유 이등중사는 경상남도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

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윤 (李 相 允) 육군 일등병 군번 0307049

이상윤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구 흥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5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윤 일등병은 홍천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율 (李 相 律) 육군 일등병 군번 1603197

이상율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지행면(只杏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A중대를 창설한 후 1948년 6월 15일 3개 대대로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연대는 동년 7월 10

일 전찬우 중위 이하 830명이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하였으며, 8월 14 일에는 김도영(金道榮) 대위 이하 350명이 추가로 제주도로 출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48년 11월 2일 연대인사선임하사 곽종진(郭鍾振) 특무상사가 주동이 되어 제1차 반란을 일으켰고, 제2차 반란은 동년 12월 6일 제6연대 제1대대 인사계 이동백 일등상사가 주동이 되어 일으켰으며, 제3차 반란은 1949년 1월 30일 제6연대 제2대대 재무선임하사가 곽종진, 이정택 등과 공모하여 일으켰다. 이 반란을 계기로 제6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개편되었다.

이상준 일등병은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2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준 (李 相 俊) 육군 이등병 군번 0333039

이상준 이등병은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산성면(山城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2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상준 일등병은 경상북도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1-0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준 (李 相 俊) 육군 일등병 군번 1602665

이상준 일등병은 192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연일면(延日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A중대를 창설한 후 1948년 6월 15일 3개 대대로 연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연대는 동년 7월 10일 전찬우 중위 이하 830명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하였으며, 8월 14일에는 김도영(金道榮) 대위 이하 350명이 추가로 제주도로 출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48년 11월 2일 연대 인사선임하사 곽종진(郭鍾振) 특무상사가 주동이 되어 제1차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 40여명은 지방폭도들과 합세하여 칠곡, 동명, 가산경찰서를 습격하고 김천으로 진출한 후 김천주둔 1개 중대와 합류에 실패하고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다.

이상준 일등병은 이 대구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7-20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진 (李 相 珍) 육군 일등중사 군번 2900259

이상진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내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상진 일등중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진 (李 相 珍) 경찰 경감

이상진 경감은 1924년 8월 2일 전라남도 여수시(麗水市) 서교동(西橋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20:00시에 약 2개 대대 병력을 선동 및 협박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장교들과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일부 하사관들을 사살하고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여수시내를 장악한 반란군은 10월 20일 09:30시경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던 2개 중대를 합류시킨 후 당일 17:00시경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였다. 그후 일부 병력은 광양, 벌교, 보성, 고흥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상진 경감은 순천경찰서를 습격해온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8-0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진 (李 相 鎭)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8517

이상진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진영면(進永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여 경상북도 안동(安東)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상진 일등중사는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찬 (李 相 讚) 육군 일등병 군번 2902785

이상찬 일등병은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계룡면(鷄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상찬 일등병은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9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찬 (李 相 贊) 육군 일등병 군번 1200984

이상찬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甕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20일 홍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예속되었다.

이상찬 일등병은 양평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철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1505817

이상철 하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진영면(進永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여 경상북도 안동(安東)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상철 하사는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6-11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춘 (李相春) 육군 일등병 군번 0347242

이상춘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광도면(光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여 경상북도 안동(安東)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상춘 일등병은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태 (李 相 太) 육군 일등중사 군번 5200471

이상태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서상면(西上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제2여단에 편입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연대는 10월 20일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동년 11월 30일까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상태 일등중사는 순천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필 (李尙弼)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19

이상필 일등병은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면(水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양민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상필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헌 (李相憲) 육군 일등병 군번 0341805

이상헌 일등병은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돈암동(敦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제3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경상북도 포항, 청도, 영일,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23연대는 1949년 8월 11일부터 1950년 3월 27일 사이에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및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육군총참모장(소장, 채병덕)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그후 사단은 영남지구전투사령부작명 제38호(1950. 3. 27)에 의거 공비토

별작전을 종료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교육훈련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헌 일등병은 영남지구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호 (李 相 浩)    육군 일등병    군번 2202197**

이상호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상호 일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9일 강원도 정선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06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호 (李 相 浩)    육군 일등병    군번 0334836**

이상호 일등병은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내장면(內藏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



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상호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대구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호 (李 相 鎬) 육군 이등병 군번 2205629

이상호 이등병은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고한면(古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상호 이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화 (李 相 華) 육군 이등병 군번 0328818

이상화 이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13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흥천군 신남면 부평리를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흥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에 적을 격퇴시켰다.

이상화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2-0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환 (李 相 煥) 육군 이등병 군번 1201241

이상환 이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명륜동(明倫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웅진(襄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50년 6월 20일 제6사단으로 예속변경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상환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훈 (李 相 焄) 육군 일등병 군번 0401955

이상훈 일등병은 1929년 4월 25일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내남면(內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상훈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상 희 (李 相 喜) 육군 이등병 군번 9201016

이상희 이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동숭동(東崇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포병단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에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상희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균 (李 錫 均) 육군 이등상사 군번 6800933

이석균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곡강면(曲江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부로 영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영남지구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석균 이등상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6-0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동 (李 石 東)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2874

이석동 이등중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봉서면(鳳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49년 1월 23일 대전으로 이동하였다가 동년 6월 10일 서울시 서빙고로 이동하여 제7사단에 예속되었다. 연대는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1개 대대를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석동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복 (李 錫 福)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543

이석복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감곡면(甘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로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

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석복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봉 (李 石 奉) 육군 하사 군번 8103138**

이석봉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대신동(東大新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赫赫한 전과를 올렸다.

이석봉 하사는 경상남도지역항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순 (李 錫 順) 경찰 경사**

이석순 경사는 1926년 7월 29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동면(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

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석순 경사는 곡성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3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우 (李 石 雨) 육군 일등병 군번 8203911

이석우 일등병은 1928년 3월 20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우전면(雨田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석우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원 (李 錫 原) 육군 일등병 군번 2605490

이석원 일등병은 1925년 4월 20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남이면(南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및 울진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석원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원 (李 錫 源) 육군 이등상사 군번 1501419

이석원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이 지휘하여 경상북도 안동(安東)지역에 출동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이석원 이등상사는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3일 울진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



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0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익 (李 奭 益) 육군 중위 군번 15813

이석익 중위는 평안남도 용강군(龍岡郡) 양곡면(陽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9기로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석익 중위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1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주 (李 錫 柱) 육군 이등병 군번 5501850

이석주 이등병은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북방면(北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용진읍내 용진중학교에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여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였다.

이석주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호 (李 錫 鎬) 육군 일등상사 군번 1101224

이석호 일등상사는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하왕십리(下往十里)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석호 일등상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석 훈 (李 碩 勛) 육군 이등병 군번 0346549

이석훈 이등병은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문의면(文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제2여단에 편입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연대는 10월 20일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동년 11월 30일까지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5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웅진지구 전투에 참가한 후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하여 사단예비연대로서 문산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2일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석훈 이등병은 문산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 번호 19-5-01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각 (李 善 珪) 육군 일등병 군번 0325758

이선각 일등병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청운면(靑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는 제2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탈환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2대대는 1949년 6월 17일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 일대를 탈환하는 전

공을 세웠다. 그후 연대는 1949년 6월 1일 연대본부를 수색에서 문산으로 이동한 후 고랑포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선각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규 (李 善 奎) 육군 일등상사 군번 1502239

이선규 일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 4월까지 오대산, 황병산 일대에서 김상호(金尙昊)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선규 일등상사는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영 (李 善 永) 경찰 경사

이선영 경사는 1927년 2월 3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선영 경사는 청송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우 (李 善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23427

이선우 일등병은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동년 7월 5일내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제1대대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선우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형 (李 善 炯) 육군 이등중사 군번 5302997

이선형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삼향면(三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호남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이선형 이등중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환 (李 善 煥) 육군 일등병 군번 1109409

이선환 일등병은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상왕십리(上往十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이선환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선 희 (李 先 熙) 육군 일등병 군번 9376270

이선희 일등병은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태안면(泰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경찰관서습격, 우익인사학살 및 양민납치,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에서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선희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군 (李 成 君) 육군 하사 군번 5102469

이성군 하사는 경기도 용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하여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 5월 1일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성군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규 (李 星 圭) 육군 일등병 군번 1103298

이성규 일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수송동(壽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연대본부를 연촌으로 이동한 후 1949년 5월 23일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성규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규 (李 星 圭)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2970

이성규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봉양면(鳳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2, 제3, 제4연대를 기반으로 제2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949년 4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지리산, 보성, 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14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안동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성규 일등중사는 경상북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근 (李 聖 根) 육군 일등병 군번 2901679

이성근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로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켜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에도 연대는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성근 일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길 (李 成 吉) 육군 이등병 군번 2701623

이성길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5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1월 25일 여수·순천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연대 전병력을 여수로 출동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12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여수지역항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2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성길 이등병은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5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

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24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득 (李 成 得) 육군 일등중사 군번 1602574

이성득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되었다. 사단 예하 제11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지역전투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상봉 일대를 탈환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성득 일등중사는 이 기간 중 반격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묵 (李 聖 默) 육군 하사 군번 2803912

이성묵 하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내장면(內藏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2개 대대가 1949년 9월 24일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용진지역으로 이동, 연대에 합류하였다. 연대는 1950년 3월 1일

부로 육군본부 직할 독립연대로 되었다.

이성묵 하사는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01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문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339435

이성문 일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대방동(大方洞)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성문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7-19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석 (李 性 錫) 육군 일등병 군번 8200711

이성석 일등병은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구항면(龜項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50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의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여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성석 일등병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30일 안동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연 (李 聲 淵)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958

이성연 이등중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공근면(公根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성연 이등중사는 홍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

(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0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오 (李 聖 五)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55

이성오 일등병은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백사면(栢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차 용진(甕津)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11월 16일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성오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우 (李 成 雨)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0919

이성우 일등상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의당면(儀堂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

은 전과를 올렸다.

이성우 일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13-5243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우 (李 聖 雨) 육군 이등병 군번 2501940

이성우 이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내호면(內湖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량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는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탈환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2대대는 6월 17일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작산(鵲山) 일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성우 이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우 (李 聲 雨) 육군 중위 군번 16079

이성우 중위는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백사면(栢沙面)에서 태어나 육군 사관학교 제9기로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성우 중위는 이호제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6-2457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윤 (李 成 潤)      육군 이등병      군번 0333953

이성윤 이등병은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매포면(梅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무렵 제천, 단양지역에 북한인민유격대가 침투하자 예하대대를 투입하여 12월 2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7연대 제2대대는 제8연대로부터 일부 병력을 증원받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역 흥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500여 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성윤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4-10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인 (李 聖 仁) 육군 이등중사 군번 1900575

이성인 이등중사는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동년 9월 5일 경기도 용진(甕津)지구로 이동하였다.

이성인 이등중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3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1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재 (李 聖 宰) 육군 하사 군번 8201603

이성재 하사는 1931년 5월 20일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서산면(瑞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예하 1개 대



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50년 1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외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성재 하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조 (李 聖 祚) 육군 이등병 군번 0378069

이성조 이등병은 1932년 6월 11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읍(光州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되었다. 사단 예하 제11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지역전투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사봉 일대를 탈환하였다.

이성조 이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준 (李 聖 俊) 경찰 경사

이성준 경사는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그후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납치 및 식량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성준 경사는 벌교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8년 12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중 (李 性 仲) 육군 일등병 군번 0325487

이성중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태평면(太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용진읍내 용진중학교에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용진지구전투를 수행하여 탈취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성중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6-2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찬 (李 聖 贊) 경찰 경사

이성찬 경사는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면(和順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습격, 양민학살 및 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성찬 경사는 담양군 남면 망월리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48년 12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표 (李 星 杓) 육군 일등상사 군번 1700782

이성표 일등상사는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화산면(花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제7연대(-)는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682고지를 탈취하였다.

이성표 일등상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2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필 (李 星 畢) 육군 하사 군번 8201603

이성필 하사는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인지면(仁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주력부대로 참전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성필 하사는 연대가 일월산, 문수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던 중, 1949년 12월 9일 방산동리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현 (李 成 鉉) 경찰 경사

이성현 경사는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청풍면(淸豊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성현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

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 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현 (李 聖 鉉)      육군 일등병   군번 0341533**

이성현 일등병은 제주도 북군(北郡) 애월읍(涯月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남도 진해에 위치한 제3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이 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 교육을 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성현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성 호 (李 聖 湖)     육군 일등병   군번 0160404**

이성호 일등병은 1931년 10월 21일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성내동(城內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여수로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다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소탕작전을 계속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이성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전사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세 묵 (李 世 默)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5226

이세묵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1949년 8월 13일 웅진반도로 이동하여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던 기간 중, 10월 14일 05: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해오자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였다.

그후, 제2연대는 11월 15일 작전임무를 마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세묵 이등상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세 봉 (李世奉) 육군 이등상사 군번 1158011

이세봉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안계면(安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세봉 이등상사는 이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전사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세 순 (李世淳) 육군 일등병 군번 0182612

이세순 일등병은 경기도 여주군(麗州郡) 금사면(金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 후, 호남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1949년 9월 28일 육군본부는 각 지역에서 준동하던 지방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자 이에 제15연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세순 일등병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후,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세 형 (李 世 炯) 육군 일등병 군번 0175898

이세형 일등병의 출신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원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안동지구 일대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세형 일등병은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전사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규 (李 洙 珪) 육군 일등병 군번 0347215

이수규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근 (李 壽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63883

이수근 일등병은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신안면(新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수근 일등병은 이 작전기간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근 (李 壽 根) 경찰 경사

이수근 경사는 1921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수근 경사는 여수지역 일대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만 (李 壽 萬) 육군 하사 군번 1202087

이수만 하사는 1929년 4월 5일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광석면(光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 일대의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수만 하사는 웅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만 (李 壽 萬) 육군 하사 군번 0336144

이수만 하사는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이원면(伊院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만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만 (李 數 萬)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2087

이수만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광석면(光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었으며,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진압작전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개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후, 1948년 12월 1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경기도 용진반도로 이동,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만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범 (李 守 範) 육군 소령 군번 15284

이수범 소령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13일 1개대대가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 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1949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 후, 1949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전

개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다.

이수범 소령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1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복 (李 守 福) 육군 하사 군번 1300460**

이수복 하사는 1925년 4월 11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구리읍(九里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복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봉 (李 守 奉) 경찰 경사**

이수봉 경사는 1926년 8월 20일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시천면(矢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진주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당시의 공산분자들은 경찰을 그들의 적으로 삼아 기회만 있으면 경찰관을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

였으며,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수봉 경사는 진주 일대를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2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봉 (李 秀 鳳) 경찰 경위

이수봉 경위는 1929년 8월 24일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시천면(矢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진주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수봉 경위는 여수지역 일대의 평정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봉 (李 秀 鳳)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42

이수봉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백석면(白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5월 4일부로 제2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8사단에 예속된 후, 1950년 5월 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수봉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철 (李 秀 喆) 육군 일등병 군번 0400692**

이수철 일등병은 1931년 5월 20일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양북면(陽北面)에서 태어나,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철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한 (李 樹 漢) 육군 일등병 군번 0340752**

이수한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읍(慶州邑) 도동동(道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으며, 이 훈련학교는 105밀리 포와 57밀리 무반동총의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수한 일등병은 경상북도북부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행 (李 受 行) 육군 일등병 군번 0338238

이수행 일등병은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손불면(孫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수행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형 (李 守 炯) 경찰 순경

이수형 순경은 1928년 3월 28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금산면(錦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전투경찰대는 육군과 합동으로 5개월간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경찰대는 잔여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수형 순경은 지역내의 치안유지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일 장흥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호 (李 守 鎬) 육군 일등병 군번 1606243

이수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제3차로 오대산 일대에 인민유격대를 침투시켰으나 38도선에서 국군에 포착되어 대부분 격멸되었으며, 잔여병력들은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수호 일등병은 오대산 일대에서 실시된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2일 삼척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2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환 (李 壽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4685

이수환 이등중사는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아현동(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지구와 웅진지구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군은 1949년 6월 12일 약 200명의 병력으로 사직리를 공격하였으나 이러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 제1연대가 2개 중대를 매복시켰다가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이수환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07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환 (李 守 煥)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수환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상남동(上南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직할부대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 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이수환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수 희 (李 秀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6800801

이수희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남산동(南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수희 이등중사는 경상북도지방 일대에서 실시한 공비토벌작전기간 중, 1948년 11월 18일 경상북도 영천군 보현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6-02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희 (李 舜 熙)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51

이순희 일등병은 1911년 3월 8일 서울시 용산(龍山)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5일 서울시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순희 일등병은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

13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남 (李 順 男) 육군 일등중사 군번 1303855**

이순남 일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구이면(九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그리고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 포위작전, 쾌관산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터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순남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1일 전라북도 장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 38820(1950. 12. 10)을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범 (李 順 範)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036**

이순범 이등상사의 본적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개하여 여수·순천지역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순범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식 (李 順 植)      경찰    경사

이순식 경사는 1933년 4월 16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문평면(文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들은 1949년 9월 28일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군·경합동작전으로 대부분 소탕되었으며,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경찰대는 잔여공비 소탕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순식 경사는 구례군 간전면 일대를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용 (李 順 龍)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73372

이순용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평화동(平和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병력이 여수로 출동하여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5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은거지를 습격하는 등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다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전과를 획득하였다.

이순용 이등중사는 지리산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재 (李 順 在) 육군 일등병 군번 7900542

이순재 일등병은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소원면(所遠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오던 중,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활동이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서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일대에서 1950년 3월 15

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순재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3일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조 (李 順 祚)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561**

이순조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용진 일대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제2차 용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이순조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천 (李 順 川)      육군 일등병   군번 0323602**

이순천 일등병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옥천면(玉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용진지역 일대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

지 전개한 제1·제2차 웅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이순천 일등병은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서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순 해 (李 順 海)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1830

이순해 이등중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삼척읍(三陟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여단 예하 1개 중대 병력이 서림방면으로 공격하고,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순해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3-2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규 (李 承 奎) 육군 하사 군번 9300683

이승규 하사는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의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이승규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근 (李 昇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32418

이승근 일등병은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북면(七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사건에 참전 후, 12월 5일까지 남원·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대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1949년 8월 13일 웅진반도로 이동하여 동년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0월 14일 05: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함에 따라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제2연대는 이들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그후, 제2연대는 11월 15일 작전임무를 마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승근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6-252번으로 봉안



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기 (李 承 琪)      경찰 경사

이승기 경사는 1924년 8월 10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각남면(角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남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사회의 혼란을 조성시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하에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고 있었다.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일대의 무명고지에 무장공비들이 잠복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급히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들과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승기 경사는 이 전투에서 1949년 8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목 (李 承 睦)      육군 일등상사      군번 1103439

이승목 일등상사는 1925년 3월 21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승목 일등상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선 (李 承 善)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7049

이승선 이등중사는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비봉면(飛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승선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열 (李 承 烈) 경찰 경사

이승열 경사는 1931년 3월 5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이면(北二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전라남도 경찰국은 1949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작전으로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승열 경사는 지역내의 경비강화를 위하여 출동 중, 공비들의 기습을

받아 영광군 묘량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옥 (李 承 玉)    육군 일등병    군번 0324263**

이승옥 일등병은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청성면(靑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승옥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윤 (李 承 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456**

이승윤 이등중사는 1920년 5월 28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유곡면(柳谷面) 계화리(桂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제2차 용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을 탈환하였다.

이승윤 이등중사는 제1차 용진지구전투(1949. 5. 21~1949. 6. 29)에서 1949년 6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

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승 주 (李 承 周) 육군 일등병 군번 0378781

이승주 일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봉서면(鳳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승주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시 구 (李 詩 求)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3172

이시구 이등상사는 1928년 4월 17일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송악면(松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1949년 8월 13일 용진반도로 이동하여 동년 10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05: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해오자,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이시구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시 봉 (李 時 鳳)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41

이시봉 이등병은 1927년 9월 15일 서울시 용산구(龍山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15일 서울 영등포에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이시봉 이등병은 대유격 및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6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시 우 (李 時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23870

이시우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서노동(西老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전개된 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에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시우 일등병은 인민유격대 및 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시 우 (李 時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0325515

이시우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용산면(龍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사단 전병력이 출동하여 반란군을 소탕하였으며,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4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시우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시 형 (李 時 亨) 육군 일등병 군번 0347626

이시형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태평동(太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이시형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0-2-26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신 구 (李 愼 九) 육군 일등병 군번 1806073

이신구 일등병은 황해도 용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 홍천, 원주 지역 일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1949년 8월 12일 제6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40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신구 일등병은 제6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신 호 (李 愼 鎬) 육군 일등병 군번 5104742

이신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아포면(牙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신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

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심 기 (李 心 基) 육군 이등중사 군번 6701514

이심기 이등중사는 1931년 3월 15일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부적면(夫赤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심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쌍 몽 (李 雙 夢) 육군 일등병 군번 0345886

이쌍몽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자산동(茲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여수로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쌍몽 일등병은 호남지역 일대의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9



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9-2-2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기 (李 養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63238

이양기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읍(扶安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웅진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제1차 공격(1949. 5. 21~1949. 6. 29)은 북한군의 38경비대인 제3여단이 1949년 5월 21일 문산정면에 위치한 국사봉 일대의 한국군 제12연대의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제12연대는 제3대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양기 일등병은 제1차 웅진지역전투에서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봉 (李 陽 奉) 육군 이등중사 군번 9500818

이양봉 일등병은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용산면(龍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양봉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선 (李 良 善) 경찰 경위

이양선 경위의 본적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연안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북한군 약 20명은 1948년 1월 4일 04:30경에 38도선을 침범하여 연안경찰서 장곡지서를 습격함에 따라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양선 경위는 장곡지서를 습격한 북한군과 교전 중, 1948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순 (李 良 順) 경찰 경사

이양순 경사는 1920년 5월 28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돌산면(突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양순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

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양 하 (李 陽 夏) 육군 일등병 군번 0325428**

이양하 일등병은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공도면(孔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의 웅진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 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양하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0-6-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업 동 (李 業 同) 육군 이등상사 군번 5303208**

이업동 이등상사는 1928년 4월 27일 전라남도 무안군(茂安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대전·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

지구공비토벌작전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지서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한 후, 복귀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업동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일대의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업 용 (李 業 龍) 육군 일등병 군번 8200375

이업용 일등병은 전라북도 이리군(裡里郡) 모현면(慕顯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3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의 주력부대로 참전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업용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5일 경상북도 영덕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연 구 (李 淵 九) 육군 이등중사 군번 0249038

이연구 이등중사는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실촌면(實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

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지서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한 후, 복귀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연구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일대의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연 성 (李 淵 成)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0829

이연성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선화동(宣化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주력부대로 참전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연성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3일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53-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연 준 (李 連 俊) 경찰 경사

이연준 경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

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노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연준 경사는 보성 일대까지 진출한 반란군의 잔여병력소탕작전 기간 중, 1948년 12월 17일 보성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연 호 (李 演 鎬)      경찰    경위

이연호 경위는 1922년 5월 5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진상면(津上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노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연호 경위는 구례군 봉서면 일대까지 진출한 반란군과 교전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염 복 (李 廉 福)      육군    이등상사    군번 2300614

이염복 이등상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관동(官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1949년 5월 12

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이 38도선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1949년 5월 3일 한국군의 진지 구축 방해와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송악산과 배천 일대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292고지, 유엔고지, 비둘기고지)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모두 탈환하였다.

이영복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곤 (李 永 坤) 육군 일등병 군번 5204693**

이영곤 일등병은 1929년 12월 3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동산면(東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곤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두 (李 永 斗) 육군 일등병 군번 0334808**

이영두 일등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에서 준동 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영두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7-0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삼 (李 英 三) 경찰 경위

이영삼 경위는 1927년 4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茂安郡) 청계면(淸溪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광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영삼 경위는 반란군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5일 백운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



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섭 (李 永 燮) 육군 이등병 군번 7905321

이영섭 이등병은 황해도 수안군(遂安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섭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수 (李 永 洙) 육군 하사 군번 9986017

이영수 하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1925년 3월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수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수 (李 永 壽) 육군 하사 군번 2604468

이영수 하사는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봉양면(鳳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대전·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지서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영수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수 (李 永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707065

이영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봉산동(鳳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48번으로 봉

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수 (李 穎 洙)    경찰    경사

이영수 경사는 1922년 1월 20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고경면(古鏡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대구에서 박헌영 일당에 의하여 조종되었던 1946년 9월 총파업의 연장으로 공산당 세력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좌익세력들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주, 칠곡, 고령, 영천, 경산, 의성, 군위지역 일대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각 지역의 경찰서 등을 습격하면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영수 경사는 폭동진압작전 기간 중, 영천군 신령면 일대에서 1946년 10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식 (李 營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6579

이영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남산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식 (李 營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6579

이영식 일등병은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대전면(大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4연대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0일 개칭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영식 일등병은 호남지구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5-1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우 (李 永 佑) 육군 일등병 군번 0360627

이영우 일등병은 1921년 1월 4일 충청북도 중원군(中原郡) 소태면(蘇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

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익 (李 榮 益)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0119**

이영익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주력부대로 참전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영익 이등중사는 연대가 일월산, 문수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인 (李 永 仁)      육군 이등중사   군번 9259884**

이영인 이등중사는 1931년 2월 18일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인 이등중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주 (李 永 周) 육군 하사 군번 2702860

이영주 하사는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송지면(松旨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여수로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영주 하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8-0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주 (李 永 周) 경찰 경위

이영주 경위는 1924년 6월 17일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덕산면(德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충주경찰서에 복무하였다.

충주군 동량면 금장리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은 살인, 방화,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영주 경위는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교전 중, 1949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8-0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주 (李 永 住)    경찰 경사

이영주 경사는 1924년 8월 8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군동면(郡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영주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2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준 (李 永 俊)    육군 이등상사    군번 1900694

이영준 이등상사는 평안남도 평원군(平原郡) 검산면(檢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었으며,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진압작전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개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 후, 제주도로 이동하여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영준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1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진 (李 英 鎭)      경찰 경위

이영진 경위는 1923년 6월 15일 경상북도 점촌군(店村郡) 점촌읍(店村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점촌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준동중이던 인민유격대와 지방 공비들은 수시로 부락을 기습공격하여 살인, 방화, 약탈, 주민납치 및 살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영준 경위는 문경경찰서를 습격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5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찬 (李 英 燦)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1537

이영찬 이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준동중이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영찬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안동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철 (李 永 喆)      경찰 순경

이영철 순경은 1927년 4월 30일 전라북도 진안군(鎭安郡) 진안읍(鎭安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장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중이던 무장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전투경찰대는 육군과 합동으로 5개월간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경찰은 잔여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공비소탕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영철 순경은 장수군 계북면 일대를 침입한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택 (李 英 澤)      육군 일등병 군번 0402185

이영택 일등병은 1924년 7월 10일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방화, 약탈,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이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영택 일등병은 이 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5-1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표 (李 永 杓) 경찰 경사

이영표 경사는 1923년 2월 12일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가곡면(佳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단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공산 격렬분자들은 경찰을 적으로 삼아 기회만 있으면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영표 경사는 단양군 매폐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서를 전소시킨 무장 공비들과 교전 중, 1946년 10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호 (李 永 浩) 육군 일등병 군번 1605282

이영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성동(城東)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되어, 1948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 대대 규모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연대장 지휘하에 1개 대대 규모가 함양방면으로 출동하여 반란군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연대내의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나자, 이들에 대한 진압작전에 전개되었다.

이영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 일대까지 진출한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21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호 (李 永 浩)      경찰 경감

이영호 경감은 1925년 9월 9일 황해도 벽성군(碧城郡) 라덕면(羅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폭동사건이 발생하자,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각 도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지원병력 1,700명은 제주 경찰과 합동으로 한라산 일대에서 거점을 이루고 있던 공비들을 공격하여 320여명의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폭동진압 후, 경찰은 군부대와 합동으로 무장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1월 4일부터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영호 경감은 북제주군 애월면 고산리 일대에서 50여명의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1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 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화 (李 榮 華)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5126

이영화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천안읍(天安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화 이등중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영 화 (李 永 華) 육군 하사 군번 1900915

이영화 하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영화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옥 용 (李 玉 龍) 육군 이등중사 군번 6602128

이옥용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읍(和順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옥용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3-200번으로 봉

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완 상 (李 完 相)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004

이완상 일등중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현저동(峴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이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완상 일등중사는 이 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3-20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완 섭 (李 完 燮) 육군 일등병 군번 1300859

이완섭 일등병은 1922년 1월 27일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교하면(交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향토방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완섭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48년 12월 10일 전사하였

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완 식 (李 完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44407**

이완식 일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외속리면(外俗離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용진 일대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 2차 용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만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3-1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완 웅 (李 完 雄)     육군 하사    군번 0120341**

이완웅 하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내당동(內唐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 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대되어가자 이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에 전라북도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

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예하에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완웅 하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왈 수 (李 曰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402843

이왈수 일등병은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아현동(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왈수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왕 진 (李 旺 珍) 경찰 경사

이왕진 경사는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양림동(楊林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별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별교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계속되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왕진 경사는 보성 일대에 침입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외 조 (李 外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147843

이외조 일등병은 1932년 8월 1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남산면(南山面) 안심(安心)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역 일대에 준동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중이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외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외 학 (李 外 鶴) 육군 특무상사 군번 1603101

이외학 특무상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외학 특무상사는 이 작전 기간 중, 1948년 5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갑 (李 勇 甲) 육군 일등병 군번 0346110

이용갑 일등병은 경상남도 협천군(陜川郡) 초계면(草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갑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걸 (李 龍 杰) 육군 일등병 군번 9256758

이용걸 일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5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광 (李 龍 光)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6604

이용광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州面)에서 태어

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호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여병력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패관산전투에 참전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되어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터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용광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구 (李 龍 九)      경찰    경감

이용구 경감은 1917년 7월 15일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지곡면(池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거창 일대에서 준동중이던 지방공비들과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용구 경감은 경찰서를 습격한 약 100여명의 폭도들과 교전 중, 1949년 8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국 (李 龍 國) 육군 하사 군번 0329359

이용국 하사는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구성면(龜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내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으며, 1949년 8월 30일 부터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용국 하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권 (李 容 權) 육군 일등병 군번 0402099

이용권 일등병은 1929년 3월 15일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군(南原郡) 덕과면(德果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권 일등병은 이 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

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5-0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남 (李 龍 南)      경찰 경사

이용남 경사는 1920년 5월 25일 함경북도 청진(淸津) 신암동(新岩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사찰과에서 복무하였다.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각 지방에서 폭동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시키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각 지방에서 테러 및 전복활동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용남 경사는 경기도 김포군 문수산 일대에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문 (李 鏞 文)      경찰 순경

이용문 순경은 1920년 8월 19일 경기도 여주군(麗州郡) 북내면(北內面)에서 태어나, 경기도경찰국 안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소 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38도선을 설정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38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 탐색과 남한내의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력도발을 수시로 자행하였다.

이용문 순경은 황해도 장단 일대의 전선(電線)경비에 임하고 있던 중, 지역내를 침입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문 (李 龍 文)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41965

이용문 이등중사의 출신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이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문 이등중사는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문 (李 龍 文) 경찰 경사

이용문 경사는 1927년 4월 4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소양면(所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9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용문 경사는 반란군 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19일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

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배 (李 用 培)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5495

이용배 이등중사는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명륜동(明倫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배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1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수 (李 容 洙) 경찰 경위

이용수 경위는 1921년 7월 1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상남면(上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이 당시 각 지방에서 은거하면서 활동중이던 공비들은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및 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용수 경위는 거제군 장승포 일대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납치 등을 자행중이던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3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순 (李用順) 육군 이등중사 군번 0337891

이용순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금구면(金溝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9년 4월까지 춘천·홍천지역 일대에서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용순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식 (李用植) 경찰 경위

이용식 경위는 1924년 1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淸州市) 남주동(南州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괴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들의 세력이 확대되어 각 지방에서 살인, 방화, 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었다.

이용식 경위는 괴산군 감물면 에원리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6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안 (李 容 安) 육군 일등병 군번 0343519

이용안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귀산면(貴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으며, 이 훈련학교는 105밀리 포와 57밀리 무반동총의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들의 세력이 확대되어 각 지방에서 살인, 방화, 약탈,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안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연 (李 容 連) 육군 일등병 군번 0334472

이용연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음성읍(陰城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 지구공비토벌작전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지서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용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옥 (李 龍 玉)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403

이용옥 일등중사는 1923년 8월 21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동면(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이래 춘천, 홍천, 원주지역 일대에서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 중,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용연 일등병은 태백산지구인민유격대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옥 (李 龍 玉) 육군 일등중사 군번 : 미상

이용옥 일등중사는 1926년 8월 23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옥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우 (李 容 祐) 육군 일등병 군번 0343752

이용우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성남면(城南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7교육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우 (李 用 友) 육군 소위 군번 223283

이용우 소위는 강원도 춘천시(春川市) 소양동(昭陽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동년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용우 소위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5월 4일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8-1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운 (李 龍 雲) 육군 일등병 군번 8200353

이용운 일등병은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계룡면(鷄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 이하 64명이 전사하였다.

이용운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재 (李 睿 宰) 경찰 순경

이용재 순경은 1931년 8월 13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하남면(河南面) 장덕리(長德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장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 합동으로 반란군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그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잔여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호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부지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준동하였다.

이용재 순경은 장성군 삼서면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재 (李 龍 載) 육군 일등병 군번 9711453

이용재 일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에 위치한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용재 일등병은 잔여공비 및 인민유격대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조 (李 龍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29008

이용조 일등병은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명석면(鳴石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경비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포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훈련을 교육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용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주 (李 龍 住)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0703

이용주 이등중사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준동중이던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용주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 및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준 (李 容 俊)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0985

이용준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울진군(蔚珍郡) 근남면(近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9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들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용준 일등중사는 오대산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동(東) 2-2083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철 (李 容 澈) 육군 중위 군번 13552

이용철 중위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사건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대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31일까지의 제주지구 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까지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용철 중위는 제3차 웅진지구전투(1949. 10. 14~1949. 11. 15) 기간 중, 1949년 10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동(東) 2-2083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춘 (李 容 春) 경찰 경위

이용춘 경위는 1924년 3월 10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득량면(得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모든 경찰서는 재정비를 가진 후,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용춘 경위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5월 9일 보성군 검백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출 (李 用 出) 육군 일등병 군번 3700832

이용출 일등병은 1926년 5월 25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미탄면(美灘面) 울치리(栗峙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고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이용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5-13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하 (李 龍 夏)    경찰    경사

이용하 경사는 1924년 9월 7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영광읍(靈光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으로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용하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2일 영광군 불갑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하 (李 龍 河)    육군    일등병    군번 0339928

이용하 일등병은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용하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학 (李 龍 學) 육군 하사 군번 1704554**

이용학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하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호 (李 容 浩) 육군 일등병 군번 1206153**

이용호 일등병은 1930년 7월 7일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간석동(間石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호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16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호 (李 瑢 鎬) 경찰 경사

이용호 경사는 1925년 2월 28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겸백면(兼百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남로당의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용호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환 (李 容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3200

이용환 이등중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북한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흥천군지역에 제4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용환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환 (李 龍 煥) 육군 하사 군번 8200887**

이용환 하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유천동(柳川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50년 1월부터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정종근(鄭鍾根)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였다.

이용환 하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일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용 희 (李 龍 熙) 육군 이등병 군번 6325948**

이용희 이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 마지리(馬智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용희 이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69-8-1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병 (李 雨 炳)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677

이우병 이등중사는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 홍천, 원주 지역 일대에서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 중, 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우병 이등중사는 1949년 11월 6일 제9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잔당들의 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2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섭 (李 愚 燮) 육군 일등병 군번 0327928

이우섭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우섭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순 (李 右 淳) 육군 이등병 군번 0327299

이우순 이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월배면(月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4월 25일부터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우순 이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5-0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용 (李 雨 龍) 육군 중위 군번 14159

이우용 중위의 본적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7월 2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들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우용 중위는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은 (李 愚 銀)      경찰    경사

이우은 경사는 1929년 1월 13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해보면(海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함평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공비들의 잔당이 준동하기 시작하자 1948년 11월부터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우은 경사는 함평군 해보면 일대를 침입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익 (李 愚 益)      육군    일등병    군번 0339724

이우익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동인동(東仁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우익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종 술 (李又鍾述) 경찰 경위

이우종술 경위는 1923년 5월 9일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월영동(月影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창영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일부 좌익분자들은 각 지방에서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살인, 방화, 납치를 자행하였다.

이우종술 경위는 경상남도 창원군 선소면 일대에 출현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8-09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우 현 (李 禹 鉉) 육군 이등상사 군번 1602751

이우현 이등상사는 1929년 7월 1일 경상북도 예천군(禮泉郡) 개포면(開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우현 이등상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7-2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운 근 (李 雲 根) 육군 이등병 군번 0344615

이운근 이등병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운근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4-07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운 덕 (李 雲 德) 육군 이등병 군번 0149187

이운덕 이등병은 1924년 1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신길동(新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운덕 이등병은 영남지구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갑 (李元甲) 경찰 경위

이원갑 경위는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 온천동(溫泉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수사과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원갑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고 평정작전지원 기간 중, 1948년 1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노 (李元魯) 육군 이등병 군번 1808532

이원노 이등병의 본적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원노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봉 (李源鳳) 육군 하사 군번 2902392

이원봉 하사는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군내면(郡內面)에서 태어나, 육군

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용진 일대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제2차 용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이원봉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상 (李 元 相) 육군 일등병 군번 0333707

이원상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매전면(梅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경상북도 대구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포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훈련을 교육하였다.

전국 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원상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석 (李 源 錫) 육군 일등병 군번 6802478

이원석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내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으며, 1949년 8월 30일부터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원석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식 (李 元 植) 경찰 경사

이원식 경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원식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고 평정작전지원 기간 중, 1948년 12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식 (李元植) 육군 일등상사 군번 1106087

이원식 일등상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월면(海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원식 일등상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21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우 (李元雨) 육군 이등병 군번 0345133

이원우 이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육군본부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이원우 이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6-0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재 (李 元 宰) 육군 하사 군번 12202177

이원재 하사는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합덕면(合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의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원재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주 (李 元 柱) 육군 일등병 군번 1136782

이원주 일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방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헌병,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원주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창 (李元昌) 육군 일등병 군번 0200454

이원창 일등병은 1925년 4월 27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 연상리(淵上里)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군진압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반란군의 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원창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공비잔당들을 소탕하던 기간 중, 1950년 4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하 (李元夏) 육군 일등병 군번 2503135

이원하 일등병은 1927년 1월 5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가평읍(加平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원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원 호 (李 源 孝) 육군 하사 군번 2900392**

이원호 하사는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군내면(郡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또한,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제18연대는 동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원호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유 복 (李 有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222638**

이유복 일등병은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정동면(正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1일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들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유복 일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유 석 (李 裕 石) 육군 일등중사 군번 1004194

이유석 일등중사는 전라북도 무주군(茂州郡) 적상면(赤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한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고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이유석 일등중사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유 춘 (李 裕 春) 육군 하사 군번 1202355

이유춘 하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광천읍(廣川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대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유춘 하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윤 암 (李 允 岩) 육군 일등병 군번 5304595

이윤암 일등병은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황산면(黃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는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윤암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윤 재 (李 潤 在) 육군 이등병 군번 0333979

이윤재 이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마로면(馬老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3대대는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괴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윤재 이등병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4-13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윤 호 (李 允 浩) 육군 일등병 군번 5304595

이윤호 일등병은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황산면(黃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이윤호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윤 호 (李 尹 浩)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3913

이윤호 일등중사는 1929년 5월 8일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동면(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에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윤호 일등중사는 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고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윤 희 (李 允 禧) 경찰 경위

이윤희 경위는 1923년 12월 5일 황해도 해주시(海州市) 중동(中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청단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더불어 한반도에는 미·소양군이 진주함에 따라 38도선이 설정되었으며, 북한군은 남한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이윤희 경위는 38도선 충돌사건에 참전하여 북한군과 교전 중, 1949년 7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규 (李 殷 奎) 경찰 경사

이은규 경사는 1923년 3월 30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 복무하였다.

고흥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공비들의 잔당들이 준동하자 1948년 11월부터 지역내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은규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공비들의 기습을 받아 1948년 1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상 (李 殷 相)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3839

이은상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옥천군(玉川郡) 안남면(安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작전에 참전한후, 12월 5일까지 남원·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대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은상 일등중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49년 6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18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수 (李 殷 壽)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2658

이은수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사곡면(寺谷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대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은수 이등중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경비작전을 수행 하던 기간 중, 1949년 8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0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영 (李 殷 英)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4491

이은영 이등중사는 서울시 중구(中區) 중림동(中林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에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은영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3-21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용 (李 殷 龍)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4511

이은용 이등중사는 1930년 3월 10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의당면(儀堂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은용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 기간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2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우 (李 殷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155809

이은우 일등병은 1929년 9월 20일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산북면(山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

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동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 침투 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은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2일 체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택 (李 恩 澤) 육군 일등병 군번 0341863**

이은택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신령면(新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은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은 학 (李 銀 學) 육군 이등병 군번 5202675**

이은학 이등병은 1928년 7월 27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임천면(林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

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웅진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제1차공격(1949. 5. 21~6. 29)은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대인 제3여단이 1949년 5월 21일 문산정면에 위치한 한국군 제12연대의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제12연대는 제3대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북한군은 다시 국사봉에서 비파리에 이르는 한국군의 경계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서경리 일대까지 진출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한국군(제12, 제13(-), 제18연대)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38도선부근에 위치한 두락산과 작산을 탈환하고 38도선 이북 700m 지점에 위치한 은파산까지 진출하였다.

이은학 일등병은 웅진지구 공방전 기간 중, 1949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18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응 문 (李 應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333375

이응문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창군(居昌郡) 남산면(南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응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경 (李 儀 慶) 육군 이등병 군번 2900382

이의경 이등병은 1930년 9월 15일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의경 이등병은 웅진지구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봉 (李 義 奉)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4975

이의봉 이등중사는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7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지구와 웅진지구에서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

로운 무력도발을 유발하였다.

북한군은 1949년 6월 13일 약 200여명의 병력으로 사직리를 공격하였으며, 이러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 국군 제1연대가 2개 중대를 매복시켰다가 인민군을 격멸하였으며, 38도선경비작전은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이의봉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순 (李 儀 淳) 육군 이등병 군번 0603477**

이의순 이등병은 1930년 6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의순 이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식 (李 義 式) 육군 일등중사 군번 8200530**

이의식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의당면(儀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 대위 등 64명이 전사하였다.

이의식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9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석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연 (李 義 淵)      경찰 경위

이의연 경위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별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의연 경위는 여수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던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의 조 (李 義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41334

이의조 일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초동면(初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울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의조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주력부대를 격멸하고 잔여부대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익 규 (李 益 奎)      경찰 경사

이익규 경사는 1914년 11월 16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저전동(褚田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0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익규 경사는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갑 (李 仁 甲)      경찰 경사

이인갑 경사는 1912년 2월 25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해남읍(海南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해남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해남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방공비들이 각 지역에서 출몰

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주민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인갑 경사는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13일 해남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결 (李寅杰) 육군 일등병 군번 0401919

이인결 일등병은 1930년 5월 10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명동(大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납치 및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인결 일등병은 1947년 6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4-13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복 (李仁馥) 육군 하사 군번 2902727

이인복 하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

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복 하사는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섭 (李 仁 燮)    경찰    경위

이인섭 경위는 1928년 7월 15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봉강면(鳳岡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섭 경위는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구례군 용방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섭 (李 仁 燮)    경찰    경사

이인섭 경사는 전라남도 구례군(九禮郡) 산동면(山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인섭 경사는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구례군 용방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섭 (李仁燮)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3589

이인섭 이등중사는 1929년 4월 3일 충청북도 옥천군(玉川郡) 청산면(靑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탈취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한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고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이인섭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28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수 (李 仁 洙) 육군 이등병 군번 0337846

이인수 이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상모면(上茅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수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2-0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숙 (李 仁 淑) 육군 소위 군번 206246

이인숙 소위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숙 소위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8-1-17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숙 (李 仁 淑) 육군 일등병 군번 9100104

이인숙 일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숙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승 (李 仁 承) 육군 일등병 군번 0331935

이인승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현저동(峴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터 동년 4월말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인승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실 (李寅實) 육군 일등중사 군번 8500329

이인실 일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실 일등중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기간 중 1949년 1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옥 (李仁玉) 경찰 경위

이인옥 경위는 1922년 2월 4일 전라북도 진안군(鎭安郡) 진안읍(鎭安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좌익세력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였다.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각도 경찰국에서 파견된 지원병력 1,700명은 제주경찰과 합동으로 한라산에서 거점을 형성하고 있던 공비들을 공격하여 320여명의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인옥 경위는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부락을 습격한 무장공비 250명과 교전 중 1949년 5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우 (李 仁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149339

이인우 일등병은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트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인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재 (李 仁 載) 육군 일등중사 군번 2802924

이인재 일등중사는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호법면(戶法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서울시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제3차 용진지구전투(1949. 10. 14~1949. 11. 15)에 참전하였다.

이인재 일등중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 기간 중 1949년 11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종 (李 仁 宗) 육군 일등병 군번 0154980

이인종 일등병은 1930년 9월 24일 태어났으나 출신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인종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형 (李 仁 炯) 육군 일등병 군번 0217783

이인형 일등병은 1936년 6월 28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광도면(光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

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또한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제18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인형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수행 기간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호 (李 仁 鎬) 육군 이등병 군번 2102222

이인호 이등병은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합정동(合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인호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2-0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호 (李仁鎬) 육군 일등중사 군번 0100606

이인호 일등중사는 1929년 8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고전면(古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인호 일등중사는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희 (李仁熙) 해병 하사 군번 9100186

이인희 하사는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고아면(高牙面)에서 태어나 해병대에 입대하여 김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김동하 소령이 지휘하던 제주주둔 해병대대의 모슬포주력부대는 한라산 일대에 은거 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5일 제1기 토벌작전을 전개, 이들의 근거지를 향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제1기 작전을 6월말까지 계속하였다.

이인희 하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4-0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인 희 (李 仁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385079

이인희 일등병은 함경남도 흥남읍(興南邑) 수동리(水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제1여단 예하의 수색대로 창설되어 동년 12월 10일에 연대로 승격되었으며,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가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출동하여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전 장병이 일제급씩 특진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웅진지구로 출동하여 까치산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어 수도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인희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근 (李 一 根) 육군 일등병 군번 9709761

이일근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중앙동(中央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일근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만 (李 一 萬) 육군 일등병 군번 0383611

이일만 일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서면(西面) 안보리(安保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의 도로이남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일만 일등병은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4-11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성 (李 日 性) 육군 일등병 군번 0212575

이일성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귀산동(貴山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문산지구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대를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용진지구전투를 전개하였다.

이일성 일등병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순 (李 一 淳) 경찰 경사

이일순 경사는 1921년 1월 1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비봉면(飛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일순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재 (한자미상) 경찰 경사

이일재 경사는 1924년 8월 9일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 동산면(東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일재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일 호 (李 日 鎬) 육군 이등병 군번 8100858

이일호 이등병은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정촌면(井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들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예하의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일호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임 성 (李 任 成) 육군 이등상사 군번 1606028

이임성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와룡면(臥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임성 이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임 환 (李 任 煥) 육군 일등병 군번 1109152

이임환 일등병은 1931년 5월 10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산외면(山外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임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자 윤 (李 子 允) 경찰 경사

이자윤 경사는 1926년 10월 19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점안면(占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여수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윤 경사는 평정작전지원 기간에 잔여반란군들과 교전 중 1948년 12월 27일 순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

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7-5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장 범 (李 長 範) 육군 일등병 군번 2902379

이장범 일등병은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이태원(梨泰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원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피탈되었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장범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장 복 (李 長 福) 육군 중위 군번 15130

이장복 중위의 본적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

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장복 중위는 이 작전 기간 중 1949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0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장 수 (李 長 水) 육군 일등병 군번 0388456

이장수 일등병은 1930년 2월 5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화동면(化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이장수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8-2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장 우 (李 長 雨) 육군 일등병 군번 5702185

이장우 일등병은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양화면(良化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장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8-2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경 (李 載 慶) 경찰 경사

이재경 경사는 1927년 3월 29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송정리(松汀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모든 경찰서는 재정비를 가진 후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시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

이재경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2월 7일 영광군 군남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구 (李 在 球) 육군 이등병 군번 0345787

이재구 이등병은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연곡면(連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구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9-2-1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국 (李 在 國) 육군 이등병 군번 6602106

이재국 이등병은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소달면(所達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명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재국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권 (李宰權) 경찰 경사

이재권 경사는 1925년 2월 17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현산면(顯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구례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재권 경사는 반란군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규 (李在奎) 육군 이등병 군번 0329136

이재규 이등병은 강원도 영월군(寧越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 후 호남지역 및 지리산 일대에서 출몰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수차에 걸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몰 중이



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제15연대를 투입하여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재규 이등병은 제5사단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전라남도 광주로 복귀하여 호남지역 일대의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3-0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규 (李 在 奎)    경찰    경사

이재규 경사는 1930년 6월 15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학산면(鶴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모든 경찰서는 재정비를 마친 후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시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

이재규 경사는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2월 7일 영광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규 (李 在 奎)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439

이재규 이등중사는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쌍상면(雙上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에 2개 대대를 다시 증파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재규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1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균 (李 在 均) 육군 이등병 군번 0331957

이재균 이등병은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하장면(下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재균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5-09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균 (李 在 根) 육군 하사 군번 : 미상

이재균 하사는 1929년 9월 7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균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8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균 (李 在 根) 육군 하사 군번 1803287

이재균 하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동(芳林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장공비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제6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재근 하사는 잔여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덕 (한자미상) 경찰 경위

이재덕 경위는 1925년 4월 27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연풍면(延豐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충주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당시 각 지방에서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여 남한을 전복시켜 공산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하에 각 지방에서 살인, 약탈, 방화, 주민납치 및 관공서 등을 습격하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재덕 경위는 공산분자들과 교전 중 1949년 1월 16일 충청북도 제천군 화산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2-2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명 (李 在 明) 육군 이등병 군번 0324382

이재명 이등병은 경기도 여주군(麗州郡) 금사면(金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8사단은 제10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8도선경비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북의 오대산 및 태백산 동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재명 이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2-2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문 (李 在 文) 육군 하사 군번 1106793

이재문 하사는 황해도 개풍군(開豐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명산, 중봉산, 계명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재문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2-2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문 (李 在 文) 육군 일등중사 군번 8200486

이재문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장항면(長項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 이하 64명이 전사하였다.

제25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재문 일등중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3일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석 (李 在 石) 경찰 경사

이재석 경사는 1920년 1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학동(鶴洞)에

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당시의 공산분자들은 경찰을 그들의 적으로 삼아 기회만 있으면 경찰관을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재석 경사는 화순 일대를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5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석 (李 在 碩) 육군 일등병 군번 0332519

이재석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운암면(雲岩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후 복귀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석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섭 (李 在 燮) 육군 일등중사 군번 2802732

이재섭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지역내 잔여공비들의 보급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제3대대는 전라북도 남원에 주둔하면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1950년 1월 2일까지 전개 후 복귀하였다.

한편, 연대의 주력은 1949년 11월 21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재섭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성 (李 在 成) 육군 이등병 군번 9771474

이재성 이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성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성 (李 在 星) 육군 일등상사 군번 1700139

이재성 일등상사는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 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재성 일등상사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지역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11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정 (李 在 貞) 육군 일등병 군번 0341451

이재정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검단동(檢丹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재정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수 (李 在 秀) 육군 일등병 군번 3100670

이재수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재수 일등병은 이 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4-02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순 (李 載 淳) 육군 일등병 군번 2906721

이재순 일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순 일등병은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8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술 (李 在 述) 육군 이등병 군번 5305547

이재술 이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 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잔여공비소탕작전을 계속 하였다.

이재술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5-2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식 (李 在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612243

이재식 일등병은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금광면(金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의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일대로 공격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 200여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제1연대는 1950년 6월 14일까지 의정부~동두천간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 및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식 (李 在 植) 육군 하사 군번 0740034

이재식 하사는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용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이재식 하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신 (李 載 信) 육군 일등병 군번 0605348

이재신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신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억 (李 在 憶) 육군 하사 군번 2202168

이재억 하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평창읍(平昌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서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억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9일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연 (李 在 淵) 육군 중위 군번 12990

이재연 중위는 1920년 5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신길동(新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연 중위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08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옥 (李 在 玉)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1401

이재옥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충주군(忠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옥 일등중사는 태백산지역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23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용 (李 在 龍)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3606

이재용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노성면(魯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사건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재용 일등중사는 용진지구전투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용 (李 載 龍) 육군 하사 군번 :미상

이재용 하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노성면(魯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용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원 (李 載 源) 육군 일등병 군번 0329639

이재원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원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원 (李 載 源) 육군 일등병 군번 0329639

이재원 일등병은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 기장면(機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 후 호남지역 및 지리산 일대에 출몰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수차에 걸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몰 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제15연대를 투입하여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재원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은 (李 在 殷) 육군 하사 군번 2004776

이재은 하사는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강내면(江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일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의 주력을 격멸하는 다대한 전과를 올렸다.



이재은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2-2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익 (李 在 益) 육군 하사 군번 2960375

이재익 하사는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소흘면(蘇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익 하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1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준 (李 在 俊) 육군 소위 군번 223281

이재준 소위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준 소위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8-16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준 (李 在 俊) 육군 이등병 군번 0326278

이재준 이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미금읍(湑金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재준 이등병은 이 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1-1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철 (李 在 哲) 육군 일등병 군번 0342376

이재철 일등병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평읍(楊平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3연대는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로 제2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탈환작전을 전개한 후 6월 17일  
에는 은파산에 이어 6월 22일에는 까치산을 탈환한 후 1949년 7월 5일 인  
천으로 철수하여 문산으로 복귀하였다.

이재철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철 (李 載 喆)      육군 일등병    군번 8200302**

이재철 일등병은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강경읍(江景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였다.

그후 제25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이재철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6-4-014번으로 봉안  
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  
고 있다.

## **이 재 춘 (李 在 春)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0555**

이재춘 일등상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광석면(光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그 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재춘 일등상사는 제3차 용진지구전투(1949. 10. 14~1949. 11. 15) 기간 중 1949년 10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필 (李 在 必)      경찰 경사

이재필 경사는 1926년 1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일노읍(一老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군과 합동작전으로 9일만에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재필 경사는 영광군 군남면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4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하 (李在河) 육군 일등병 군번 0322207

이재하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으며, 이 훈련학교는 105밀리 포와 57밀리 무반동총의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면학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재하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혁 (李在赫) 육군 대위 군번 12948

이재혁 대위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응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응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응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이재혁 대위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0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호 (李 再 浩) 육군 이등병 군번 0326257

이재호 이등병은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창수면(蒼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호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1-1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흥 (李 在 洪) 경찰 경위

이재흥 경위는 1918년 2월 1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덕진면(德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에 의하여 진압되자 일부 반란군과 지방공비들은 백운산 및 지리산으로 도피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인근 경찰서와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는가 하면 살인, 납치,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1949년 3월 1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이재홍 경위는 1949년 4월 4일 장수군 변암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홍 (李 在 洪)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2494

이재홍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진안군(鎭安郡) 동향면(銅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제12연대는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웅진지구 국사봉 일대로 공격해오자 이를 저지격퇴하기 위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6월 30일에는 아군진지를 확보하는 전승을 거두었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인천에서 문산으로 이동한 후 38도선경비임무와 치안을 유지하다가 1950년 4월 12일 다시 개성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재홍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1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화 (李 載 化)    경찰    경사

이재화 경사는 1929년 3월 18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신광면(新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재화 경사는 반란군들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환 (李 在 煥)    육군    하사    군번 0172907

이재환 하사는 1930년 6월 20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재환 하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재 희 (李 在 禧)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2333

이재희 이등상사는 1924년 8월 10일 충청북도 제원군(堤原郡) 한수면(寒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재희 이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전 상 (李 典 相)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724

이전상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금남면(錦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

행한 후 9월 5일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전상 이등상사는 용진지구전투 기간 중 1949년 9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점 수 (李 点 洙) 육군 하사 군번 0629859

이점수 하사는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읍(伐橋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점수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서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점 호 (李 點 鎬) 육군 일등병 군번 0347521

이점호 일등병은 전라남도 무주군(茂朱郡) 무주읍(茂朱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은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점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갑 (李 正 甲) 육군 이등상사 군번 1104082

이정갑 이등상사는 1923년 6월 23일 서울시 수표동(水標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갑 이등상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곤 (李 正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44256

이정곤 일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삼랑진읍(三浪津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정곤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규 (李 廷 圭) 경찰 경위

이정규 경위는 1927년 2월 14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임계면(臨溪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봉화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봉화경찰서는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6연대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태백산맥 일대로 도주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 각 지방의 좌익분자들이 흡수된 대규모의 공비들이 태백산, 문수산, 일원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관공서 습격 등 각종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자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정규 경위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봉화군 일대에 출현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근 (李 廷 根) 육군 이등병 군번 0320224

이정근 이등병은 1930년 8월 3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용진면(龍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

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정근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8-0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근 (李 正 根)      육군 이등병   군번 0337333**

이정근 이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가창면(嘉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잔여공비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정근 이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고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원대로 복귀한 후,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8-0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동 (李 貞 同)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52442**

이정동 이등중사는 1927년 1월 15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읍

(扶安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동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량 (李 正 亮) 육군 하사 군번 2800931

이정량 하사는 1924년 3월 7일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신양면(新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활동하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서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작전에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정량 하사는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부 (李 正 夫)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4081

이정부 이등중사는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조리면(條理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부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석 (李 正 石) 육군 일등병 군번 6800195

이정석 일등병은 1930년 9월 8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상주읍(尙州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석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17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세 (李 正 世) 육군 일등병 군번 0327550

이정세 일등병은 강원도 원성군(原城郡) 문막면(文幕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에 준동하던 무장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세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수 (李 正 洙) 육군 하사 군번 9317545

이정수 하사는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 안남면(安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5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 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정수 하사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30일까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수 (李 貞 守)      경찰 경사

이정수 경사는 1917년 12월 3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담양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공비의 잔당이 준동하자 1948년 11월부터 지역내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정수 경사는 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2월 28일 담양군 월산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순 (李 貞 順)      육군 일등중사      군번 8202798

이정순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신양면(新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순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0일 전사하였

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식 (李 井 植)    경찰    경위

이정식 경위는 1924년 6월 10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두원면(豆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정식 경위는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식 (李 廷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8509

이정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예천군(禮泉郡) 예천읍(禮泉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안 (李 旻 安) 육군 일등병 군번 0363758

이정안 일등병은 경상남도 진양군(晉陽郡) 금산면(琴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안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1-1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우 (李 正 雨) 육군 일등병 군번 8800385

이정우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강동면(江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정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의 (李 正 議) 육군 이등중사 군번 0747577

이정의 이등중사는 1930년 2월 25일 전라남도 목포시(木浦市) 중앙동(中央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의 이등중사는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주 (李 正 柱) 육군 중위 군번 11690

이정주 중위는 1923년 3월 17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는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하였다.

이정주 중위는 공비토벌작전 지원 기간 중 1948년 1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 12월 30일에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무공훈장 11178을 수여하였다.

## 이 정 준 (李 廷 俊)    경찰    경사

이정준 경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별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정준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고 평정작전지원 기간 중 1948년 1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진 (李 正 鎭)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18

이정진 일등병은 경기도 수원시(水原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교육을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정진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

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혁 (李 正 赫) 육군 일등병 군번 0348181

이정혁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미금읍(湊金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정혁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호 (李 廷 鎬) 경찰 경사

이정호 경사는 1929년 9월 8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청리면(靑里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점촌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점촌경찰서는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본부 및 포항 파견부대에서 일부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나자 이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활동중인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이정호 경사는 문경군 산북면 노루고개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9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

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홍 (李 正 洪) 육군 하사 군번 1109607

이정홍 하사는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정홍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희 (李 廷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336282

이정희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등천면(柳等川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정희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정 희 (李 正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50033

이정희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이면(北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정희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제 민 (李 濟 民) 육군 이등병 군번 0340263

이제민 이등병은 충청남도 보령군(保寧郡) 주산면(珠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 일대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제민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8-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제 하 (李 濟 夏)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4306

이제하 일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제하 일등중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2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조 진 (李 組 珍) 육군 하사 군번 7900259

이조진 하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읍(江陵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명산, 중봉산, 계명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조진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5일 강릉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각 (李 鍾 珪)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1049

이종각 일등중사는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 일대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각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0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갑 (李 鍾 甲) 육군 이등상사 군번 2702423

이종갑 이등상사는 1927년 12월 24일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촌면(陽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갑 이등상사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경 (李 鍾 敬)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66

이종경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노곡동(魯谷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 일대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경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관 (李 鍾 寬)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984

이종관 이등상사는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마장동(馬場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경기도 용진지구로 이동하여 용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종관 이등상사는 용진지구전투 기간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0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국 (李 鍾 國) 육군 이등병 군번 0333245

이종국 이등병은 강원도 춘천시(春川市) 석사동(碩士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명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종국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1-20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근 (李 鍾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60256

이종근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청도읍(淸道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 준동하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 중이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종근 일등병은 태백산 및 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기 (李 鍾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60241

이종기 일등병은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수륜면(修倫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기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길 (李 鍾 吉) 육군 이등병 군번 1806267

이종길 이등병은 1929년 10월 27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금호동(琴湖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길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02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달 (李 鍾 達) 육군 일등병 군번 0328886

이종달 일등병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춘포면(春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대되어가자 육군 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1950년 3월 15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제15연대와 제19연대는 계속 잔여공비토벌임무를 1950년 4월 30일까지 수행하였다.

이종달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을 완료하고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대 (李 鍾 大)    육군 일등병    군번 0342718**

이종대 일등병은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군북면(郡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종대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덕 (李 鍾 德)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1517**

이종덕 이등상사는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마노면(馬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덕 이등상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록 (李 鍾 錄)    육군 중위    군번 12895**

이종록 중위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김해읍(金海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종록 중위는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0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른 (李 鍾 律)    육군 일등병    군번 0363413**

이종륜 일등병은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 상북면(上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률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린 (李 鍾 麟) 육군 하사 군번 0193206

이종린 하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린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만 (李 鍾 万) 육군 이등병 군번 2901353

이종만 이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금산면(金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제18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만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2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만 (李 鍾 根) 육군 일등병 군번 9703246

이종만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임고면(臨峯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중부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 대위외 64명이 전사하였다.

이종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만 (李 鍾 萬) 육군 하사 군번 0340237

이종만 하사는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두촌면(斗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만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만 (李 鍾 萬) 육군 일등병 군번 0174051

이종만 일등병은 1931년 4월 21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상동면(上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만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문 (李 鍾 文) 육군 일등병 군번 3101194

이종문 일등병은 1930년 1월 5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남사면(南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사관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육군사관학교는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사관학교가 개칭되어 계승되었으며, 군 전력증강 방침아래 우수자를 선발하여 군간부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종문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상 (李 鍾 祥) 육군 일등병 군번 0331844

이종상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대소면(大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상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성 (李 鍾 聲) 육군 하사 군번 9200407

이종성 하사는 1927년 3월 1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매송면(梅松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제5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제2사단에 예속된 후 1950년 2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성 하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소 (李 鍾 燒) 육군 이등병 군번 7900678

이종소 이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소 이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8-2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수 (李 鍾 守) 육군 일등병 군번 0227528

이종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사등면(沙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수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수 (李 鍾 洙) 육군 이등병 군번 0347368

이종수 이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황오동(皇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용산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웅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변경

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수행하였다.

이종수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0-2-01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수 (李 鍾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1337**

이종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풍기면(豊基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수 (李 鍾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169018**

이종수 일등병은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낙생면(樂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 후 호남지역 및 지리산 일대에 출몰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수차에 걸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몰 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종수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식 (李 鍾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841

이종식 이등중사는 강원도 원성군(原城郡) 신림면(新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의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식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2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암 (李 鍾 岩) 육군 일등병 군번 1702984

이종암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평동(新坪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암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연 (李 鍾 然) 육군 하사 군번 1304223

이종연 하사는 1923년 11월 1일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강진면(江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연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육군 하사 군번 5700704

이종열 하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열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8-1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0516

이종열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말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종열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육군 하사 군번 2800670

이종열 하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 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제1·제2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열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7-1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경찰 경위

이종열 경위는 1925년 12월 15일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하일면(下一面)에서 태어나 경상남도경찰국 총무과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종열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고 평정작전지원 기간 중 1949년 3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125996

이종열 일등병은 1923년 1월 22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구성면(龜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훈련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동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열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경찰 경사

이종열 경사는 1918년 7월 1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대마면(大馬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함평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종열 경사는 반란군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경찰 순경

이종열 순경은 1919년 3월 19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대마면(大馬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광산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종열 순경은 반란군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5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열 (李 鍾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327622

이종열 일등병은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열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오 (李 鍾 五)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55

이종오 일등병은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백사면(栢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종오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옥 (李 鍾 玉) 육군 일등중사 군번 5301478

이종옥 일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군진압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15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종욱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하여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완 (李 鍾 完) 육군 하사 군번 8101117

이종완 하사는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산내면(山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완 하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경상남도 밀양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용 (李 鍾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400412

이종용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서대신동(西大新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



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종용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용 (李 鍾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62951

이종용 일등병은 1930년 2월 4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종용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우 (李 鍾 宇) 육군 일등병 군번 5101483

이종우 일등병은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9연대는 오대산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종우 일등병은 북한인민군 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 번호 33-7-1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원 (李 宗 元)    육군 이등병    군번 0600676**

이종원 이등병은 1930년 8월 5일 경상북도 포항(浦項) 효곡동(孝谷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원 이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원 (李 鍾 元)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이종원 일등병은 1924년 9월 26일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영중면(永中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되어 1948년 8월 14일부터 약 2개 대대 규모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장 지휘하에 1개 대대 규모는 함양방면으로 출동하여 반란군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연대내의 좌익분자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자 이들에 대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종원 일등병은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9년 1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원 (李 鍾 元) 육군 일등병 군번 1100148

이종원 일등병은 1924년 9월 26일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후암동(厚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성·배천지구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적을 격퇴하고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제1사단은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용진지구 국사봉 일대를 공격하자 제12연대를 투입하여 방어하였으며, 이때 편성된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제12연대와 제13연대 2개 대대를 배속시켜 기타 배속부대와 함께 대대적인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동년 6월 30일까지 탈취당하였던 모든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이종원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원 (李 鍾 元) 육군 일등중사 군번 2500410

이종원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염치면(鹽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제13연대는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대를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용진지구전투를 전개한 후 38도선경비작전에 임하였다.

이종원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윤 (李 鍾 潤) 육군 일등병 군번 2500410

이종윤 일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증평읍(曾坪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제13연대는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대를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용진지구전투를 전개하였다.

이종윤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윤 (李 宗 潤) 육군 하사 군번 6600660

이종윤 하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제21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종윤 하사는 태백산지구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9일 삼척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3-25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윤 (李 鍾 潤)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1259

이종윤 이등중사는 1927년 3월 3일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신안면(新安面)에서 태어나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3연대는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를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응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응진지구전투를 전개하였다.

이종윤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6-08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이 (李 鍾 伊) 육군 일등병 군번 0176137

이종이 일등병은 1930년 10월 8일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안강읍(安康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이종이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인 (李 鍾 仁) 육군 일등병 군번 2604139

이종인 일등병은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종인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인 (李 鍾 仁)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60037

이종인 이등중사는 함경남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웅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제18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제3차 공방전(1949. 10. 14~11. 15)에서도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38도선은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종인 이등중사는 제3차 공방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5일 전사하였

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진 (李 宗 珍)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0381**

이종진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충장로(忠壯路)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9연대는 오대산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종진 이등중사는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6-2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철 (李 宗 喆)    육군 하사    군번 2901625**

이종철 하사는 경기도 용진군(襄津郡) 대청면(大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인



수하였다.

제18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38도선은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종철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철 (李 鍾 徹) 육군 일등병 군번 2503871**

이종철 일등병은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용두동(龍頭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철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탁 (李 鍾 卓) 육군 중위 군번 14168**

이종탁 중위는 황해도 단율군(段栗郡) 단율면(段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

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제8연대(-)는 8월 10일 600고지를 각각 탈환하여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고 38도선을 굳건히 지켰다.

이종택 중위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2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태 (李 鍾 泰) 육군 일등병 군번 5303319

이종태 일등병은 1925년 2월 17일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금산면(金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이종태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태 (李 鍾 泰) 육군 일등병 군번 6800924

이종태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달성동(達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종태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3일 경상북도 경주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6-0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태 (李 鍾 泰) 육군 일등병 군번 0348223

이종태 일등병은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돈암동(敦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

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이종태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택 (李 鍾 澤)      경찰    경사

이종택 경사는 1926년 3월 11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川郡) 매곡동(梅谷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별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종택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순천 일대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학 (李 鍾 學)      육군    이등병    군번 0322755

이종학 이등병은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동부읍(東部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0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준동하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이종학 이등병은 무장공비소탕작전을 완료하고 복귀한 후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5-05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학 (李 鍾 學) 육군 소령 군번 11177

이종학 소령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노량진동(鷺梁津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종학 소령은 공비토벌작전지원 기간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학 (李 鍾 鶴)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346

이종학 일등중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 이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 일대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또한 제8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학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한 (李 鍾 漢)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3343

이종한 이등중사는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고촌면(高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웅진지구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제3차 웅진지구전투(1949. 10. 14~11. 15)전투에 참전한 후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형 (李 宗 炯)      경찰    경사

이종형 경사는 1925년 12월 7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삼향면(三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해남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해남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이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종형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6일 해남군 옥천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화 (李 鍾 化)      육군    일등병    군번 0145513

이종화 일등병은 1927년 6월 1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복산동(福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종화 일등병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환 (李 鍾 煥)      육군    이등병    군번 0243702

이종환 이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육

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종환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환 (李 鍾 煥) 경찰 경사

이종환 경사는 1930년 7월 23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삼일읍(三日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종환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종 희 (李 鍾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6432

이종희 이등중사는 1930년 7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둔남면(屯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쾌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이종희 이등중사는 잔여공비들을 소탕하고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현 (李 柱 鉉) 경찰 경위

이주현 경위는 1931년 7월 15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연산동(蓮山洞)에서 태어나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이주현 경위는 지역내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2월 5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문 (李 珠 文)      경찰 경위

이주문 경위는 1926년 8월 20일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창선면(昌善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이주문 경위는 지역내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봉 (李 周 琫)      경찰 순경

이주봉 순경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보성경찰서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비들의 세력확장 저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주봉 순경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일 보성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영 (李 周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48686

이주영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楊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주영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학 (李 柱 鶴) 육군 일등병 군번 0605321

이주학 일등병은 함경남도(咸鏡南道)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시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주학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현 (李 周 鉉) 육군 일등중사 군번 : 미상

이주현 일등중사는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

어 위천,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주현 일등중사는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19일 경상남도 산청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06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현 (李 周 鉉) 육군 일등병 군번 1304867**

이주현 일등병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오산면(五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주현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호 (李 周 浩) 육군 이등병 군번 0339951**

이주호 이등병은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온양면(溫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주호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1-1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주 화 (李 柱 華)      경찰    경위

이주화 경위는 1928년 4월 10일 경상남도경찰국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 울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이주화 경위는 울산군 두서면 경주행 버스내에서 이곳을 침입한 무장공비 약 60명과 교전 중 1949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준 노 (李 俊 魯)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3819

이준노 이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해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웅진지구로 이동하여 웅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준노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수행 기간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0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준 문 (李 俊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321434

이준문 일등병은 1930년 9월 9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준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경 (李 重 京) 육군 일등병 군번 1307799

이중경 일등병은 1930년 1월 30일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내가면(內可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희,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이중경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하고 복귀한 후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3-08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래 (李 仲 來) 육군 일등병 군번 1306791

이중래 일등병은 1928년 2월 6일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중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선 (李 仲 善) 육군 이등병 군번 0324304

이중선 이등병은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촌면(陽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중선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2-19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식 (李 中 植) 육군 일등병 군번 2701422

이중식 일등병은 경상남도 진주군(晉州郡) 상봉동동(上鳳東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중식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2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현 (李 仲 鉉)    경찰    경사

이중현 경사는 1925년 5월 16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춘양면(春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구례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역 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중현 경사는 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중 호 (李 重 浩)    육군    중령    군번 11563

이중호 중령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현저동(峴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중호 중령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1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지 하 (李 至 夏)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1354

이지하 이등상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지하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지 홍 (李 池 洪) 경찰 경위

이지홍 경위는 1914년 1월 14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소라면(召羅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군 진압작전에 참전했던 이지홍 경위는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지 환 (李 智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141140**

이지환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용성면(龍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지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지 훈 (李 址 勳) 경찰 경감**

이지훈 경감은 1911년 3월 15일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고령읍(高靈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칠곡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대구에서 박헌영 일당에 의하여 조종되었던 1946년 9월 철도노조파업에 이어서 공산당 세력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주, 칠곡, 고령, 영천, 경산, 의성 및 군위 등지에서 수백 명 내지 수천명의 좌익세력이 각종 만행을 자행하며 각 지역 경찰서 등을 습격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지훈 경감은 칠곡경찰서내에서 폭도들과 교전 중 1946년 10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규 (李 鎭 珪)      경찰 경위

이진규 경위는 1923년 12월 27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온산면(溫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이진규 경위는 사회혼란을 틈타 준동하기 시작한 좌익분자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잠복근무 중 지역내로 침입한 무장공비 40여명과 교전 중 1949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규 (李 鎭 珪)      육군 일등병      군번 0385134

이진규 일등병은 함경남도 함흥시(咸興市) 신상리(新上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제1여단 예하의 수색대로 창설되어 12월 20일에 연대로 승격되었으며,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가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여 전

장병이 일제급씩 특진되었다.

그후 기갑연대는 1949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출동하여 까치산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진규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근 (李 振 根)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3493**

이진근 일등중사는 서울시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진근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2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근 (李 鎭 根)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3493**

이진근 이등상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진근 이등상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만 (李 鎭 萬)      육군 일등병    군번 8201780**

이진만 일등병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진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우 (李 珍 雨)      경찰    경사**

이진우 경사는 1919년 7월 7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별양면(別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임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진우 경사는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의 (李 珍 義)      경찰    경사

이진의 경사는 1928년 8월 14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용산면(蓉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장성경찰서는 무장공비들을 수색하기 위하여 출동,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이진의 경사는 척후조에 편성되어 임무수행 중 불의에 출현한 공비들에 납치되어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철 (李 振 喆)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0897

이진철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석교동(石橋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완료하고 1950년 1월부터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 대위 이하 64명이 전사하였다.

이진철 이등중사는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진 호 (李 振 浩)      경찰 경위

이진호 경위는 1927년 1월 13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평창읍(平昌邑)에서 태어나 강원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공비토벌작전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도지구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으며, 그후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가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준동하자 각 지역에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진호 경위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7월 7일 평창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차 갑 (李 次 甲)      육군 이등병      군번 9708218

이차갑 이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향촌동(香村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 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



사단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하였다.

이차갑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차 용 (李 次 龍)      경찰    경위

이차용 경위는 1929년 2월 6일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곤양면(昆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제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8·15해방 이후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각 지방에서 살인, 방화, 약탈 및 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차용 경위는 거제군 일운면 삼거리에 위치한 사자산전투에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9년 11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4-1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차 포 (李 且 浦)      육군    이등병    군번 6802281

이차포 이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진구(鎭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구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차포 이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잔여공비소탕작전기간 중 1950년 5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찬 영 (李 燦 永) 육군 이등병 군번 0322162

이찬영 이등병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단월면(丹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찬영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3-0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찬 옥 (李 燦 玉) 육군 일등병 군번 0306531

이찬옥 일등병은 제주도(濟州道) 일도동(一徒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구 등 경북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찬옥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찬 우 (李 燦 雨) 육군 일등병 군번 1205879

이찬우 일등병은 1924년 7월 1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읍(翰林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5일까지 육·해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찬우 일등병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

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1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찬 현 (李 瓚 鉉) 육군 이등병 군번 2202180

이찬현 이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 1개 중대 병력이 서림 방향으로 공격하고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완전히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반론산지역에서 김달삼부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북한군38경비대가 정족산을 공격하였을 때 반격작전으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이찬현 이등병은 태백산지구전투 기간 중 1950년 3월 31일 정선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0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귀 (李 昌 貴) 경찰 경사

이창귀 경사는 1922년 9월 9일 함경북도 청진(淸津) 신암동(新岩洞)에

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군위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군위경찰서는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6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태백산맥으로 도주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와 합류하고, 각 지방의 좌익분자들이 흡수된 대규모 병력의 공비가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특히 영덕, 안동지역에서 관공서습격 등 각종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자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창귀 경사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준동 중이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8일 군위군 효령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림 (李 昌 林)      경찰    경감

이창림 경감은 1917년 3월 6일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북청읍(北靑郡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8·15해방 이후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살인 및 납치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담양경찰서에서 복무했던 이창림 경감은 지역내 침입한 공산분자들과 교전 중 담양군 월산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서(西) 26-63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명 (李 昌 明) 육군 일등병 군번 1503087

이창명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한 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전개하여 향토방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명 일등병은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배 (李 昌 培) 육군 이등병 군번 01559048

이창배 이등병은 1932년 9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당산동(堂山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쾌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희,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

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터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전하였다.

이창배 이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동(東) 13-14460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복 (李 昌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39969**

이창복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의성읍(義城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복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섭 (李 昌 燮) 육군 이등병 군번 0324937**

이창섭 이등병은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일노읍(一老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 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1950년 3월 15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사단은 계속 잔여공비토벌임무를 1950년 4월 30일까지 전개하였다.

이창섭 이등병은 1950년 3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4-2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수 (李 昌 壽)    경찰    경사

이창수 경사는 1911년 12월 23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대신동(東大新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기도경찰국 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경기도경찰국은 개성 일대에 빈번히 출몰하여 살인,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을 자행하면서 이 지역 일대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이창수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중 공비들의 총탄에 맞아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수 (李 昌 洙)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86

이창수 이등병은 1927년 9월 23일 서울시 남대문구(南大門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 영덕 일대 등 여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창수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수 (李 昌 洙) 경찰 경사

이창수 경사는 1926년 10월 21일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서수면(瑞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완도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완도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비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창수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12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수 (李 昌 洙)      경찰 경사

이창수 경사는 1926년 10월 21일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서수면(瑞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 장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장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비토벌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창수 경사는 장성군 북하면 대능리 일대에 침입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1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식 (李 昌 植)      육군 소위 군번 16488

이창식 소위는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청량리(淸涼里)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반란군진압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반란군잔당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제15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창식 소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

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식 (李 昌 植) 육군 일등병 군번 9600614

이창식 일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내속리면(內俗離面) 북암리(北岩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해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이창식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열 (李 昌 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3387

이창열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김해군(金海郡) 김해읍(金海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창열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 이 창 용 (李 昌 龍)      경찰 경사

이창용 경사는 1928년 6월 15일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금화읍(金化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벌교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창용 경사는 반란군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2일 보성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우 (李 昌 雨) 육군 이등병 군번 0156114

이창우 이등병은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소보면(召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제21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창우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우 (李 昌 雨) 육군 하사 군번 1700531

이창우 하사는 1928년 11월 10일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적상면(赤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우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

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욱 (李 昌 郁) 육군 일등병 군번 9601114**

이창욱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영도동(影島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욱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운 (李 昌 雲) 육군 일등병 군번 2802805**

이창운 일등병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 준동하던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창운 일등병은 무장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8-10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현 (李 昌 鉉) 육군 일등병 군번 1702506

이창현 일등병은 1929년 1월 2일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보은읍(報恩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포병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창현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호 (李 昌 浩) 육군 일등중사 군번 8200182

이창호 일등중사의 본적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호 일등중사는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호 (李 昌 浩)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31635

이창호 이등중사는 1931년 7월 24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황산면(黃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호 이등중사는 오대산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호 (李 昌 鎬) 육군 일등병 군번 0143539

이창호 일등병은 전라북도 장수군(長水郡) 장수읍(長水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제1여단 예하의 수색대로 창설되어 동년 12월 10일에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기갑연대는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가 여수·순천 반란진압차 출동하여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전 장병이 일제급씩 특



진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용진지구로 출동하여 까치산전투에 참전한 후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창호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수행 기간 중 1950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창 화 (李 昌 華) 육군 이등병 군번 5205147

이창화 이등병은 전라북도 군산시(群山市) 명산동(明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창화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7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4-0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채 용 (李 采 鎔) 경찰 경감

이채용 경감은 1917년 3월 6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송정읍(松汀

은)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완도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완도경찰서에서도 지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강진군 마량면 대구리 일대에 출현하여 살인, 약탈, 방화 및 납치 등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채용 경감은 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채 호 (李 採 昊)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2104

이채호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복무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5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제2사단에 예속된 후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채호 일등중사는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1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수 (李 千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2222

이천수 일등중사는 1929년 4월 12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보병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육군보병학교는 1949년 7월 1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어 간부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천수 일등중사는 1950년 4월 15일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수 (李 千 洙) 경찰 경사

이천수 경사는 1928년 5월 10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겸백면(兼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보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50여 명의 병력과 절대 부족한 무기를 가지고 보성지역에 침입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여 공비들의 세력확장 저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천수 경사는 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5월 9일 보성군 겸백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식 (李 千 植) 육군 일등병 군번 1300675

이천식 일등병은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제기동(祭基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裡里邑)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쾌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천식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우 (李 千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32608

이천우 일등병은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함평읍(咸平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또한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천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우 (李 千 雨)      육군 이등병      군번 0326071**

이천우 이등병은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 연수동(連守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천우 이등병은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8-2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우 (李 天 雨)      육군 일등병      군번 0320694**

이천우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매전면(梅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천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천 일 (李 千 一)      경찰 경사

이천일 경사는 1924년 5월 19일 황해도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천일 경사는 순천지역 일대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근 (李 鐵 根)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0302

이철근 이등중사는 1929년 8월 12일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소흘면(蘇屹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근 이등중사는 경상남·북도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금 (李 喆 金)      경찰    경사

이철금 경사는 1916년 6월 2일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토지면(土旨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구례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역 내 침입하여 활동하던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철금 경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수 (李 哲 洙)      육군    하사    군번 1603021

이철수 하사는 1928년 5월 1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천동(新川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피탈된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수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수 (李 喆 洙) 경찰 경위

이철수 경위는 1925년 1월 16일 전라북도 이리시(裡里市) 창인동(昌仁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전라북도 일대에서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지방공비들은 각 지역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관공서 등을 습격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철수 경위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수 (李 鐵 洙) 육군 하사 군번 9703620

이철수 하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남산동(南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후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



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철수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영 (李 哲 榮)      육군 일등중사   군번 7902689**

이철영 일등중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영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우 (李 鐵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7101786**

이철우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서대신동(西大新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우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천 (李 鐵 千) 육군 일등병 군번 8101490

이철천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지례면(知禮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천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포 (李 哲 浦) 육군 하사 군번 0709014

이철포 하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포 하사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행 (李 哲 行)      경찰    경감

이철행 경감은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나산면(羅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철행 경감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호 (李 哲 浩)      육군    하사    군번 3700018

이철호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 용두동(龍頭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호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철 환 (李 哲 煥)      경찰    순경

이철환 순경은 1916년 5월 8일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신북청면(新北

靑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특경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철환 순경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청 용 (李 靑 龍) 육군 일등병 군번 1806090

이청용 일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당산동(堂山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14일부터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제8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청용 일등병은 잔여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20일 홍천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기 (李 春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33770

이춘기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구미면(龜尾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시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군·경합동 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전시켰다.

이춘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기 (李 春 基) 육군 하사 군번 6800480

이춘기 하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매전면(梅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춘기 하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23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모 (李 春 模) 육군 일등병 군번 3700828**

이춘모 일등병은 1931년 1월 20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미탄면(美灘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전국초기 지방의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살인, 약탈, 방화,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춘모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7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실 (李 春 實) 육군 일등병 군번 0356782**

이춘실 일등병은 1925년 7월 28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봉산동(鳳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

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춘실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오 (李 春 吾) 육군 일등병 군번 0336390

이춘오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용현동(龍現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9연대는 오대산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춘오 일등병은 북한인민유격대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우 (李 春 雨) 육군 하사 군번 1607149

이춘우 하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운문면(雲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

였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의 38도선경비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한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한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였다.

이춘우 하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8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1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춘 홍 (李 春 弘)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4063

이춘홍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부평동(富平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 반란군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춘홍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0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석 (李 忠 錫) 육군 이등병 군번 6600301

이충석 이등병은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산이면(山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이남의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충석 이등병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3-18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섭 (李 忠 燮)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2834

이충섭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패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충섭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0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석 (李 忠 錫) 육군 이등병 군번 6600301

이충석 이등병은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연대는 강릉 지역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오던 중,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 일대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충석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30일 삼척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3-18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섭 (李 忠 燮)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2837

이충섭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 단성면(丹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충섭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섭 (李 忠 燮)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0611

이충섭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문광면(文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정면

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충섭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충 암 (李 屨 岩) 육군 일등병 군번 9303099

이충암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충암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치 종 (李 致 鍾) 육군 일등병 군번 2901635

이치종 일등병은 경기도 용진군(甕津郡) 용유면(龍游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용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용진지구전투에 참전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용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제18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

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탈취당하였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치중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4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이 칠 규 (李 七 奎) 육군 하사 군번 5125677

이칠규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래(東萊)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칠규 하사는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附 錄

1. 韓·美 軍事安全協定
2. 國軍組織法
3. 國防部 職制의 制定
4. 國防機構의 沿革 및 職位表
5. 共匪討伐有功者 表彰狀





## 韓·美 軍事安全協定

이 協定文은 最初의 韓·美軍事協定으로써 1948년 8월 15일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어 美 軍政廳이 우리 政府에게 政權移讓과 美軍撤收에 따른 節次와 美軍撤收 後의 大韓民國의 安全과 大韓民國 國軍의 組織, 訓練, 裝備에 관한 共同關心事를 韓·美間에 協議하는 過渡期의 暫定的인 軍事安全에 관한 行政協定이다.

韓·美 軍事安全協定の 全文은 다음과 같다.

###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 美軍司令官間에 締結된 過渡期에 施行할 暫定的 軍事安全에 관한 行政協定

檀紀4281年(西紀1948年) 8월 24일 서울에서 署名  
檀紀4281年(西紀1948年) 8월 24일 效力發生

#### 前 文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 美軍司令官은 1948년 8월 9일과 1948년 8월 11일부로 各其 美軍 韓國撤收와 韓國 占領終結을 目的으로 하여 駐韓美軍司令官으로부터 大韓民國政府에 政權移讓을 漸進的으로 秩序있게 한다는데 관한 覺書가 交換되었다.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美軍司令官은 代表들을 任命하여 政權移讓을 漸進的으로 秩序있게 하도록 便宜를 圖謀하며 駐韓美軍司令官 隸下에 있는 美軍 撤收節次를 圖謀하기 위하여 協議를 하도록 한 것이다.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美軍司令官의 代表들이 會談한 結果 美軍撤收가 完了될 때까지 韓國의 安全을 維持하며 現在 編成中에 있는 大韓民國 國軍의 組織, 訓練 및 武裝을 繼續함이 大韓民國 政府와 駐韓美軍司令官의 共同關心이라는 것이 表明되었다.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美軍司令官 代表團의 協議에서 表現된 共同軍事安全의 要求를 達成할 基準的 協定成立이 必要하게 되었다.

大韓民國 憲法 第61條에는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으로써 定한다”라고 制定되었다. 그러므로 大韓民國 大統領은 大韓民國의 最高行政官으로 國軍의 統帥의 兩資格을 駐韓美軍司令官과 더불어 駐韓 美軍 撤收가 完了될 때까지 有效할 다음 安全策에 關한 協定을 締結한다.

## 記

第1條 駐韓美軍司令官은 本國 政府의 指示에 遵하며 自己職權內에서 現在 編成中에 있는 大韓民國 國軍을 繼續하여 組織, 訓練 및 武裝할 것을 同意함. 但 司令官의 이에 대한 責任은 美軍의 韓國駐屯撤收 完了時 終結함.

第2條 駐韓美軍司令官은 共同安全이 許한다고 生覺할 때에 漸進的으로 可及的 速히 全 警察, 海岸警備隊 및 現在 編成中인 國軍으로 된 大韓民國 國防軍의 指揮權을 大韓民國 政府에 移讓하기를 同意하면 大韓民國 大統領이 國防軍 指揮責任을 引受하기로 同意함.

또한 駐韓美軍司令官은 1947년 11월 14일 國際聯合 總會 決議文 第2號 第4節에 表示된 美軍撤收가 完了될때까지 共同의 安全과 大韓民國 國軍의 組織, 訓練 및 武裝에 必要하다고 할 때에는 大韓民國 國防軍(陸軍, 海岸警備隊, 危險地域에 配置된 國立警察의 一部로 됨)의 運用에 全權을 保留함. 이 條文은 大韓民國 國軍行政이나 大韓民國의 敵을 排除하는 人事전형이나 現在 또는

未來의 編隊의 人選이나 大韓民國 憲法 第61條에 依하여 國防軍을 增設하는 등의 大韓民國 政府의 主權에 干涉하는 바가 아님.

第3條 大韓民國 大統領이 1948년 8월 9일 부 駐韓 美軍司令官에게 交附한 覺書內容에 遵하여 國際聯合總會의 韓國에 관한 決議文에 있는 韓國占領美軍撤收履行과 大韓民國 政府에 行政權移讓完成에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大韓民國 大統領은 駐韓 美軍司令官에게 緊要한 地點(예 “港口, 陣地, 鐵道, 通信, 飛行場 등)과 施設에 대한 支配權을 保留하도록 同意함.

駐韓美軍司令官은 위에 말한 美軍이 使用하는 地點과 施設의 目錄을 作成하여 大韓民國 政府에 通知하며 또한 變更이 있을 때는 可及的 速히 通知할 것을 同意함.

또한 駐韓美軍司令官 指導下에 있는 軍人, 平人 및 그들의 家族은 大韓民國의 適切한 法則을 人的行動에 있어 지킬 것이며 그들에 대한 全 管轄權은 동 司令官이 保留함에 同意함.

또한 同 司令官 管轄下에 있는 個人으로서 大韓民國 政府司法機關에 檢束될 時는 即時 司令官에게 廻附하여 處斷할 것이며 同 司令官 管下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써 同 司令官 管下에 있는 사람이나 財産의 安全에 不利한 行動을 하다가 檢舉된 者는 즉시 大韓民國 政府에 廻附하여 處斷하기를 同意함.

第4條 大韓民國 大統領과 駐韓美軍司令官은 이 暫定的 協定에 表示된 原則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에게 國防軍에 대한 責任을 漸進的으로 秩序있게 移讓하는 詳細한 것은 雙方에서 適當이 任命된 者 間에 決定할 것을 同意하며 또한 大韓民國 政府에 國防軍 責任移讓은 可及的 短時日內에 할 것을 同意함.

第5條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이 協定을 英·韓 兩文을 作成하여 北美合衆國 政府와 大韓民國 政府에 各其 保管하기로 함.

英·韓文이 同一한 效力이 有하나 相違가 生기는 境遇에는 英文을 遵함.

1948년 8월 26일

資料：國防部戰編委, 韓國戰爭史 1卷(舊板), 1968, pp. 340~342.

## 國 軍 組 織 法

檀紀4241년(西紀1948년) 11월 30일 法律 第9號

國軍組織法은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直後 美軍政下의 朝鮮警備隊가 大韓民國 國軍으로 正式 出帆할 수 있는 法的인 뒷받침을 마련한 法律이다.

### 第1章 總 則

第1條 本法은 陸·海軍을 包含한 國防機關의 設置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定하여 軍政 軍令의 有機的이고 體系있는 國防機能의 遂行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軍은 陸軍과 海軍으로써 組織한다.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에 服務할 義務가 있다.

第3條 大統領은 國軍의 最高統帥者이며 大韓民國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國軍統帥上 必要한 令을 發할 權限이 있다.

第4條 大統領의 惟幄下에 아래의 機關을 두며 그 職制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가. 最高國防委員會와 그 所屬 中央情報局

나. 國防資源管理委員會

다. 軍事參議院

### 第2章 國 防 部

第5條 國防部長官은 軍政을 掌理하는 外에 軍令에 關하여 大統領이 附與하는 職務를 遂行한다.

第6條 國防部次官은 國防部長官을 補佐하며 國防部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7條 國防부에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을 두고 그 밑에 陸軍本部和 海軍本부를 두며 必要에 依하여 其他의 補助 또는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陸軍本部和 海軍本부의 職制와 其他 必要한 機關의 設置 및 事務範圍는 政府組織法 第3條의 規定과 關係없이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 參謀總長과 參謀次長은 國軍 現役將校中에서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參謀總長은 陸軍의 現役最高將校이다.

第9條 參謀總長은 大統領 또는 國防部長官의 指示를 받아 國防 및 用兵 等に 關하여 陸·海軍을 指揮統轄하며 一切軍政에 關하여 國防部長官을 補佐한다.

參謀次長은 參謀總長을 補佐하여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0條 陸軍本부에 陸軍 總參謀長 海軍本부에 海軍總參謀長을 두며 이는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國務會議를 거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條 陸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陸軍本부를 統理하며 隸下 陸軍官衛學校와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海軍總參謀長은 參謀總長의 命을 받아 海軍本부를 統理하며 隸下 海軍官衛學校와 部隊를 指揮監督한다.

### 第3章 陸 軍

第12條 陸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 組織한다.

陸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 戰時를 莫論하고 法律에 依하여 恒時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陸軍의 兵種은 步兵, 騎兵, 砲兵, 工兵, 機甲兵, 航空兵, 防空兵, 通信兵과 憲兵으로써 構成한다.

陸軍에 參謀, 副官, 監察, 法務, 兵站, 經理, 軍醫와 兵器 其他의 部門을 둔다. 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에 依하여 一定한 教育을 받은 者와 其他로써 組織하

는 豫備軍을 말한다.

陸軍組織의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陸軍에는 平時에 師團과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其他 部隊를 둔다.

陸軍은 師團單位로 編成하며 軍事行政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을 數個 師團管區로 나눈다.

師團管區의 設置와 師團 및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陸軍護國軍의 兵力은 陸軍正規軍의 現役兵力에 準한다.

第14條 師團長과 大統領이 定하는 其他 部隊長은 參謀總長의 建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하며 所管 部隊를 統率한다.

#### 第4章 海 軍

第15條 海軍은 正規軍과 護國軍으로써 組織한다.

海軍正規軍이라 함은 平時 戰時를 莫論하고 法律에 依하여 恒時 存在하는 常備軍을 말한다.

海軍은 本科와 各部門으로써 構成한다.

各 部門에는 技術, 軍醫, 經理와 法務, 其他를 둔다.

海軍護國軍이라 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商船 등에서 一定한 訓練을 받은者와 其他로써 組織하는 豫備軍을 말한다.

海軍의 組織 細則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6條 海軍에는 平時에 艦隊, 其他와 國防上 大統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其他 部隊를 둔다.

軍事行動과 戰略上 目的으로 大韓民國 海域을 數個海軍管區로 나눈다.

海軍管區의 設置와 艦隊 其他 必要한 部隊의 配置編成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海軍護國軍 兵力은 海軍定規軍의 現役兵力에 準한다.

第17條 艦隊司令官과 大統領이 定하는 其他 부대장은 參謀總長의 建議의 依

하여 大統領이 任命하며 所管艦隊 또는 部隊를 統率한다.

## 第5章 軍人の身分

第18條 國軍將校는 大統領이 任免한다.

단, 長官級將校의 任免은 國防會議의 議決을 要한다. 將校의 服務年限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 및 上兵의 任免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9條 國軍에 服務하는 者로써 軍人以外에 軍屬을 둔다.

軍屬이라함은 軍에 服務하는 文官을 말하며 그 任免 其他 身分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으로 定한다.

第20條 軍現役과 召集을 當한 軍人 및 軍屬은 軍事法令의 適用을 받는다.

軍人, 軍屬에 對한 審判은 原則적으로 軍法會議에서 行하며 罪와 審判의 手續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6章 其 他

第21條 教育, 禮式, 服制, 給與, 其他 軍事行政上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章 附 則

第22條 本法에 依하여 制定하는 大統領令으로서 軍機密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것은 公布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3條 本法에 依하여 陸軍에 屬한 航空兵은 必要한 때에는 獨立한 空軍으로 組織할 수 있다.

第24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資料 : 國防部戰編委, 韓國戰爭史 1卷(舊板), 1968, pp. 337~339.

## 國防部 職制의 制定

國防部는 國軍組織法을 基礎하여 國會에 회부하고 나서 繼續해서 國防部 職制의 基礎에 着手하였다.

同法草案은 國防部本部와 陸軍本部 海軍本部의 職制를 規定한 것으로서 全文44條로 構成되어 1948년 12월 7日 大統領令 第37號로 公表되었으니 全文은 다음과 같다.

### 國防部 職制

檀紀4281년(西紀1948년) 12월 7일 大統領令 제37號  
改正 檀紀4286년(西紀1951년) 7월 28일 效力發生

第1條 國防부에 國防部本部 및 海軍本부를 둔다.

第2條 國防部本部에 總務課, 報道課, 會計監查課, 第1局, 第2局, 第3局, 第4局 및 第5局을 둔다.

第3條 總務課는 機密事項 官印管守 其他 部內庶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4條 報道課는 作戰에 關한 報道 宣傳 軍人精神涵養과 思想善導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5條 會計監查課는 陸·海·空軍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6條 第1局은 陸軍에 關한 人事, 賞勳, 法制, 法務, 豫算, 軍需 및 陸軍軍事 政策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7條 第2局은 海軍에 人事, 賞勳, 法制, 法務, 豫算, 軍需 및 海軍 軍事政策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8條 第3局은 空軍에 관한 人事, 賞勳, 法制, 法務, 豫算, 軍需 및 空軍 軍事政策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8條의2 第4局은 徵集, 召集 其他 兵役動員, 軍事警察, 軍事教育, 在鄉軍人の 指導監督 兵事區司令部와 所屬團體의 指揮監督 및 其他 部處에 屬하지 않는 軍事援助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8條의3 第5局은 銃砲, 砲藥, 艦砲, 航空機, 其他 兵器와 衣糧 等の 軍需物資의 補給 및 生産計劃과 確保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 陸軍本部에 陸軍參謀副長을 둔다.

參謀副長은 參謀總長을 補佐하며 參謀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10條 陸軍本部에 人事局, 情報局, 作戰教育局, 軍需局, 護國軍 및 아래의 各室을 둔다.

高級副官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財務監室 砲兵監室

工兵監室 通信監室

兵器監室 醫務監室

兵站監室

第11條 人事國은 陸軍 軍人 軍屬의 補佐 賞勳 其他 人事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2條 情報局은 軍事情報 逆情報 및 偵察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3條 作戰教育局은 陸軍의 運用 作戰教育 編制 및 動員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4條 軍需局은 陸軍 軍需品の 調達, 補給의 企劃, 統制와 監督 및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5條 護國軍局은 陸軍護國軍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6條 高級副官室에 高級副官을 둔다.

第17條 監察監室에 監察監을 둔다.

監察監室은 陸軍部隊의 檢閱 및 特殊事項 調査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8條 法務監室에 法務監을 둔다.

法務監室은 陸軍의 法務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9條 憲兵監室에 憲兵監을 둔다.

憲兵監室은 軍事警察 및 軍紀風紀의 維持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0條 財務監室에 財務監을 둔다.

財務監室은 陸軍의 豫算決算, 其他 財政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1條 砲兵監室에 砲兵監을 둔다.

砲兵監室은 砲兵에 관한 運用, 教育, 戰技 및 器材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2條 工兵監室에 工兵監을 둔다.

工兵監室은 工兵에 관한 運用, 教育, 資材와 測量 및 築城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3條 通信監室에 通信監을 둔다.

通信監室은 陸軍通信에 관한 運用, 教育, 監査 및 補給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4條 兵器監室에 兵器監을 둔다.

兵器監室은 陸軍 兵器에 관한 行政, 補給 및 技術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5條 醫務監室에 醫務監을 둔다.

醫務監室은 陸軍의 醫事, 衛生, 藥事 및 獸醫務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6條 兵站監室에 兵站監을 둔다.

兵站監室은 陸軍의 衣糧, 器材, 裝具, 其他 軍需品の 補給品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27條 海軍本部에 海軍參謀副長을 둔다.

參謀部長은 總參謀長을 補佐하며 總參謀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28條 海軍本部에 人事教育局, 作戰局, 經理局, 艦艇局, 護國軍을 두며 아래

의 各室을 둔다.

監察監室, 法務監室, 憲兵監室, 醫務監室, 兵器監室

第29條 人事教育局은 海軍의 軍人, 軍屬의 補佐, 賞勳, 人事 및 教育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0條 作戰局은 海軍의 作戰, 情報, 通信, 水路, 報道, 其他 海軍行政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1條 經理局은 海軍의 財政, 軍需 衣糧, 財産管理, 其他 經理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2條 艦艇局은 海軍 所屬의 艦艇, 船舶과 港灣施設에 關한 企劃과 運營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3條 護國軍은 海軍 護國軍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4條 監察監室에 監察監을 둔다.

監察監室은 海軍部隊의 檢閱 및 特殊事件의 調査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5條 法務監室에 法務監을 둔다.

法務監室은 海軍의 法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6條 憲兵監室에 憲兵監을 두며 軍事警察 및 軍紀風紀의 유지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7條 醫務監室에 醫務監을 둔다.

醫務監室은 海軍의 醫事, 衛生, 藥事に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8條 兵器監室에 兵器監을 둔다.

兵器監室은 海軍의 兵器에 關한 整備 및 技術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39條 陸海軍의 協助와 連結의 圓滑을 기하기 爲하여 國防部에 聯合參謀會議을 둔다.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에 隸屬하여 陸海軍의 作戰, 用兵과 訓練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審議한다.

第40條 聯合參謀會議는 參謀總長을 議長으로 하며 아래의 人員으로 構成한다.

- 參謀次長
- 陸海軍總參謀長
- 航空局長
- 第1局長
- 第3局長
- 國防部長官이 指名하는 陸海軍將校

第41條 聯合參謀會議의 業務遂行의 要領에 關하여는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第42條 國防部의 各 局室에는 課를 들 수 있다.

課의 設置 및 事務範圍에 關하여는 國防部令으로 定한다.

第43條 國防部公務員의 種類와 定員은 別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44條 第6條 乃至 第8條의 規定에 依한 分掌事項을 調整統割하기 爲하여 必要한 各種 委員會를 둔다.

前項의 委員會에 關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附 錄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資料：國防部戰編委, 韓國戰爭史 1卷(舊版), 1968, pp. 342~344.

### 國防機構의 沿革 및 職位表

(1946. 1. 11~1950. 6. 25)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1. 11 軍政廳 國防司令部 內에 南朝鮮國防警備隊 創設 臨時事務所 設置				
1946. 1. 14 南朝鮮國防警備隊創設				
1946. 2. 7 京畿道 泰陵 第1聯隊 內에 南朝鮮國防警備隊司令部 設置	南朝鮮國防警 備隊總司令官	初 代	1946. 2. 7	美陸軍中領 Marshall
1946. 5. 2 泰陵에서 서울特別市 中區 예장동 4番地 舊 日軍 憲兵 司令官 官舍(前 中央情報部 附屬 建物)로 移動		初 代	1946. 2.22 1946. 6.24	參領(少領) 元容德
1946. 6. 15 南朝鮮國防警備隊를 朝鮮警備隊로 改稱	南朝鮮國防警 備隊總司令官 朝鮮 警備隊 總 司 令 官	2 代 2代代理 2 代	1946. 4 1946. 9.28 1946.12.23 1946.12.23 1948.11.20	美陸軍 中領 Barros 參領(少領) 中領 李亨限 中領 宋虎聲 大領

資料：國防部戰編委, 韓國戰爭史 구판 1권, 1968, pp. 272~276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9. 11 美軍行政 및 指揮權을 韓國人에게 引繼하고 顧問官으로 地位변경	朝鮮 警備隊 總 司 令 官 顧 問 官 朝鮮 警備隊 總 參 謀 長	初 代  2 代  3 代	1947. 4. 8  1947. 9.12 1947. 9.12 1948. 2.11 1948. 2.11 1948. 7.25	美陸軍大領 Barros 大領 金相謙 中領 鄭一權 大領 大領 李亨根
1948. 9. 1 南朝鮮 過渡政府 朝鮮 警備隊 大韓民國 國軍으로 編入				
1948. 9. 5 朝鮮警備隊 陸軍으로 改編	陸軍總司令官	3 代	1948.11.20 1948.12.15	大領 李應俊
1948. 10.31 서울 南山 藝場洞 建物에서 乙支路 2街 前 內務部 建物(現 외환은행)로 統衛부와 함께 移動	陸軍總參謀長	初 代  2 代	1948.11.20 1948.12.15 1949. 5. 9 1949.10. 1	陸軍 李應俊 准將 陸軍 蔡秉德 少將
1949. 5. 12 陸軍本部에 行政, 作戰參謀長制 實施				
1949. 6. 30 서울 乙支路 2街 建物에서 龍山區 龍山洞 5街 19番地 現 龍山 郵遞局 後面 美 8軍地域 舊 日本軍建物(首都警備司令部 最初建物)로 移動		3代理  3 代	1949.10. 1 1950. 4.30 1950. 4.30 1950. 6.30	陸軍 申泰英 少將 陸軍 蔡秉德 少將
<b>人 事 局</b>				
1946. 2. 9 南朝鮮國防警備隊 創設과 더불어 總司令部內 人事課 設置	課 長	初 代	1946. 2. 9 1946.10. 4	參尉(少尉) 金賢洙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9 人事課를 人事處로 改編	處 長	2 代	1946.10. 4	中領 金鍾碩
			1046.11.25	
	處 長	3 代	1946.11.25	大尉 博珍景
			1947. 5.17	
	處 長	5 代	1947. 5.17	中領 崔榮喜
			1948. 8.12	
1948. 8. 20 人事處를 人事局으로 改編	局 長	4 代	1948. 8.12	大領 姜英勳
			1950. 6.10	
	局 長	6 代	1950. 6.10	大領 申尙徹
			1950. 7.20	
<b>情 報 局</b>				
1946. 1. 14 南朝鮮國防警備隊 總司令部內에 情報課를 設置 1947. 6. 1 統衛部 情報課과 總司令部情報課가 統合되어 情報處로 改編 1948. 9. 15 情報處를 情報局으로 改編	課 長	初 代	1946. 1.14	美空軍 가스
			1947. 3. 3	少領
	課長, 處長	初 代	1950. 3. 3	少領 崔泓熙
			1950. 6.28	
	處長, 局長	2 代	1947. 6.28	中領 白善燁
			1949. 7.30	
	局 長	3 代	1949. 7.30	大領 李龍文
			1949.10.27	
	局 長	4 代	1947.10.27	大領 申尙徹
			1947.11.13	
局 長	5 代	1947.11.13	大領 張都映	
		1950.10.24	准將	
<b>作戰教育局</b>				
1946. 1. 14 南朝鮮國防警備隊 創設과 더불어 國防司令部內에 作戰教育局 設置	課 長	初 代	1946. 1.14	美軍將校
			1946. 9.11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2. 7 國防司令部 作戰教育局 을 南朝鮮國防警備隊總司令部 作 戰教育課로 移管	課長, 處長	初 代	1946. 9.11 1947. 3.10	大尉 金鍾碩
1947. 2. 1 作戰教育課를 作戰教育 處로 改稱	處 長	2 代	1947. 3.10 1947. 5.19	少領 金鍾甲
	處 長	3 代	1947. 5.20 1948. 2.17	少領 張昌國 中領
1948. 12. 8 作戰教育處를 作戰教 育局으로 改稱	處長, 局長	4 代	1948. 2.17 1950. 6.10	中領 姜文奉 大領
	局 長	5 代	1950. 6.10 1950. 9. 1	大領 張昌國
<b>軍 需 局</b>				
1946. 1. 14 南朝鮮國防警備隊 總 司令部內에 軍需調達課를 設置	課 長	初 代	1946. 1. 4 1946. 8. 1	正尉(大尉) 楊國鎮
1946. 8. 1 軍需調達課를 軍需處로 改編	處 長	2 代	1946. 8. 1 1946.12. 1	大尉 劉載興
1948. 5. 1 軍需處를 軍需局으로 改編	處長, 局長	3 代	1946.12. 1 1948. 6.28	大尉 金東英 中領
	局 長	4 代	1948. 6.28 1949. 1. 3	中領 崔泓熙
	局 長	5 代	1949. 1. 3 1951. 5.26	大領 楊國鎮 准將
<b>高級副官室(現 副官室)</b>				
1946. 1. 14 國防司令部內에 高級 副官室 設置	高級副官	初 代	1946. 1.14 1947. 3. 6	參尉 朴善河 少領
1946. 2. 7 國防司令部內 高級副官 室 總司令部 高級副官室로 編入	高級副官	2 代	1947. 3. 6 1950. 4.22	中尉 黃憲親 大領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3. 3 發刊課를 設置하여 特 命發刊消耗品供給 外國圖書翻譯 1949. 5. 1 文書判讀所 設置 1949. 9. 1 人事局賞典課에서 一部 業務를 引受하여 賞典課 設置 1950. 1. 10 陸軍考試委員會設置 1950. 3. 15 各道兵事區司令部 解 體에 따라 徵募課 設置	高級副官	3 代	1950. 4.22 1950. 9.13	中領 崔慶萬 大領
<b>法 務 監 室</b>				
1946. 7. 20 朝鮮警備隊總司令部內 에 法務處 設置	處 長	初 代	1946. 9. 6 1948. 7.15	少尉 金完龍 中領
1947. 10. 4 法務處를 法務局으로 改編	局 長	2 代	1948. 7.15 1950. 6.19	大領 李贊衡
1948. 8. 4 國防警備法이 公布되어 軍法會議 設置	局 長	3 代	1950. 6.19 1951. 3.24	大領 楊正秀
1949. 5. 1 法務處를 法務監室로 改編	監			
<b>醫 務 監 室</b>				
1946. 5. 1 南朝鮮國警備隊總司令 部內에 醫務局 設置	局 長	初 代	1946. 5. 1 1947.12.28	大尉 申鶴鎮
1947. 5. 1 醫務局을 醫務處로 改 稱	處 長	2 代	1947.12.28 1949. 8.18	少領 博東均 中尉
1949. 5. 1 醫務處를 醫務監室로 改稱	監	3 代	1949. 8.18 1953. 9. 5	准將 尹致旺
<b>財 務 監 室</b>				
1945. 12. 1 國防司令部內에 財務 局 設置	局 長	初 代		美陸軍 Wilkie 大尉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6. 5. 1 國防司令部 財務局이 南朝鮮國防警備隊總司令部 財務 局으로 改稱	局 長	初 代	1946. 5. 1 1948.11.12	大尉 元泰燮 中尉
1948. 11. 12 財務局을 財政處로 改稱	局 長	2 代	1948.11.12 1950. 2.15	中領 元泰燮 大領
1949. 5. 1 財務處를 財務監室로 改稱	局長, 監	3 代	1950. 2.15 1950. 7.10	中領 鄭萬基
<b>監察監室</b>				
1946. 8. 20 統衛部 監察總監室로 發足	統 衛 部 監察總監	初 代	1946. 8.20 1947. 7. 3	大領 李應俊 大領
1947. 7. 10 統衛部 監察總監室이 解體되어 朝鮮警備隊總司令部 監 察總監室로 改編	總司令部 監察總監 監 察 監	初 代 2 代	1947. 7. 3 1948. 7.15 1948. 7.15 1949. 1. 7	大尉 吳東起 少領 中領 楊國鎮
1949. 5. 1 國軍組織法 國防部 職 制에 의하여 監察監室로 改編		3 代	1949. 1. 7 1951.10.21	大領 安椿生 准將
<b>兵站監室</b>				
1947. 1. 1 補給部隊內에서 兵站大 隊를 創設	大 隊 長			
1948. 1. 1 兵站大隊를 後方部隊 司令部에 隸屬시키는 동시에 陸軍 特別部隊로 改稱	大 隊 長 大 隊 長	初 代 2 代	1948. 1. 1 1948. 3. 5 1948. 3. 5 1948. 9.25	少領 劉興守 中領 尹秀鉉
1948. 7. 10 陸軍特別部隊를 總司 令部 兵站處로 改稱	處 長	3 代	1948. 9.25 1948.12.20	中領 金永澤
1949. 5. 1 兵站處를 兵站監室로 改稱	監	4 代	1948.12.20 1950. 1.30	中領 白喜鎮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監	5 代	1950. 1.30 1951. 9.11	大領 尹秀鉉
<p><b>兵器監室</b></p> <p>1947. 4. 1 統衛部 補給部隊를 兵器部隊司令部로 改稱</p> <p>1948. 1. 1 兵器大隊創設</p> <p>1948. 9. 1 兵器大隊를 第1兵器團으로 改稱</p> <p>1948. 12. 15 國軍組織法에 의하여 兵器課 制定 兵器處 設置</p> <p>1949. 5. 1 兵器處를 兵器監室로 改稱</p>	<p>處長, 監</p> <p>監</p> <p>監</p> <p>監</p>	<p>初 代</p> <p>2 代</p> <p>3 代</p> <p>4 代</p>	<p>1948.12.15 1949. 3.13</p> <p>1949. 3.13 1949. 6.20</p> <p>1949. 6.20 1950. 6.10</p> <p>1950. 6.10 1950.10.26</p>	<p>中領 蘇炳基</p> <p>少領 申應均</p> <p>中領 金炯一</p> <p>大領 沈彥樺</p>
<p><b>工兵監室</b></p> <p>1948. 8. 19 朝鮮警備隊 總司令部 丙에서 工兵處를 設置</p> <p>1949. 5. 1 工兵處 工兵監室로 改稱</p>	<p>處 長</p> <p>處 長</p>	<p>初 代</p> <p>2 代</p>	<p>1948.10.11 1948.12. 1</p> <p>1948.12. 1 1950. 8.30</p>	<p>少領 崔昌彥</p> <p>少領 崔昌植 大領</p>
<p><b>調達監室</b></p> <p>1948. 8. 15 軍需局丙에서 中央調達課를 設置</p> <p>1950. 6. 1 軍需局에서 分離되어 調達監室로 獨立</p>	<p>監</p>	<p>初 代</p>	<p>1950. 5. 1 1951.12. 9</p>	<p>中領 金相福</p>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b>通信監室</b>				
1947. 6. 15 南朝鮮國防警備隊 總司令部內에 通信課 設置	課 長	初 代	1947. 6.15 1948. 3.20	中尉 韓唐項 大尉
1947. 7. 20 通信課를 通信處로 改稱	處 長	2 代	1948. 3.20 1949. 1. 3	少領 李春景
1949. 5. 1 通信處를 通信監室로 改稱	監	3 代	1949. 1. 3 1951.12. 9	大領 曹應天
<b>厚生監室</b>				
1949. 7. 5 陸軍本部에 厚生監室 設置	監	初 代	1949. 7. 5 1949. 9.29	中領 朴環遠
		2 代	1950. 6.10 1951. 3. 1	中領 張好珍 大領
<b>政訓監室</b>				
1949. 3. 1 政訓監室 設置 (行政室, 公報課, 指導課, 調查課)	監	初 代	1949. 3. 1 1950. 4. 5	文官 宋冕洙
		2 代	1950. 4. 5 1950.11.20	大領 文容彩
<b>憲兵監室</b>				
1946. 3. 15 南朝鮮國防警備隊 總 司令部內에 軍監隊 設置	軍監隊長		1946. 3.15	少領 李秉珠
1947. 7. 20 警備士官學校에 軍紀 課 設置 軍紀兵 養成	課 長		1947. 7.20	少領 金鍾甲
1947. 10. 30 統衛部內에 軍紀司令 部設置, 朝鮮警備隊總司令部內에 軍紀司令部 設置	軍紀司領官	初 代	1947.10.30 1947.11.30	少領 金鍾甲
1948. 3. 11 統衛부의 軍紀司令部 를 朝鮮警備隊의 軍紀司令部에 統 合 改編		2 代	1947.11.30	大領 李亨根
		初 代	1948. 3.11 1948.11.25	少領 崔 錫

沿 革	職 位	歷 代	在任其間	階級姓名
1949. 3. 1 軍紀司令部를 憲兵司令部로 改稱	憲兵司令部	2 代	1948.11.25 1949. 1. 5	中領 申尙徹
1955. 11. 1 憲兵司令部를 憲兵監室로 改稱		3 代	1949. 1. 5 1949. 6.27	大領 張 興
		4 代	1949. 6.27 1949.11.27	大領 田鳳德
		5 代	1949.11.27 1950. 4.18	大領 崔英善
		6 代	1950. 4.18 1950. 9. 1	大領 宋堯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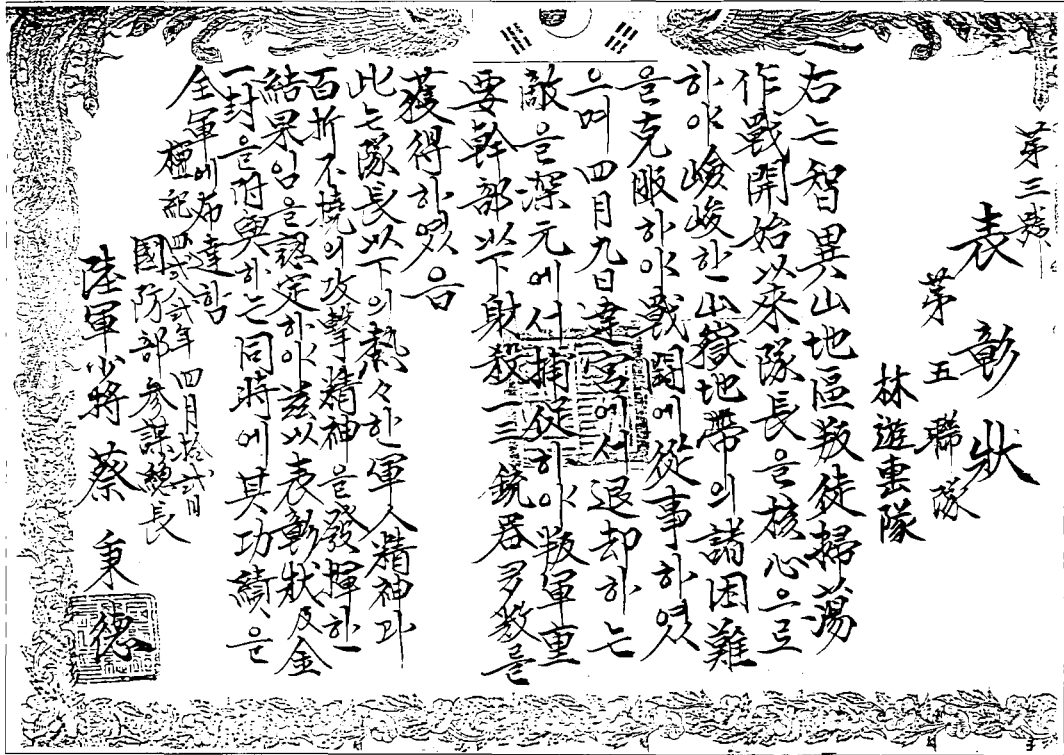
共匪討伐有功者 表彰狀(1)



이 표창장은 1949년 5월 31일 李承晩 대통령이 공비토벌에 공로가 많은 智異山地區 戰鬪司令部에 준 부대표창이다.

資料：國防軍史研究所 資料室

共匪討伐有功者 表彰狀(2)



이 표창장은 國防部 參謀總長 蔡秉德 육군소장이 1949년 4월 12일 智異山地區 達宮戰鬪에서 반란군을 소탕한 공로를 인정하여 제5연대에 준 것이다.

資料：國防軍史研究所 資料室

共匪討伐有功者 表彰狀(3)



이 표창장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丁一權 陸軍准將이 1949년 5월 6일 智異山地區 岳陽戰鬪로부터 德裕山 作戰에 이르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林유격 부대장에게 수여한 것이다.

資料：國防軍史研究所 資料室





## 主要 引用文獻資料

- 『國防史』第1卷，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1984.
- 『陸軍發展史』陸軍本部，1970.
- 『海軍史』海軍本部，1961.
- 『空軍史』空軍本部，1964.
- 『海兵戰鬪史』海兵隊司令部，1962.
- 『戰死者 名簿』戰爭紀念事業會，1992.
- 『武功受勳資料』國防部 人事局.
- 『警察 武功受勳資料』警察廳.
- 『警察 戰死者 個人 資料表』警察廳.
- 『國立顯忠院 安葬資料』서울 國立顯忠院.
- 『國立顯忠院 安葬資料』大田 國立顯忠院.
- 『對非正規戰史』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1988.
- 『韓國戰爭史』第1卷，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1967.
- 『警察戰史』智異山の 砲聲，山清警察署，1989.
- 『警察戰史』泰安寺 別曲，李龍河，圖書出版 法政，1992.
- 『韓國警察史』內務部 治安局，1973.

『大韓警察戰史』第1輯, 民族의 先鋒, 內務部 治安局, 1952.

『警察史』內務部, 1986.

『護國警察戰史』尹長鎬, 도서출판 제일, 1995.

『共匪討伐史』陸軍本部, 1954.

『共匪沿革』陸本 情報參謀部, 1971.

『創軍前史』陸軍本部, 1980.

『部隊史』第1師團 ~ 第8師團, 首都師團, 第18聯隊, 1966.

『兵科別 部隊歷史』陸軍本部, 1959.

『陸軍士官學校 50年史』陸軍士官學校, 1966.

『陸軍士官學校 50年史 寫真集』陸軍士官學校, 1966.

『陸軍歷史 寫真集』第1卷, 陸軍本部, 1972.

『肉彈 10勇士』肉彈10勇士顯忠會, 圖書出版 法政, 1986.

『10勇士의 神話』忠勇戰友宣揚會, 賢文出版社, 1974.

『韓國戰爭要約』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

『砲兵의 발자취』陸軍 砲兵學校, 1963.

『海軍 30年史 寫真集』海軍本部, 1978.

『寫眞으로 본 空軍 20年史』空軍本部, 1974.

其他 參考資料(部隊 略歷表, 部隊沿革, 師團別 略史)



- 主 幹：宣揚事業團長 鄭 錫 均  
□ 執 筆：先任 研究員 高 在 南(유재익~이성찬)  
先任 研究員 金 仲 坤(이성표~이칠규)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제 5 권

1997年 12月 23日 印刷

1997年 12月 29日 發行

發行處 國 防 部

發行人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駟

印刷處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정간위심의필 97-11-3-22〉

〈非賣品〉